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 (Social Quality)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Quality of Seoul Urban Society

조 권 중 · 변 미 리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Quality of Seoul Urban Society

2009

■ 연구진 ■

연구책임 조 권 중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원 변 미 리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최 지 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 세계 경제의 변화에서 새로운 정책 어젠다(Agenda)의 모색이 요구됨.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기존의 서울의 발전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음.
- 21세기 초까지 경제 사회정책의 어젠다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와 선진사회를 위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제고를 중심으로 설정됨. 두 어젠다는 세계를 지향하는 대외적 접근과 개인의 삶 및 환경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음.
-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의 진행과 이로 인해 파급되는 국내적 영향은 경제체계의 재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도시 정책의 수립 시 도시 사회 구조와 사회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서울 사회의 질에 기초한 접근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울의 현황을 점검하는 준거틀을 제시하고자 함.
-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3. 주요 연구내용

- 사회의 질 개념과 이론적 시각 및 정책적 의미
- 외국과 한국의 사회의 질 접근과 사례 연구의 특성 검토
- 사회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및 서울의 수준 평가
- 성숙한 도시를 위한 정책 어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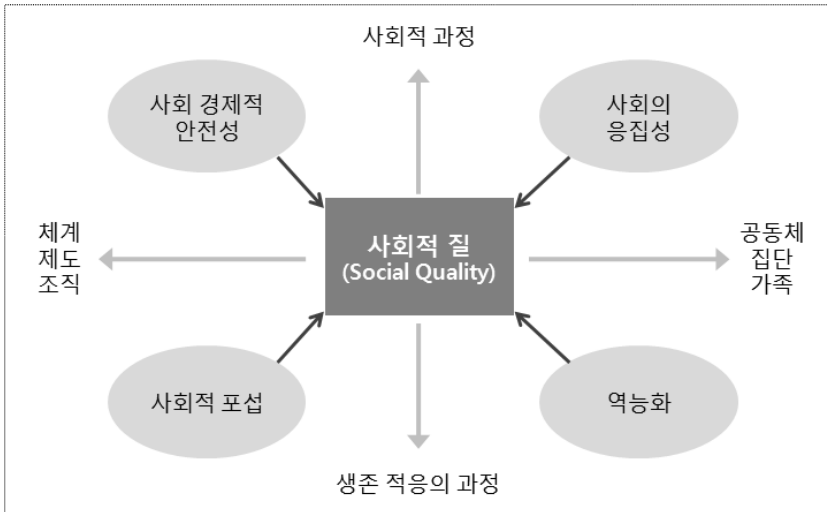
4.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연구 :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적 질의 전략을 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내고자 함.
- 해외사례 연구 : 사회의 질을 위한 전략에서 이루어진 사회 분석과 사회 정책 비교
-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 서울의 지표 설정과 사회구조 분석
 - 서울서베이의 기초 자료
 - 서울 시정 5개년 계획 자료
 - 사회 통계 자료

5. 사회의 질 연구의 준거틀

-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 대한 모색에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관한 연구는 사회 발전의 네 차원에서 연구와 정책 방향을 세우려 하고 있음.
 - 안심하게 자원을 제공하는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 정체성과 가치규범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응집성(social cohesion)
 - 배제되는 집단이 없는 포용성(social inclusion)
 - 개인의 역량을 함양하는 역능성(social empowerment)

-이러한 네 차원에서 제시되고, 경제, 사회, 문화, 개인적 삶을 포괄하는 접근은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사회적 질 준거틀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사회경제적 안전성(Security) : 재정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보건, 노동, 교육

-사회적 응집성(Cohesion) : 신뢰,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사회적 포용성(Inclusion) :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사회적 역능성(Empowerment) : 지식, 노동시장 내 결사,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사적 관계

6. 서울 사회의 질 영역별 현황과 평가

1)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란 물질 풍부함,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등으로 시민들이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인 안전, 사회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음.
-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 수준이던 것이 1년 사이 12.5%로 더 높아졌으며, 가구부채율 역시 2007년 기준 50%를 상회하는(가구 부채율 52.1%) 등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안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불안정한 상태임.
- 거주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주택소유, 1인당 평균 거주면적)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권역 간 차이는 큰 편으로, 동남권과 도심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면적 등이 넓음.
- 사회적 안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건수, 도시위험도 등의 지표들은 서울의 사회적 안전화 경향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범죄건수는 2007년 기준 전년 대비 10여건 미만의 증가를 보이며 연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시안전화 경향을 나타내며, 도시의 건축붕괴,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요소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한편, 서울 밤길에 대한 두려움은 매년 감소하다가 2007년 기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전 인지도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도시의 안전은 위협한 순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 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하는 측면과 도시 공간에 사는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별적 안전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의료시설 수나 의료인력 등 건강복지 관련 물리적 시설의 안전성은 매년 증가하여 안정적인 추세임.
-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전성 확보 측면의 노후 준비율과 노후활동 참가율은 60% 내외로 나타나 반수를 약간 넘는 시민들이나 노인들만이 노후 삶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에 사는 노인인구 10명 중 2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시민의 개인적 삶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경제적 노동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유연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고용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사회응집성 영역

- 한 사회의 응집과 분열의 정도는 혈연단위, 개별 조직단위, 사회 전체단위로 나뉘 분석 가능함. 사회의 여러 층위(layer)에서의 응집성의 결핍, 혹은 분열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되 돌아옴.
- 서울의 사회응집성을 혈연단위에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을 나타내는 가족가치관은 보통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
 - 가족들은 정기적인 식사나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등을 수용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부부의 응집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사노동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주부를 여전히 가사의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성평등에 대한 실천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조직단위의 사회응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원봉사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보임.
 - 다만 10대 청소년들의 의무적 자원봉사비율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반적인 응집성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지표들은 사회응집성 영역의 불안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지불의사에 있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비율이 높아 세대 간 응집성이 불안전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관용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민들이 기존의 것에 대한 응집성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나와 다른 집단’과의 응집성(사회적 약자, 서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도시는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서울의 변화하는 다원성,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응집성 영역에서의 불안전성은 향후 사회적 이슈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3) 사회적 포섭 영역

-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포섭 영역은 궁극적으로 이 영역의 질적 제고로 사회의 소통비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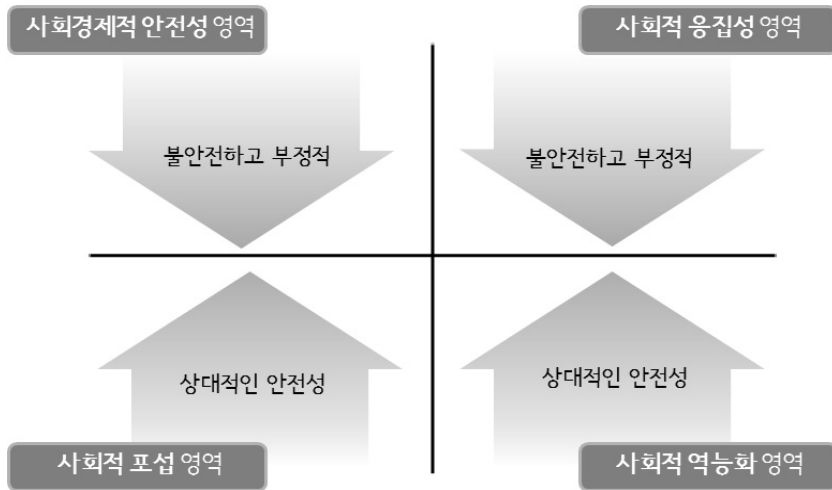
갈등비용을 줄이는 데 있음. 성별 갈등, 세대별 갈등, 계층별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기회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전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임.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로서의 자발적 참여 혹은 자원성(自願性)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적 포섭 영역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음.

- 사회적 포섭 영역의 개별 지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서울은 남녀 차이에 따른 임금, 직업지위 차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시민권 영역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회적 포섭을 위한 사회의 서비스 질 개선 영역의 경우 공공보육의 개선, 고등교육 참여율의 권역별 차이 정도의 완화, 69% 이상의 대중교통수송 부담률, 대중 스포츠시설·문화시설의 지속적 증대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지표 현황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포섭을 지향하는 정책성과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동등한 기회구조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서울시의 사회적 포섭 정책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4) 사회적 역능화 영역

- 사회적 역능화의 차원에서 개인의 능력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기기 보유, 정보기기 활용성 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공공영역의 역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활동 관련 예산지원 정도를 보면 2007년 기준 전년대비 거의 300% 정도 증가함. 2007년 문화예산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민선4기 서울시정이 문화시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도시사회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영역의 질적 개선과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지향은 일정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사적관계의 역능화를 위한 서울시 현황을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 수나 영유아 시설이나 방과후 학교 현황, 주거와 환경의 디자인적 요소의 포용 등에서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표 현황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역능화 차원에서 질적 제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서울 사회의 질 총괄 평가

II. 정책건의

1.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

1) 역동적 균형과 성숙한 사회

○사회의 질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각 영역에서 추구하여야 할 정책적 지향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요소와 영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활력을 잃지 않는 ‘역동적 균형’이 필요함.

- 각 영역은 사회 전체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전체 사회의 과정으로 사회의 발전 방향이 정립됨. 안전사회, 참여사회, 신뢰사회, 활력사회는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바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의 하위 영역의 부분적인 특성을 보임. 이들 각 영역이 지향하는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이들 간의 균형은 포괄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의미함.
- 성숙한 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그리고 각 영역 간의 역동적 균형을 통한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이 사회의 질 접근에서 제시하는 사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2) 성숙한 사회를 위한 정책 지향

-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위한 물질적 수준에서의 혁신
 -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함. 즉 정책집행의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함.
 -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실업과 질병, 범죄와 재난, 노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이 없도록 제도를 챙기고 배려하여야 함.
- 사회적 수준의 연대와 통합에서 핵심적 사항은 사회적 갈등과 가족 및 사회의 해체를 막는 일에서 시작하여야 함.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생과 통합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 간 상생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및 성매매 방지 등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국제기준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마련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하고 노사 간 갈등과 폭력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조화와 협력의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갈등 관리가 필요함.

○ 참여사회에서 갈등의 제도화

-절차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이념적 지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회통합은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사회적인 역동성은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 분업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

-각 지역의 경제적 조건, 자연생태의 특성, 그리고 도시 인프라 등이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택하여 전체적인 상승효과를 거두는 것이 보다 도시 서울의 사회통합의 원리에 부합함.

○ 개인의 역능화와 기회의 확대

-사회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며 이를 위해 평생의 교육과 학습기반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치 문화적으로 특권과 위계성을 줄이는 것은 기회의 평등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임.

3) 성숙한 도시 사회를 위한 기본 정책 과제

○ 기존의 경제 사회정책 연구의 틀에서 성숙한 도시사회를 지향하는 기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정책 연구 성과를 참조로 사회의 질 관점에서 기본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유연안전성을 위한 고용정책

-노동의 숙련도 향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숙련 향상을 위한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역동성과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제도적으로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철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투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양극화와 빈곤화 경향에 대한 탈한계화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도시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욕구별 지원 확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제도 개편 및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비, 사회보험 배제층에 대한 확대, 취약계층 대상 준 보편 수당제 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 건강한 도시 사회를 위한 공공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비 비중 확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역별 형평공급, 재가서비스시설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계층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보장정책

-시민 개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해 모든 계층에게 고른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득계층별 교육결과·학습성취의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강화, 학력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안정된 도시 생활을 위한 주거보장정책

-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월세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 저소득층 주거마련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 확대, 지역개발과정에서 주거상실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노숙자 등 주거상실계층 보호 강화 등이 정책에서 구체화되어야 함.

목 차

제1장 사회의 질 발전 전략의 이론과 정책 어젠다	3
제1절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4
3. 연구 방법	4
제2절 정책 어젠다의 접근들: '삶의 질'과 '경쟁력'	5
1. 삶의 질에 대한 접근	5
2. 도시의 경쟁력 어젠다	8
제3절 사회의 질 접근과 정책 어젠다의 의의	14
1. 사회의 질 개념과 이론	14
2. 삶의 질 접근과의 비교	16
3. 사회의 질 어젠다	18
제2장 사회의 질 연구 흐름과 동향	23
제1절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의 성과	23
1.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 흐름	23
2.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 성과	28
제2절 아시아 비교 연구의 특성	30
1. 등장배경	30
2. 아시아 연구 현황	31
3. 아시아 비교연구의 특성	32

제3절 한국 사회의 접근의 특성	35
1. 한국 사회의 질 평가	35
2. 한국 사회의 질 비교연구	38
제3장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과 발전	45
제1절 국가 및 도시의 지표 사례 검토	45
1. 지표 접근방식의 변화	45
2. 지표 사례 검토	47
제2절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	55
1.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55
제3절 서울의 사회의 질 지표 설정	62
제4장 서울 도시 사회의 질에 대한 현황과 평가	67
제1절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67
1. 재정자원	67
2. 주거와 환경	71
3. 건강과 보건	74
4. 노동	79
제2절 사회적 응집성 영역	80
1. 신뢰	80
2. 규범과 가치	81
3. 사회적 네트워크	85
4. 정체성	86

제3절 사회적 포섭 영역	88
1. 시민권	88
2. 서비스	91
제4절 사회적 역능화 영역	97
1. 지식기반	97
2. 공공영역	99
3. 사적관계	101
제5절 영역별 총괄 평가	102
1.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103
2. 사회응집성 영역	104
3. 사회적 포섭 영역	105
4. 사회적 역능화 영역	107
제5장 서울의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방향	111
제1절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구상	111
1. 도시 발전과 사회의 질	111
2. 사회의 질과 도시 사회의 지향	114
제2절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	115
1. 역동적 균형과 성숙한 사회	115
2. 성숙한 사회를 위한 정책 지향	117
3.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기본 정책 과제	119
참고문헌	123
부 록	129
영문요약	155

표 목 차

〈표 1-1〉	주요 삶의 질 지수	8
〈표 1-2〉	거점도시와 서울 비교	11
〈표 1-3〉	도시경쟁력 이슈와 관련영역	12
〈표 1-4〉	주요 경쟁력 지수	13
〈표 1-5〉	정책 어젠다 연구 비교	18
〈표 2-1〉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의 연구 진행과 성과	34
〈표 2-2〉	이재열(2007)의 사회의 질 지표항목	36
〈표 2-3〉	분석에 사용된 변수 (장덕진, 2009)	39
〈표 3-1〉	우리나라의 풍요로움 지표별 점수와 순위	48
〈표 3-2〉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영역 및 지표 구성	49
〈표 3-3〉	책스빌의 삶의 질 지표구성	50
〈표 3-4〉	삶의 질 평가 연구 지표사례	52
〈표 3-5〉	Mercer 사의 Quality-of-Living Reports의 지표	53
〈표 3-6〉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도시 평가 지표	54
〈표 3-7〉	지속가능한 시애틀 지표 (1차)	55
〈표 3-8〉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Keizer et al., 2003)	56
〈표 3-9〉	사회적 응집성 지표 (Berman et al., 2004)	57
〈표 3-10〉	사회적 포섭의 지표 (Walker et al., 2003)	58
〈표 3-11〉	사회적 역능성 지표 (Herrmann, 2003)	59
〈표 3-12〉	서울시의 사회의 질 지표 구성	63
〈표 4-1〉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68
〈표 4-2〉	서울시 자가와 전/월세 비율	71
〈표 4-3〉	1인당 거주면적	72
〈표 4-4〉	범죄발생 및 검거 건수	73

〈표 4-5〉 서울시 도시위험도	74
〈표 4-6〉 의료인력 수	75
〈표 4-7〉 의료시설 수	76
〈표 4-8〉 노후준비 방법	78
〈표 4-9〉 노동유연성 비율	79
〈표 4-10〉 가족생활의 가치관	80
〈표 4-11〉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참여	81
〈표 4-12〉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83
〈표 4-1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84
〈표 4-14〉 주위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86
〈표 4-15〉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86
〈표 4-16〉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87
〈표 4-17〉 투표 현황	89
〈표 4-18〉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89
〈표 4-19〉 서울시 여성 고위관리직 비중	91
〈표 4-20〉 공공보육시설 현황	92
〈표 4-21〉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93
〈표 4-22〉 고졸생 대학 진학률-권역별 평균	94
〈표 4-23〉 공공체육시설 현황	96
〈표 4-24〉 문화시설 현황	97
〈표 4-25〉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98
〈표 4-26〉 서울시 재원배분 현황	100
〈표 4-27〉 연도별 재원배분	100
〈표 4-28〉 계층귀속의식	101
〈표 5-1〉 주요 대도시별 발전전략	112

그림목차

〈그림 1-1〉 도시연구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	9
〈그림 1-2〉 사회의 질 준거들	15
〈그림 2-1〉 한국 사회의 질 평가 (이재열, 2007)	38
〈그림 2-2〉 33개국 사회의 질 평가 (장덕진, 2009)	40
〈그림 2-3〉 ASQN (Asian Social Quality Network) 내의 비교 (장덕진, 2009)	41
〈그림 3-1〉 사회의 질 지표 개발과정 (Laurent J.G. van der Maesen, 2009)	61
〈그림 4-1〉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내역	69
〈그림 4-2〉 상대적 빈곤율	70
〈그림 4-3〉 부채율과 부채유형	70
〈그림 4-4〉 자가와 전/월세 비율	71
〈그림 4-5〉 1인당 거주면적	72
〈그림 4-6〉 거주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73
〈그림 4-7〉 도시위험도	74
〈그림 4-8〉 의료인력 수	75
〈그림 4-9〉 만명당 의료시설 수	76
〈그림 4-10〉 음용식수	77
〈그림 4-11〉 노후준비 방법	78
〈그림 4-12〉 노동유연성 비율	79
〈그림 4-13〉 가족생활 가치관	80
〈그림 4-1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81
〈그림 4-15〉 가사노동분담 정도	82
〈그림 4-16〉 외국인과의 결혼거부감 정도	84
〈그림 4-17〉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85

〈그림 4-18〉 단체활동 참여 유형	85
〈그림 4-19〉 서울시민 자부심	87
〈그림 4-20〉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88
〈그림 4-21〉 연도별 성별임금격차	90
〈그림 4-22〉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91
〈그림 4-23〉 공공보육 비율	92
〈그림 4-24〉 보육시설 만족도	93
〈그림 4-25〉 고졸생의 대학진학률	94
〈그림 4-26〉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95
〈그림 4-27〉 지하철 최고혼잡도	95
〈그림 4-28〉 문화시설 현황	97
〈그림 4-29〉 인터넷 이용자 수	98
〈그림 4-30〉 일상생활의 인터넷활용 정도	99
〈그림 4-31〉 서울시 문화예산배분 현황	100
〈그림 4-32〉 중산층 귀속의식	102
〈그림 4-33〉 서울 사회의 질 총괄 평가	108
〈그림 5-1〉 뉴욕시민들의 거주지 이동원인	113
〈그림 5-2〉 사회의 질의 통합적 접근 지향	116

제1장 사회의 질 발전전략의 이론과 정책어젠다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정책 어젠다의 접근들
: ‘삶의 질’과 ‘경쟁력’

제3절 사회의 질 접근과 정책 어젠다의 의의

제 1 장

사회의 질 발전전략의 이론과 정책 어젠다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세계 경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Agenda)의 모색이 요구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20세기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사회경제적 상황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정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은 경쟁력 전략의 전제가 되었던 글로벌화의 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기존의 서울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21세기 초까지 경제·사회 정책의 어젠다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와 선진사회를 위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제고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두 어젠다는 세계를 지향하는 대외적 접근과 개인의 삶 및 환경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의 진행과 이로 인해 파급되는 국내적 영향은 경제 체계의 재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사회 불안이 증

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 구조의 양극화는 사회 해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단순한 문제 상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 정책의 수립 시 도시 사회 구조와 사회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서울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기초한 접근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울의 현황을 점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사회 발전 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의 질 개념과 이론적 시각 및 정책적 의미
- 외국과 한국의 사회의 질 접근과 사례 연구의 특성 검토
- 사회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및 서울의 수준 평가
- 성숙한 도시를 위한 정책 어젠다 제시

3.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연구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의 질의 전략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어젠다 연구로 삶의 질 접근과 경쟁력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의 질 접근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 해외사례 연구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된 사회의 질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사회의 질에 기초하여 서울의 지표를 설정하고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서베이의 기초 자료, 서울 통계연보, 사회통계조사, 서울 시정 5개년 계획 자료 등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정책 어젠다의 접근들 : ‘삶의 질’과 ‘경쟁력’

1. 삶의 질에 대한 접근

1) ‘삶의 질’의 정의

서양에서는 대체로 1960년대 도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반드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사회지표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질’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동안의 성장위주정책은 환경오염과 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단순한 소득의 증가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식이 대두되었다(장봉규 외, 1996).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이다. 삶의 질적 수준과 삶의 가치의식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 및 환경의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하재구, 1986).

“삶의 질이란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의 외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김재수, 1999). 또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의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과 관습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김재수, 2000).

개인의 삶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이 ‘삶의 질’의 구성요소라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역사회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며, ‘삶의 질’과 지역이 연계되게 된다. 마이어(Myers)는 “삶의 질이란 대체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특징과 이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살기 적합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이광국 외, 2004).

이처럼 삶의 질은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과학기술부, 2007). 각 기관이 규정하는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

- 인류의 행복(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호뭇한 상태)한 삶과 관련된 사회적 척도로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총합(OECD)
-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WHO)
- 지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취도 등(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 개인의 Well-being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객관적인 만족을 포함한 것(미국환경보호청)
- 일상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에서부터 느끼는 행복한 정도(과학기술부, 2007)

2) 삶의 질 연구의 특성

삶의 질은 바라보는 차원이나 관점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구성이 상이하다.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과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로 구분이 가능하다.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주관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내면적 기대수준을 충

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통합하여 보는 관점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평가’로 정의 내리고 있다(이강웅, 1999).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은 살기좋은 환경 즉, 경제적 상태, 인구학적 특성, 건강수준, 교육수준, 문화생활 등의 객관적 조건과 통계치를 강조하고 있다(류시문, 2003 재인용; Johnson et al., 1982; Waiker and Rosser, 1988). 초기 삶의 질 연구는 대부분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표준화된 객관적 변인들을 분석하였다(김현식, 2001)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개념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삶의 질을 개개인들의 전반적인 만족감과 안녕감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주관적 안녕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사고를 의미”한다(Myers and Diener, 1995).

그동안 다루어진 대다수의 삶의 질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이란 개념은 객관적 삶의 조건이 그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주관적 행복 또는 만족감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주관적 차원뿐 아니라 객관적 차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모형들이 등장하였다. 통합적 삶의 질이란 流量(flow)으로서의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삶의 조건들과 이를 인지하는 貯量(stock)으로서의 주관적인 척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척도를 계량하기 위한 정교한 설문조사 계획 등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김현식, 2001).

3) 삶의 질 지표현황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삶의 질의 상태를 보다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의 모든 관심영역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이인영, 1998).

〈표 1-1〉 주요 삶의 질 지수

조사 기관	지수 명	한국순위/ 국가 수	조사 연도	비 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lity of life index	30/111	2005	객관적 지표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기대수명, 정치안정/안전도, 이혼율, 종교 및 노동조합 참석 여부, 위도(온도), 실업률, 정치적 자유도, 남녀 간 소득격차)
IMD	Quality of life(survey)	39/61	2006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측정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26/177	2006	객관적 지표 (건강, 교육, 생활수준)
일본사회경제 생산성본부	풍요로움 지수	20/30	2006	객관적 지표

2. 도시의 경쟁력 어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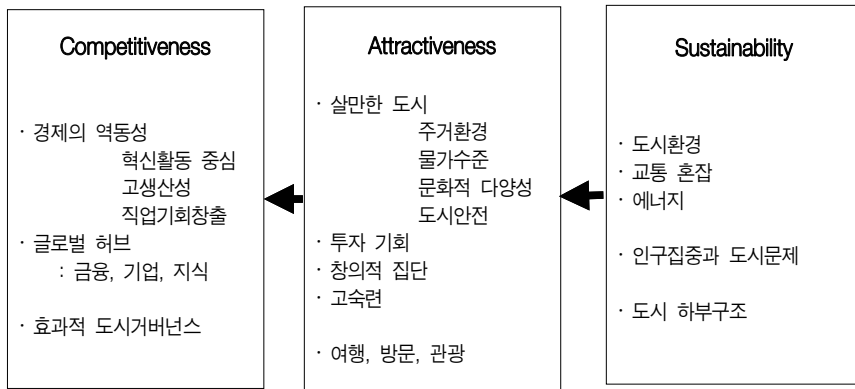
1) 도시연구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

도시에 대한 어젠다는 80년대부터 여러 정책적인 틀에서 제시되어 왔다. 도시정책의 흐름에서 ‘지속가능성’, ‘매력성’, ‘경쟁력’의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다.

1980~1990년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제의 설정으로¹⁾, 도시에 있어서도

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보전 실천강령인 “의제21(Agenda21)”를 채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권고받았고, 서울시도 의제21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도시의 하부구조, 인구집중과 도시화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환경, 교통 혼잡, 에너지 사용 등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에 핵심적 영역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의제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과 더불어 더욱 강조된다.



〈그림 1-1〉 도시연구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자유무역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도시에 대한 정책적 의제로 도시의 ‘매력성’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를 찾아가는 외부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과 물가수준, 문화적 다양성, 도시의 안전 등을 준거로 살만한 도시인지를 평가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의 내적 환경으로 볼 수 있는 투자기회의 특성, 창의적 집단의 존재, 고속권 기능 인력의 풍부함 등은 도시가 매력을 갖게 하는 척도로 인식되었다.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과정에서 여행과 관광 및 방문의 대상이라는 점 역시 도시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제시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보다는 도시 단위의 경쟁이 보다 부각되었다. 자본과 상품, 서비스 및 인력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의 단위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기업에서 시작되어 국가단위의 관심으로 옮겨졌다가 이제는 도시단위

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이전에 추구되었던 매력성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고 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 글로벌 허브 도시의 등장,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요소를 포괄하는 도시의 정책적인 어젠다가 되었다.

2) 도시경쟁력 연구의 진단

OECD의 도시에 대한 연구는 도시경쟁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비교와 사례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OECD의 연구에서 성공도시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다.

- 젊고 재능있으며, 고숙련 노동자를 유인
-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중심
- 글로벌 및 지역의 헤드쿼터 역할
- 대학의 연구와 생산의 근접성 및 기술혁신의 상업화

도시경쟁력의 요건으로 다양한 기회와 살만한 도시로서 행·재정이 건전한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 전략적인 비전 : 다양한 벤처 사업
- 살만한 도시 : 고품질의 하부구조, 녹색 공간, 주거여건, 공공사업 등이 외국 투자 및 전문직, 여행객을 유인하면서 경제적 성공에 기여
- 효과적인 도시거버넌스
- 스마트 세금과 재정 건전화

도시경쟁력과 인구관련성에 대해 OECD는 경험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의 인구 수는 7백만명 수준까지 지역의 경제성장에 비례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집적의 비경제’란 특성이 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3) 역사적 시각에서의 2)의 ‘거점도시’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럽 최고의 석학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장과 세계화의 연관성을 통해, 세계의 상업적 질서 확장 과정에서의 거점도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자본주의 발전과 근대의 시작에서부터 도시의 변천을 살펴보면, 거점도시들이 지구에서 서진하는 역사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아탈리가 제시하는 역사적인 거점도시들은 브루게 → 베네치아 → 앤트워프 → 제노바 → 암스테르담 → 런던 → 보스톤 → 뉴욕 → 로스앤젤레스로 변천하였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거점도시들의 특성은 거대한 커뮤니케이션망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거점도시들은 농업 및 제조업의 배후지를 거느리고, 도시의 창조적인 계급이 도시의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풍부한 자금조달의 금융기관이 도시에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상품화 능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를 위협하는 정치, 사회, 문화, 군사의 적대적 소수자를 제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표 1-2〉 거점도시와 서울 비교

거점지역도시들의 특성	서울의 현황
• 거대한 커뮤니케이션망의 중심	• 국제 관계의 네트워크 미약
• 농업 및 제조업 배후지	• 수도권외의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의 문제
• 창조적 계급의 프로젝트	• 창조 인력의 양성 및 유입의 미약, 벤처산업의 토양 미약
• 풍부한 자금조달의 금융기관	• 금융허브도시로의 발전 계획과 노력
• 신기술, 서비스 상품화 능력	• 신성장 산업 지원의 노력
• 정치, 사회, 문화, 군사 적대적 소수자의 제어	• 북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성
• 통신망과 원자재 확보	• IT 인프라스트럭처의 강점 및 원자재의 해외의존성,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2) 자크 아탈리, 『미래의 물결』, 위즈덤하우스 2007

4) 도시경쟁력에 대한 이슈

경쟁력 어젠다는 도시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표 1-3>은 도시에 대한 대내외적 관점, 기업의 관점, 시민과 노동의 관점, 거버넌스와 미래에 대한 준비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도시의 주요 이슈와 관련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3> 도시경쟁력 이슈와 관련영역

도시경쟁력 의제 사항	도시 관련 영역과 분야
(1) 외국에서 찾아올 만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마케팅차원에서 제기되는 역사, 전통, 문화 및 예술, 쇼핑, 레저, 스포츠, 이벤트
(2) 외국에서 배울 만한가? 도시기반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정책, 거버넌스, 도시 관리, 도시경영 에너지 : 전력, 석유, 석탄, 대체에너지 등등 물 : 상하수도 등 생활용수 및 하천의 활용 폐기물 도시 재해의 방비체제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3) 기업의 관점에서 투자 및 경제활동을 할 만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노동력 :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 안정된 수요 및 새로운 수요 : 소득 수준 기업 투자의 제도적 여건 : 세금, 물가, 규제, 부패, 투명성 기업들 간의 경쟁과 협동의 클러스터 정보활동 기반 : 통신과 컴퓨터 등 정보활동 가용성
(4) 노동력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집약적 경제에서 지식집약적 경제, 서비스 경제로의 변화 고임금 고생산성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5) 시민이 머물러 살 만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수준 : 주거, 식품 안정성 안전성 : 치안, 재해, 재난 편리성 : 교통 및 물류 쾌적성 : 환경, 대기, 녹지, 물, 쓰레기 등등 건강성 : 의료체계, 스포츠 레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 교육환경 사회적 통합성 : 이웃, 공동체, 양극화, 고령화 문제, 갈등 문제, 사회적 용인의 수준 문화적 다양성 :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적 향수 수준의 고양, 도시적 다양성, 문화 기반, 음식문화, 의류문화, 사이버 문화, 모바일 문화 개인 생애주기의 안정성 : 사회적 안전망
(6) 미래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수요를 위한 공간 개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 잠재력 보전 및 개발의 선택 미래를 위한 비전은?

5) 경쟁력 지표 현황

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각 도시나 사례에 대한 비교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시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나 정책의 틀과 관련된 이슈들이 점차 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경쟁력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함의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고에서 도시나 국가에 대한 지수를 설정하여 순위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4〉 주요 경쟁력 지수

주관기관	내용	주요 결과
머서 휴먼 리소시스(MHR)	도시 조사 보고 '삶의 질' 2009	빈(1위), 취리히(2위), 제네바(3위) 서울(83위)
영국 레세스터 대학 조사	'행복한 국가' 2007	덴마크(1위), 스위스(2위), 오스트리아(3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2009)	'국가경쟁력' 한국(27위) 1위(미국), 2위(홍콩) 3위(싱가포르)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2007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s'	스위스(1위), 핀란드(2위), 덴마크(3위), 한국(24위)
Economist	도시 경제 순위 2020년까지 추정된 GDP	Tokyo(1위), New York(2위), LA(3위) 서울은 15위 안에 들지 못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	New York(1위), Dublin(2위), London(3위), 서울(27위)

중국의 사회과학연구원은 2007년에 도시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하나인 세계도시 경쟁력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경쟁력에 대한 설명 요소로 인적 자본 경쟁력, 기업가정신 경쟁력, 생활환경 경쟁력, 비즈니스환경 경쟁력, 혁신 환경 경쟁력, 사회환경 경쟁력을 제시하고 있다. 지수의 설명 요소로는 규모지수, 품질지수, 효율지수, 성장지수, 취업지수, 구조지수, 수익지수 등을 들면서 종합경쟁력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종합경쟁력 지수는 27위이다.

제3절 사회의 질 접근과 정책 어젠다의 의의

1. 사회의 질 개념과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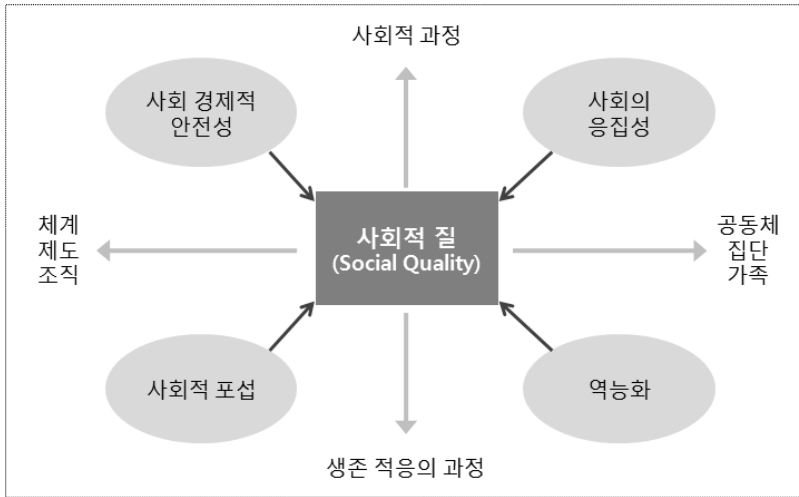
‘사회적 질’이란 개념은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사회안전과 통합,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조건짓는 사회관계와 제도의 총체로 유럽에서 고안되었다. “사회적 질은 시민들이 건강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et al., 2001). 1997년 유럽의 사회적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에는 1000명 가까운 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서명한 바 있고, 유럽의회의 공식의제로도 채택되었다.

사회적 질 접근은 기존의 삶의 질 접근이 보이는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 특성에 대해 사회를 평가의 단위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또한 글로벌 경쟁을 지양하면서 사회의 수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두 접근이 상황에 대한 지표적인 접근에 치중한다면 사회적 질 접근은 사회 이론에 따라 사회정책의 체계적 인과성을 전제하여, 사회과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적 질 접근은 사회의 규범적 상황을 네 차원에서 제시한다. 살기 좋은 사회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안전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응집성),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역능성)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질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착해내기 위해 제안한 매우 가치부하적인 개념이다(이재열, 2008).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 대한 모색에서 사회적 질(Social Quality)에 관한 연구는 사회 발전의 네 차원에서 연구와 정책 방향을 세우려 하고 있다. 안심하게 자원을 제공하는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정체성과 가치규범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응집성(social cohesion), 배제되는 집단이 없는 포용성

(social inclusion), 개인의 역량을 함양하는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이 사회발전의 네 차원에 해당된다. 경제, 사회, 문화, 개인적 삶을 포괄하는 이러한 접근은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사회의 질 준거틀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인 긴장의 함수로서, 한편으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와 구조)과 다른 한편으로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세계)을 교차하여 다양한 목적을 설정한다(EU,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사회경제적 안전성(Security) : 재정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보전, 노동, 교육

- 사회적 응집성(Cohesion) : 신뢰,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 사회적 포용성(Inclusion) :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 사회적 역능성(Empowerment) : 지식, 노동시장 내 결사,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사적 관계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안전사회와 위험사회(안전성 영역),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응집성), 포용사회와 차별사회(포용성), 활력사회와 무기력사회(역능성)로 나뉘게 된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영역은 기존의 사회 정책의 틀에서 개별적인 목표이거나 정책이나 이론의 준거틀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을 사회의 질에서는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삶의 질 접근과의 비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질이 앞에서 논의된 삶의 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EFSQ에서 정의한 사회의 질과 삶의 질 접근의 비교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³⁾.

사회의 질 접근은 사회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삶의 질 접근은 사회적 지표체계를 통해 주관적 웰빙(Well-being)과 객관적 삶의 기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3) Laurent van der Maesen, Alan Walker & Margo Keizer, "Social Quality" The Final Report,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May 2005

사회의 질 접근과 삶의 질 접근의 주요 차이는 이론적 토대의 깊이를 들 수 있다. 삶의 질 접근은 측정치로서 지표개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론적 토대가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반면 사회의 질 접근은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지표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론적 기반에 충실하고자 한다.

또한 삶의 질 접근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개인들에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사회의 질 접근은 ‘변화하는 조건’ 하에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접근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의 질 접근은 이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잠재력과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적 관계 맺기가 가능할 수 있게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곧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본다(이재열, 2009; Noll, 2000; Walker, 2009). 따라서 사회의 질 접근은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과 참여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비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게 된다. 반면에 삶의 질 접근은 전체적으로 가치 판단을 무시하며 중립적이고자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관점 다 지표를 이용하는 시도를 통해 분석적 모니터링으로 정책에 개입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질 접근은 네 가지 구성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삶의 질 접근은 삶 자체를 구성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사회의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는 수많은 지표들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지표항목들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삶의 질 접근은 방법론적으로 경험적 작업을 통한 접근 방식이다. 사회의 질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기존

의 삶의 체험에 근거하여 끊임없는 지표의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은 삶이 갖는 다양성과 총체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의 질은 삶의 질에 비해 사회 이론에 근거하여 개념적 시도를 추구한다. 사회의 기본 요건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표의 중요성을 이론적 구성에서 제시할 수 있다.

사회의 질의 지표체계의 4가지 영역과 하위영역, 지표항목들을 살펴보면 사회의 질이 삶의 질과 사실상 중복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사회의 질에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5>는 도시와 관련된 정책 어젠다를 간략히 비교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 정책 연구는 삶의 질과 경쟁력 연구의 준거틀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의 틀에서 사회의 질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은 있다.

<표 1-5> 정책 어젠다 연구 비교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경쟁력(competitiveness)
등장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고안 • 유럽통합과정에서 사회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도시위기 이후 • 인간 삶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기업경쟁력연구에서 시작 • 세계화 과정에서 도시 경쟁
접근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지표의 결합을 중요시 •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인식 • 과정과 구조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개발에 초점, 이론적 토대 결여 •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 •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단위 설정의 다양성 • 경쟁력을 경제 성장과 관련된 성과와 잠재력 강조
지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의 모든 관심영역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개인적이고 주관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지표 중심 • 도시지표, 거버넌스 지표로 확장

3. 사회의 질 어젠다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회적 해체와 갈등이 우려되는 서울에게 있어서, 사회경제 위기 후의 새로운 도시전략으로 사회의 질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

하다.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경쟁력’, ‘삶의 질’의 전략을 넘어 사회의 통합성과 발전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통합전략의 근거가 될 것이다.

도시경쟁력이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인 의제는 도시의 방향성에 주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접근이 가지는 지향성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도시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에 관련된 이슈는 기업처럼 의도된 조직이 보여주는 성과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국가나 도시사회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때로는 간과하는 위험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대한 어젠다는 사회를 보는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개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특성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이분화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삶의 질에 대한 지향은 개개인의 주관적 목표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의 사실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지니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특성을 개개인의 주관성에 회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는 단일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설정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구조로서 파악한다. 전체성으로서 사회는 개개인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한다.

사회적 질 접근은 개인과 사회가 맺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의 전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경제 측면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양적 접근이 제시된다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삶의 질이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목표를 지향한다면, 사회의 질은 사회의 성숙성에서 사회의 발전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도시사회의 질은 특정한 공간적 단위인 지역에서 인구집중으로 초래된 도시화된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질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정책의제는 도시화된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생태학적 환경의 트레이드업 및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적 균형에서 사회의 발전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적 측면과 예방적 치료의 정책적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와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이상과 가치를 간과하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질 접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사회의 질적인 성숙의 한 차원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삶과 가치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방식이다.

사회적 질 어젠다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경쟁력 어젠다가 제시하는 주요 사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의 발전 가치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개개인의 삶과 사회의 전체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사회의 발전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제2장 사회의 질 연구 흐름과 동향

제1절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의 성과

제2절 아시아 비교 연구의 특성

제3절 한국 사회의 접근의 특성

제 2 장

사회의 질 연구 흐름과 동향

제1절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의 성과

1.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 흐름⁴⁾

1) 배경

‘사회의 질’에 관한 아이디어는 1990년대 중반 유럽의 학자들이 개발하였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제와 사회발전의 균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 연합은 1990년대 실업률 증가와 사회 지출의 감소로 인한 갈등에 대해 주시하여 왔다.

사회의 질 연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이하 EFSQ)는 1997년 6월 네덜란드의 의장국 임기동안에 설립되었다. 이 네트워크 연구조직은 첫 번째 결과물로서 ‘The Social Quality of Europe’을 발행하였다. 1997년 6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유럽의 사회적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

4)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http://www.socialquality.org/> 참조. 유럽과 아시아의 성과와 연구의 흐름은 EFSQ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msterdam, 1997.6.10). 이 선언의 의도는 서유럽의 사회의 질 접근의 독특한 특성을 정책입안자와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과정과 그것과 관련된 특정 경제적 진로에 대한 강조는 포괄적 접근을 격하시키고 유럽연합 존속의 타당성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토대를 둔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해 유럽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해체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평등과 결속을 이루고자 하였다. 유럽전역의 만 명 이상의 사회과학자들이 이 선언을 지지하였고, 동시에 EFSQ는 유럽연합에서 사회의 질을 연구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첫 번째 연구의 장(1996-2000)

EFSQ는 우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질의 네 가지 환경적 구성요소를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

- 사회 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섭
- 사회적 역능화

유럽전역의 대학들은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와 고령화, 고용, 공공보건, 도시발전 등의 정책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사회의 질 이론을 정책영역에 적용시킨 결과를 알리기 위해 EFSQ는 런던 Kingston University와 Berghahn Publishers in Oxford의 협력으로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해 좀 더 포괄적인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3) 두 번째 연구의 장 (2001-2005)

(1) 고용정책과 사회적 포섭

2001~2005년 동안은 사회의 질 이론의 새로운 설계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정책영역들에 대한 사회의 질 접근 분석을 장려하고, 앞의 논의에서 제시된 사회의 질의 4가지 영역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⁵⁾.

또한 EFSQ는 2001년 유럽위원회의 고용정책에 새로운 사회의 질 이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유럽의 9개 대학에 위임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유럽의 고용 정책에의 ‘적응성(adaptability-pillar)’에 관한 것이다. 유럽의 노동 시장에 ‘적응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며, 특히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의 긴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 포섭이라는 영역에 기초한다.

(2) 사회의 질 지표 개발

사회적 질 지표 개발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영역별 주요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EFSQ는 DG Research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후원을 받아 the European Thematic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NIQ)를 통합하였다. 14개 국가의 대학연구소(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Netherlands, Portugal,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그리고 두개의 국제 NGO(the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ICSW), the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EAPN))의 공동연구로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EU의 모든 회원국 시민들의 사회의 질에 관한 전체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 조직은 네 가지 영역의 사회의 질 지표를 정교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작업을 해왔다. 주요 작업은 유럽 정책을 위한 중요개념으로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사회의 질 개념의 이론적 개발, 그리고

5)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2001 참고

이에 따른 14개 국가의 서베이들을 포함하고 있다.⁶⁾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14개 국가 보고서들은 사회의 질 지표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4) 세 번째 연구의 장 (2006년 이후)

(1) 아시아 대학들의 협력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새로운 전략으로서 아시아와의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EFSQ는 도쿄의 치바 대학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의 대학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에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에 관한 첫 번째 아시아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콘퍼런스의 목적은 아시아와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개념을 개발하는 도구로 사회의 질의 개념적 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7년 3월에 타이베이(Taipei)에서 국립 타이완 대학, 치바대학, EFSQ에 의해 준비된 두 번째 아시아 콘퍼런스와 2008년 10월에 난징대학 주최로 세 번째 아시아 콘퍼런스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2)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이론의 진화

14개 유럽국가의 사회의 질 지표 적용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 이론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⁷⁾.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사회 과학에서 잃어버린 주제인 ‘사회성’이 논의되었으며, 이것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섭, 사회적 역능화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이론적 정교화가 부족한 ‘삶의 질 접근’과의 비교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주제는 두 번째 아시아 콘퍼런스에서도 다루어졌다. EFSQ와 아

6)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2005

7) 그 결과는 2009년 출판예정임(working title: ‘Sustainable Welfare Societies and overall Sustainability’).

시아 대학의 협력은 정치·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시아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 두 관점 다 사실은 통합적이어서 세계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과 도시에 있어 사회의 질의 명확한 특성을 결정짓기 위해, 주체적이고 규범적이며 인식 가능한 사회의 질 이론에 대한 더 나은 탐구의 시작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3) 경험적 도전으로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역할

사회의 질 연구의 또 다른 시도로써 네덜란드 헤이그(Hague)의 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 도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이론적이고 방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도시발전은 도시생활의 물질적 관점과 비물질적 관점 사이의 관계들의 상호적인 결과로서 매우 포괄적 주제이다. 이는 주거, 고용, 교육체계, 보건과 사회복지, 안전체계, 문화적 행위, 스포츠 등 욕구로 불리는 모든 것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 위치의 결합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와 같이 도시환경에서 시민 역할의 현대적 관점이 요구된다.

사회의 질의 4가지 영역과 관련지표 적용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헤이그 시 근교에 위치한 Leiden 대학과 헤이그시 당국과 다양한 공적/사적 조직체들의 공동협력이 이루어졌다. EFSQ 역시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된 전략과 결과는 유럽과 아시아 수준의 핵심사례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본다. 관련된 중심이슈는 다음과 같다.

- 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
- 공공의 개혁 전략
- 시민 참여의 새로운 양식

또한 ‘도시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의 주제로 가장 전략적 초점이 된다.

사회 질의 관점은 이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사회성을 전제로 다양한 수준의 사회에 접근한다. 초국가적 유럽사회에서 국가사회, 지역사회 등 사회 단위의 네 가지 축으로 그 사회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게 한다.

2. 유럽의 사회 질 연구 성과

2001년 10월 EFSQ는 14개 국가의 대학교 연구소와 두개의 국제 NGO로 구성된 the European Thematic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NIQ)를 조직하였다. 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은 사회 질을 유럽 정책을 위한 중요개념으로 보며, 이것의 네 가지 영역의 이론적 탐구와 개념의 이론적 발전, 사회 질적 관점에서 현재 제시된 트렌드에 따른 14개 국가의 서베이를 포함하고 있다⁸⁾.

Bristol University의 Dave Gordon 교수(2009)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사회 질을 측정하는 연구는 실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ENIQ 프로젝트의 이번 결과는 나름 훌륭하게 진보하였고, 사회 질 조사를 위한 경험적 틀이 현재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 보고서들의 각 영역과 하위영역별 지표들은 사회 질 지표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한다(Suzanne Hacking(UK) 외, 2005)⁹⁾.

이러한 유럽에의 적용 결과, 지표들은 사회적 행위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사회 질 접근은 다른 접근과 비교하여 지표들의 이론적 기반

8) 참고자료 :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2005

9) 14개 국가보고서들의 주요결과는 부록에서 살펴볼 것임.

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회의 질 접근은 경제로부터 ‘사회’를 분리하고, 더 정확하게는 경제가 ‘사회적’의 하나의 이면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문화나 사법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설명하려는 취약성을 차단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섭, 사회적 역능화 개념은 각각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질 이론은 이러한 4가지 영역의 고유한 친화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적용으로 인해, 다른 정책 영역 사이의 특성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가령,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고용정책 사이의 관계는 어떤 매개체 없이 적절하게 분석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의 질과 4가지 영역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지식은 매개체(intermediary)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론적 기초가 되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의 질의 4가지 영역의 특성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이러한 지표를 적용하여 국제 간 비교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질 지표의 데이터 유효성 평가로 인해 각각의 국가보고서에서 EU 국가들의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수반된 국가 사이에서 공평과 결속의 강조에서 본래 갖추어진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보고서들의 결과는 EU와 미국과 아시아 국가의 발전적 접근의 특성 비교에 대한 미래 연구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제2절 아시아 비교 연구의 특성¹⁰⁾

1. 등장배경

사회의 질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나 유럽중심적인 시각에서 개발된 이론과 지표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시아의 경우 유럽과는 역사의 배경, 경제적 발전 등의 사회적 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각각의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의 질의 동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교연구는 가장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지금까지 유럽적 맥락으로 개념적이고도 이론적인 사회의 질의 기본틀을 설립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동안의 많은 흥미로운 토론들은 이론적인 개념들을 경험적인 지표와 변수로 조작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에 사회의 질 개념과 지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아시아 사회는 현대화가 시작된 후 유럽과는 아주 다른 발전의 길을 보여줬다. Marx와 Weber의 예언을 배반하면서 아시아 국가는 경제발전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성공 모델이 되어왔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최근까지 개발도상국가의 모델이 되어 왔다. 중국은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러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많은 불균형과 모순을 가진 지역이다. 사회는 매우 빨리, 그리고 매우 현대적이 되어가고 있으나, 전통과 현대성이 동시에 공존하며 때때로 갈등과 모순을 생산하고 있다. 오늘날 형식적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그것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 면에서 매우 무서지기 쉽다. 가령 중국에서 보여지듯이 빠른 성장은 거대한 불평등을 수반해 왔다. 이렇듯 아시아는 사회의 질 연구를 위한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다.

10)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http://www.socialquality.org/> 참조

2. 아시아 연구 현황

1) Asian Steering Committee on Social Quality 설립

2007년 아시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Asian Steering Committee on Social Quality가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사회의 질을 연구하는 아시아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의 더 나은 사회의 질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 연구기구는 4가지 전략적 계획들을 세웠다. 첫 번째 사회의 질 지표 개발에 관한 아시아 연구 집단의 시작, 두 번째 고령화와 사회의 질에 관한 아시아 연구 집단의 준비, 세 번째 중국의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틀로서 사회의 질적 접근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하는 대학소속의 중국인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모임, 네 번째 기존의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를 벗어난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로의 발전에 대한 장려이다.

2) 아시아와의 협력

사회의 질 연구와 관련하여 유럽의 EFSQ와 아시아 사회의 질 네트워크(Aisan Social Quality Network : www.asqn.net)는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 대만, 중국 등에서 3차례에 걸친 국제 학술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9년 들어서는 3월에 서울대에 이어, 12월에 태국에서 또 한번의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EFSQ와 일본 치바대학(the Research Centre on Public Affairs for Sustainable Welfare Society, Chiba University)의 주최 하에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콘퍼런스는 최초의 아시아 대학 그룹들과의 협력의 결과였다. 이 모임에서 정치학자, 사회학자, 사회정책연구자, 철학자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상대적 연구를 위한 관점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편집자를 통해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가 'International Journal on Social Quality'로 바뀌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타이페이(Taipei)에서 EFSQ와 치바 대학의 협력을 받아 국립 타이완 대학(the Social Policy Research Center, National Taiwan University) 주최로 제2회 아시아 사회의 질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콘퍼런스 주제는 '유럽의 전통적 복지국가적 접근과 비교하여 아시아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의 개념 탐구'로, 이전의 콘퍼런스의 핵심 주제를 유지하였다.

제3회 아시아 콘퍼런스는 2008년 10월 난징대학의 사회정책연구소와 EFSQ와의 공동협력 하에 개최되었다. 이 콘퍼런스는 '아시아와 유럽의 사회의 질: 사회적 응집과 사회적 역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과 사회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의 질의 국가별 비교 검토, 그리고 사회의 구축과정과 역동적 시민사회의 장려, NGO와 사회적 역능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9년 3월 서울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국제워크숍은 아시아 사회에서의 사회의 질 조사 설문지 개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전개된 장이었다. 워크숍의 주제는 "아시아 사회에서의 사회의 질 조사 설문지(SQSQ)의 개발"로, 서베이 질문지 설계와 아시아 사회의 질 지표의 수집, 아시아에서의 사회의 질과 관련 있는 이전 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7년에 경제 외환위기 후 10년에 관하여 국가 대표조사를 수행하였고, 타이완의 경우에도 2008년에 조사를 수행하여 이 두 자료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논의되었다.

3. 아시아 비교연구의 특성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의 질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질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 정책 영

역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논의는 최근 유럽사회에서 사회적 질 접근에 관한 논의만큼이나 많이 거론돼온 이슈이다. 아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 민주 정책의 결과물들을 비교할 수 있는지,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이해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전통적 복지 접근은 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비교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국가 또는 그 사회의 비교를 위해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글로벌화 과정의 결과로서 최근의 아시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개최된 아시아 콘퍼런스의 목적은 고전유럽복지국가 접근과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접근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아시아의 상황에서 사회의 질 지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14개의 유럽국가에 적용한 예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고령화, 고용, 도시발전, 교육체계 등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논점은 시민의 위치로부터 보는 매우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사회의 질 이론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2-1>은 사회의 질 연구의 영역과 흐름을 보여준다. 이론적 연구, 방법론적 연구, 정책영역에서의 연구, 경험적 적용 등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사회의 질이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되며, 동시에 각 영역에서 개별적인 주제와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다.

〈표 2-1〉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의 연구 진행과 성과

이론적 연구 (a)	방법적 연구 (b)	정책영역에의 적용 (c)	과학적 장에서의 a+b+c 의 적용
<p>First book (1997. 6)</p> <p>사회의 질의 이론화 작업(첫번째 단계) +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의 탐구(1999-2001)</p> <p>↓</p> <p>Second book (2001. 1)</p> <p>↓</p> <p>사회의 질의 이론화 작업(두번째 단계) + 지표 정교화 작업 + 글로벌 수준에서의 적용(2002-2008)</p> <p>↙ ↘</p> <p>Third book (2009. 1)</p> <p>↓</p> <p>글로벌 수준에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인 개발 작업</p> <p>↙ ↘</p> <p>Fourth Book (NGO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일반적 개관) (2010)</p>	<p>Network Indicators Social Quality(ENIQ)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사회적 응집성 지표 -사회적 포섭 지표 -사회적 역능화 지표 (2001-2005)</p> <p>↙ ↘</p> <p>아시아 국가의 사회의 질 지표 탐구 + 유럽에서의 사회의 질 지표 적용의 첫 번째 결과물 분석 (2006-2009)</p> <p>↙ ↘</p> <p>ENIQ의 후임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지표, 프로필과 기준의 준비 작업 (2009)</p>	<p>사회의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1997)</p> <p>↓</p> <p>고령화, 고용, 공공보건, 도시 발전에 관한 정책 탐구 (1997-2000)</p> <p>↓</p> <p>정책연구: 도시개발, 공공보건, 고용관계의 유연성, 고령화 (2000-2007)</p> <p>↓</p> <p>헤이그시의 '도시공간'의 발전 탐구(2005-2009)</p> <p>↙ ↘</p> <p>지역도시 발전의 후원: Laak Noord (2006-2010)</p> <p>↓</p> <p>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도시발전에 관한 담론과 정책 분석 (2007-2010)</p>	<p>유럽의 사회적 모델에 관한 담론 분석 (2006-2009)</p> <p>↓</p> <p>헤이그시의 현대도시연구센터의 개발(2006-2007)</p> <p>↓</p> <p>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분석(경제적, 정치 생태학적)(2007-2009)</p> <p>↓</p> <p>인간성 보장과 사회의 질 준비연구 (2007-2009)</p> <p>↓</p> <p>이주와 시민의식 준비연구(2007-2009)</p> <p>↓</p> <p>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준비연구(2007-2009)</p>
<p>'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로의 발전</p>			
<p>사회의 질에 관한 아시아 재단과 아시아 사무소 개발</p>			
<p>EFSQ를 위한 제도적 맥락 찾기</p>			

출처: Dr Laurent van der Maesen, Prof. Dr Alan Walker & Drs Margo Keizer, EFSQ, 2005

제3절 한국 사회의 접근의 특성

아시아에서의 사회의 질에 관한 연구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의 질 연구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40년 동안 중요한 논점에 대해 수행해 온 연간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에 관한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사회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워크숍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아시아의 연구동향은 아시아 사회에 사회의 질 지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참여국들은 각각의 자원을 동원하여 조사를 수행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다시 재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의 질 지표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의 질 조사를 위한 아시아만의 설문지 개발과 각 아시아 국가의 사회의 질 지표 데이터 수집 및 적용 가능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해 나가고 있다.

1. 한국 사회의 질 평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와 이재열을 중심으로 2007년에 경제의 위기 +10년에 관하여 국가 대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재열의 연구는 한국 사회를 사회의 질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평가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는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영역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환경과 상황에 적용한 새로운 지표항목을 추출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방법

- 표본수 : 1,000명

- 표집방법 : 2007년 조사시점 현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표집대상지역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추출
- 설문조사방법 : 개별방문면접조사
- 조사항목: 사회경제적 안전성, 응집성, 포용성, 역능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함.

〈표 2-2〉 이재열(2007)의 사회의 질 지표항목

구분	지표 항목
사회 경제적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안정성 - 탈물질주의 의식 정도, 생활여건 전반의 변화, 의료인력 현황/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연도별 사회복지재정규모,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 위험에 대한 인식 - 불안 요인, 비정규직의 유형별 고용동향/도시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 연도별 황사발생현황, 정보화의 이면, 형법범 및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 국가 간 산업재해 비교/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 복지에 대한 욕구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노후준비방법,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인식
응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 기관/단체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지수(CPI)의 변화/국제비교, 일반인에 대한 신뢰, 연구주의, 단체활동 참여 • 이념갈등과 통일문제 - 남북교류 추이, 북한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별 북한의 인식, 통일 이유, 통일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의사, 대외선호도 • 가족결속력 - 결혼규범의 악화, 이혼에 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부모생존여부 및 동거여부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경험한 일, 외환위기 직후와 현재상황 비교(자산변화 집단 간 비교), 소득과 소비-외환위기 이후 경험(자산감소, 소득감소, 실업, 가족해체, 부도, 건강악화, 우울 등), 가계부채 및 재테크, 계층별 집단별 부채비교(부채여부, 부채원인), 계층별 집단별 재테크 방법 • 대외개방성 - 출입자 수/체류외국인 수/국제무역 및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이민규제에 대한 태도, 국제결혼 추이/결혼 이민자에 대한 태도/결혼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역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의식 - 계층의식 및 외환위기 전후 지위변화, 집단별 주관적 계층의식, 외환위기 직전/직후/현재 지위변화와 중산층 정체감의 변화, 계층별 외환위기 전후와 현재의 지위비교,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추이 • 직업만족도 - 임금/소득만족도, 외환위기 전후로 취업안정성/일의 내용 만족도/일자리 내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일자리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월 근로시간의 변화 • 민주주의 - 민주주의 평가, 각 기관 집행의 공정성 인식, 사회관계의 민주화, 연령별 선거제도 공정성 인식,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 무력감과 좌절 정도 - 자살자 수/자살충동여부 및 이유, 고충민원 접수, 노동조합조직률과 노조 수/노조조직률의 국제비교

영역별 조사결과를 통해 이재열은 한국 사회의 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사회경제적 안전

- 높아진 불안감 : 현실적이고 경제중심적으로 변화
- 위협의 변화 :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위협에서 향후 다가올 위협은 신종재난일 것으로 예상
-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에 대한 강한 욕구와 달리 부족한 현실

○사회적 응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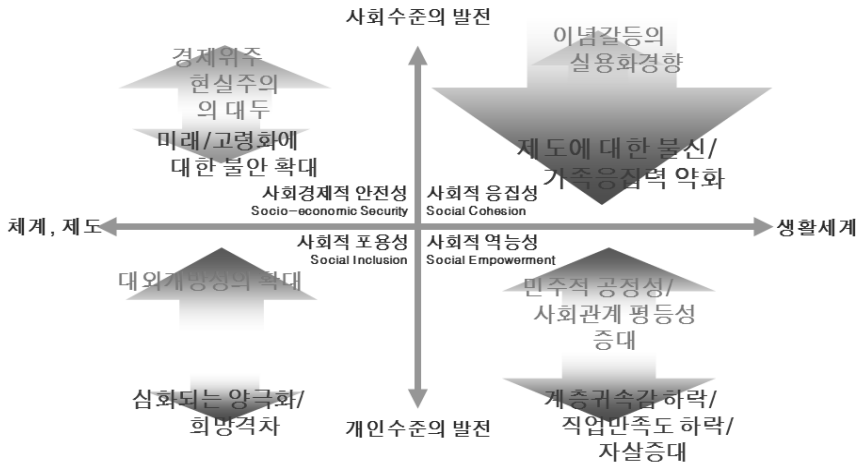
- 한국사회의 조직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의 증대
- 풍부한 관계자본(인맥/연고), 취약한 도덕적 자원으로로서의 사회자본
- 대북한 태도와 통일관, 대외관에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현실적이 되어감.
- 가족응집성의 약화 경향

○사회적 포용성

- 심화되는 양극화 : 그 시발점으로서의 외환위기 경험
- 급격히 향상된 대외적 개방성: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

○사회적 역능성

- 주관적 계층의식의 하락
- 직업만족도의 전반적인 하락 (1996년 대비)
-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림 2-1) 한국 사회의 질 평가(이재열, 2007)

2. 한국 사회의 질 비교연구

이재열의 연구가 한국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장덕진의 2009년 연구는 33개 국가들의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국제적 위치에서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또한 33개 사회의 질적 데이터 비교를 통해 맵핑(Mapping) 작업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World Values Survey, World Bank, UNDP,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Democracy Cross-national Data by Pippa Norris와 같은 기존 지표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사회적 질 95개의 지표를 위해 기존의 자료로부터 25개 변수를 추출하였으나, 케이스, 특히 ASQN (Asian Social Quality Network)의 회원국들이 제외되는 걸 피하기 위해 10개의 변수만 사용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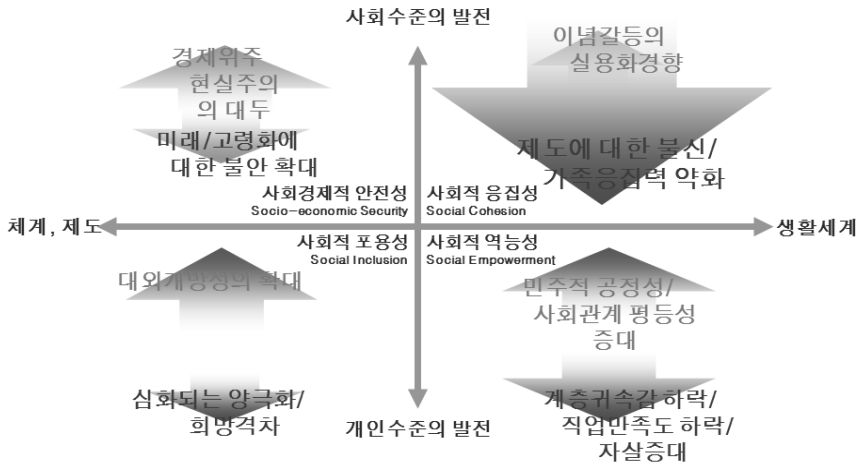
〈표 2-3〉 분석에 사용된 변수 (장덕진, 2009)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1. <u>Satisfaction with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u> (WVS) 2.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UNDP 2004) 3. CO ₂ emission per capita (World Bank 2003) 4. # of doctors per 100,000 people (Norris 1993) 5. <u>Worker's Right</u> (CIRI 2007) 6. Gross enrollment rate for 1-2-3 schools 2003 (UNDP 2004)	1. <u>General trust</u> (WVS) 2. Institutional Confidence Scale (WVS 2000) 3. <u>Overall importance of family, friends, leisure & politics</u> (mean from WVS) 4. Total # of voluntary organizations membership (WVS 2000) 5. Social tolerance scale (WVS 2000) 6. Overall tolerance (mean from WVS) 7. Government responsibility scale (WVS) 8. <u>National pride</u> (WVS)
사회적 포섭	사회적 역능화
1. Voter turnout during 1990s (IDEA) 2. <u>Women's economic rights</u> (CIRI 2007) 3. Gender empowerment measure 2005 (UNDP 2007) 4. Public health expenditure 2001 (UNDP 2004)	1. Adult literacy rate (15+) 2004 (UNDP 2007) 2. <u>Press freedom 2005</u> (Reporters without borders) 3. Internet users per 1,000 2005(World Bank 2008) 4. <u>Union density 1995</u> (ILO) 5. <u>Political rights 2007</u> (Freedom House 2008) 6. Public social expenditure % of GDP 1998 (OECD) 7. <u>Polity democracy 2000</u> (Norris)

주: _군집화를 위해 사용된 10가지 변수

사회의 질 변수의 집락분석은 사회의 질적 관점에서 사회의 안정된 그룹핑을 보여준다. 이 그룹들은 크게 미국,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사회주의 국가, 아시아/라틴 아메리카/지중해 유형 등으로 분류된다.

표준화된 사회의 질 변수의 가치를 점수화하고 총계를 내는 것으로 각각의 사회를 평가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의 질은 스칸디나비아 사회가 가장 높은 반면, 아프리카 사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의 환경적 요소에서 사회의 질이 높게 나왔다고 필연적으로 다른 요소에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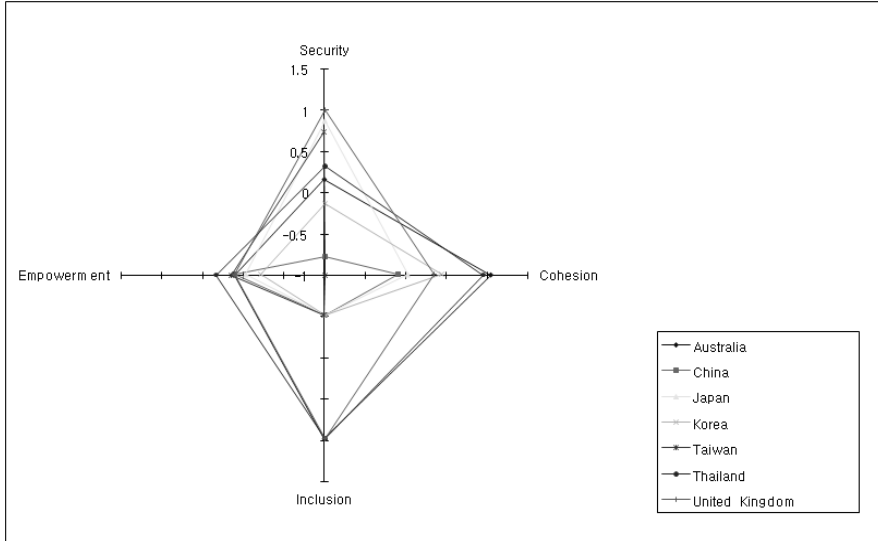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 사회의 질 평가(이재열, 2007)

2. 한국 사회의 질 비교연구

이재열의 연구가 한국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장덕진의 2009년 연구는 33개 국가들의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국제적 위치에서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또한 33개 사회의 질적 데이터 비교를 통해 맵핑(Mapping) 작업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World Values Survey, World Bank, UNDP,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Democracy Cross-national Data by Pippa Norris와 같은 기존 지표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사회의 질 95개의 지표를 위해 기존의 자료로부터 25개 변수를 추출하였으나, 케이스, 특히 ASQN (Asian Social Quality Network)의 회원국들이 제외되는 걸 피하기 위해 10개의 변수만 사용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그림 2-3〉 ASQN (Asian Social Quality Network) 내의 비교(장덕진, 2009)

장덕진의 연구는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지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질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지표만으로도 사회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표들은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표들 간에는 서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대표지표만으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각 부분이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관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과 발전

제1절 국가 및 도시의 지표 사례 검토

제2절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

제3절 서울의 사회의 질 지표 설정

제 3 장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과 발전

제1절 국가 및 도시의 지표 사례 검토

1. 지표 접근방식의 변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연구는 국가 또는 사회의 수준에 관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그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내적 평가, 지역 간 비교, 더 나아가 국제 간의 수준 비교 등을 하게 했다. 이러한 비교 및 평가는 어느 기준으로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가, 더 나아가 무엇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국가 및 도시 사회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재열, 2009; 박경숙, 2009).

사회 발전에 대한 초기 지표들은 경제적 발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가 대다수였다. 초기의 사회지표는 단순히 경제수준 지표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생활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1934년에 등장한 국민총생산(GDP) 개념은 사회경제적 비전의 지표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국가 및 도시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분배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기존의 지표들이 경제성장 등의 양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지속가능성장,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단순 경제성장만으로는 곤란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 삶의 질 관점에 대한 연구는 국가 및 도시의 평가 기준을 단순한 양적 측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지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교한 이론적 토대가 없어, 삶의 질에 대한 종합지수를 산출하려는 노력은 민간 및 연구소 차원에서는 시도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의 수행은 미미한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 홍콩의 지수 등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단위에서는 종합지수가 아닌 각국의 사회지표 형태로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사회발전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의 범위나 내용이 많이 확장되어,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와 항목이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적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여가, 사회활동, 문화생활과 같이 더 넓어진 삶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풍요로움으로 내용이 발전하는 방향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박경숙, 2009).

현재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 연구기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표들은 인구, 가족, 소득, 자산, 경제, 교육 등 삶의 기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도를 측정해서 해당사회의 발전정도나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경제중심적 성장논리를 넘어서 종합적 사회발전의 개념과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 중이며, 한국의 중앙정부 역시 심혈을 기울여,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지표체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지표 사례 검토

사회의 질 지표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국가 및 도시 사회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력이나 삶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제기구와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다. 외국과 국내에서 시도된 지수화 사례들을 이용해 국가 및 도시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삶의 질 관련 지표 사례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ex)

이 지표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서베이 결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지표들도 보태서 산출하고 있다.

— 지표구성

-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 가족: 1000명당 이혼율
- 공동체: 교회 혹은 노조 조직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이항척도
- 물질적 풍요: 1인당 GDP
- 정치적 안정: 정치적 안정성 및 안정성 척도
- 기후 및 지리: 위도
- 직업안정성: 실업률
- 정치적 자유: 정치적 시민적 자유 지표
- 양성평등: 남녀 소득 비율

○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이 지수는 UNDP가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평균수명, 1인당 국민 소득,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다. 또한 이 지수는 사회·경

제 발전의 척도이자 삶의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표구성

- 평균수명
- 교육수준: 문자해독률, 취학률
- 생활수준: 1인당 실질 GDP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의 주요 국가별 삶의 질 지수(2006)

삶의 질을 나타내는 풍요로움에 대해 6개 지표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별 순위를 선정하였다(건강, 환경, 노동, 교육, 문명, 거시경제). 이 지수는 World Bank와 OECD의 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 지표로서 국가 간 지표별 비교에 적합하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생산성본부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분야에 비해 건강과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지표 영역

- 건강, 환경, 노동, 교육, 문명, 거시경제

〈표 3-1〉 우리나라의 풍요로움 지표별 점수와 순위

지표	건강	환경	노동	교육	문명	거시경제
점수(순위)	41.93(25)	56.81(8)	50.27(18)	42.81(23)	46.71(21)	53.12(9)
평균점수	50.0	50.02	50.0	50.0	50.0	50.0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2006), 풍요로움의 국제비교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이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홍콩 Chinese University의 사회과학 교수진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등 3개 영역의 21개 지

표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표 3-2〉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영역 및 지표 구성

영역	지표
사회문화	출산율, 기대수명,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비율, 신고 가능한 전염병 신고율, 스트레스 지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언론비판 지수, 정부수행지수, 전체 범죄율
경제	주택구매비율, 전세지수, 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의 연령별 참여 비율
환경	대기지수, 수질지수, 소음지수, 재활용품

자료: 최성욱(통계청), 2009

○ 잭슨빌(Jacksonville)의 삶의 질 지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카운티에서는 1985년 이후 매년 삶의 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과 이해집단의 참여 아래 비영리적 시민단체인 「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Inc. (JCCI)」가 「잭슨빌 상공회의소 (Jacksonville Chamber of Commerce)」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 지표를 개발했다. 1985년 9개 영역을 대상으로 총 72개의 지표가 마련되었으며, 이렇게 마련된 지표들은 매년 발간 되는 보고서를 통해 잭슨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표 3-3〉 잭슨빌의 삶의 질 지표구성

영역	지 표
교육	• 공공 고등학교 졸업율, 공공학교 내 중간 성적 점수의 평균, 학생 1인당 공공학교 교육 지출비, 공공학교 교사의 평균 월급,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공공학교 교사의 비율, 인종차별이 없는 공공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 박사 등 최종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 학사(College 포함) 등의 학위의 수여 수, 대학(College 포함)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및 비정규 과정의 참여 학생 수
경제	• 순 작업증가, 전체 비고용인구와 흑인 비고용인구의 차이, 1인당 효과적 구매소득(Effective Buying Income), 1인당 소매판매, 세금 적용 가능한 총 부동산의 가치, 연간 주택건축허가 건수, 1세대 단독주택의 비용 대비 중간 가족 소득, 무료 또는 감액 중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학생의 비율, 숙박세수에 의해 추정되는 관광소득, 매년 12월 가정용 전력 1,000Kwh의 비용
공공안전	• 야간 동네독보가 안전하다고 하는 응답자율(전화여론조사), 100,000명당 범죄자 수, 연내 범죄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응답자율(전화여론조사), 구조요청 평균 대응 시간, 화재신고 평균 대응 시간, 일급 경찰 요청에 대한 평균 대응 시간, 100,000명당 사고 또는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율, 1,000명당 자동차 사고 수
천연자원	• 대기질 지수가 양호한 날의 수, 연간 St.Johns강과 그 지류의 산소의 비분해를 위한 수질기준 부합 빈도율, 시장국에 의해 측정된 플로리다 수반 우물의 물놀이, 가구계정당 식수의 평균 소비량, 새 정화조 허가 발급 수, 표지판 허가 발급 수, 시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된 1인당 고형 폐기물의 톤량
건강	• 출생아 1,000명당 유아 사망자 수, 100,000명당 연령 부합 사망자 수, 100,000명당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 수, 100,000명당 폐암관련 사망자 수, 1인당 판매된 담배갑 수, 100,000명당 새로 진단된 AIDS 환자 수, 미성년자에 의한 주류 소비, 건강과 의료체계가 양호 내지 우수하다고 한 응답자율(전화조사), 의료보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율(전화조사)
사회환경	• 인종차별이 한 지역문제라고 한 응답자율(전화조사), 출생아 1,000명당 화학물질에 노출된 태아 수, 18세 이하 어린이 1,000명당 학대 및 방임의 확인된 보고, 1,000건 출산당 18세 이하 여성에 의한 출산 수, Jacksonville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에 접수된 고용차별 건수, 지난 1년간 공동체 봉사시간이 있다고 한 응답자율(전화조사)
정부정책	• 지역 지도력이 양호 또는 우수하다고 한 응답자율(전화조사), 선거에 등록된 18세 이상 인구 비율, 일반투표에 참여한 등록된 투표자 비율, 선출직 관리의 유색인종 비율, 여성 비율, 두 명의 현시원의 이름을 아는 응답자의 비율(전화조사), 지역정부 뉴스를 자주 접한다고 한 응답자 비율(전화조사), 지역공공서비스가 자주 효과적으로 제공된다고 한 응답자 비율(전화조사)
문화 및 레크레이션	• 예술인구 1인당 시의 재정 지원, 1인당 공원과 여가를 위해 지출되는 시의 비용, 1,000명당 공공공원 면적, 1인당 공공도서관 비치물 수, 1인당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수, 주요 시 시설의 예약 건 및 날 수, 1,000명당 심포니 관람 수, 1,000명당 동물원 관람 수
기동성	• 출근시간이 25분 또는 그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전화조사), 잭슨빌 국제공항을 출입하는 상업기의 총 대수, 잭슨빌 국제공항을 경유점으로 직접 운항되는 도착지 수, 1,000명 당 잭슨빌 교통국 버스의 주간 승차자 수, 피크타임 시 30분 이내와 평상시 60분 이내 배차간격 비율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JCCI, 1998에서 도표화

○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8)

이 지표는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영역

을 선정하고 측정하여 개발하였다. 삶의 질을 크게 10대 영역에 걸쳐 측정하고 있으며,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지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이 지표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5개 영역(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의 3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8개 분야의 21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영역별 설문 문항과 함께 주관적인 건강평가,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 주관적인 행복감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삶의 질 평가 지표사례

그동안 국내에서도 도시를 평가하는 연구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 및 비교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사례들을 분석해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단순히 일괄된 항목이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적 환경을 반영한 지표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4〉 삶의 질 평가 연구 지표사례

연구	구분	평가항목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분석 (김진욱, 2000)	인구 및 보건	60세 이상 인구비율, 의사 1인당 인구
	문화	1인당 도서관 장서수, 전화보급률, 승용차 보유비율, 전력소비
	환경	공원비율, 주택당 인원수
	교육 및 도시안전	초등학생 백명당 교원수, 범죄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서울시 삶의 질 평가 (김효화, 2005)	경제지표	인구만명당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지방세 징수 현황, 인구백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교육환경지표	1학급당 학생수(초등, 중등), 1교원당 학생수(초등, 중등)
	보건안전지표	인구만명당 의사수, 구별 병원수, 구별 범죄발생률
	주거환경지표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생활쓰레기량, 구별 노후주택 비율
한국인의 삶의 질의 현황과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경제	1인당 소득(GNP), 경제규모, 경제활동참가율
	교육	문자해독률, 고등교육취학률, 초등학생 100명당 교원수
	보건	기대수명, 영아생존율, 65세이상 인구비율
	문화	신문구독률, TV 보급률, 전화보급률, 출판도서 보급률
전국 74개시 '삶의 질' 평가 (중앙일보, 1995.1)	건강한 생활	인구밀도, 수질오염도, 의료인수, 공원녹지비율, 약국수, 대기오염도
	안전한 생활	화재발생건수, 유해업소수,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관수, 소방장비수
	교육/복지	사설학원수, 4년제대학정원수, 학급당학생수, 복지시설수용인원, 사회 복지비, 대학진학률
	경제생활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시/군통합여부, 25평아파트 전세가격, 장바구니 물가, 취업률
	편리한 생활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자동차주행속도, 시장/백화점수, 행정서비스 수준
	문화생활	음악/연극 무대객석수, 영화관 좌석수, 전시 공간면적, 공공도서관 장서수, 서점수

2) 경쟁력 관련 지표 사례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미국의 인사 컨설팅 전문회사인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에서 시행하는 도시별 생활의 질 조사이다.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사는 정부나 주요 기업에서 직원들을 국제적 업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파견 시 그들이 그 도시에 적응하

는 데 대한 어려움과 편리함을 평가할 목적으로 도시들의 삶의 질을 실질 값으로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조사표를 기반으로 10개 분야 39개 항목별로 도시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뉴욕을 기준도시(100점)로 하여 도시별 지수를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매년 가장 살기좋은 50개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표 3-5〉 Mercer 사의 Quality-of-Living Reports의 지표

10개 주요 범주	39개 요소
정치-사회적 환경	•출입국의 용이성, 외국과의 관계, 법 집행력, 내부적 안정성, 범죄
경제적 환경	•은행 서비스, 환율규정
사회-문화적 환경	•언론 및 검열, 개인활동의 제약
의료와 건강고려	•대기오염, 해가 되는 동물 및 곤충, 병원 서비스, 의료용 물품 공급, 전염병, 식수, 쓰레기 처리, 하수
학교와 교육	•학교
공공서비스와 교통	•물 이용도, 교통 체증, 전기, 전화, 우편, 대중 교통, 항공
오락	•식당의 다양성, 극장, 연극 또는 연주, 운동, 여가 생활
소비품	•음식(과일, 채소), 음식(고기, 생선), 1일 소비재, 알코올성 음료, 자동차
주택	•주택 용품 및 기구, 유지관리 및 보수, 주택
자연환경	•기후, 자연재해 기록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제경쟁력 지수 매년 세계경쟁력 연감(WCY;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하여 세계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321개 경쟁력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 The World Value Survey

이 조사는 European Value Study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 미시건 대학의 Ronald Inelhart가 주도하였다. 사회문화, 도덕, 종교, 정치에 관한 가치조

사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의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공신력있게 인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도시 평가 지표

국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1997)가 세계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세계도시 경쟁력 평가지표는 경제수준, 경영환경, 국제화, 도시기반,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도시안전, 문화여가, 시민의식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3-6〉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도시 평가 지표

	비교변수
경제수준	GRDP, 시재정규모, 1인당 GRDP, 산업구조, 금리, 생산자물가상승률
경영환경	생산자물가지수, 시간당 물가지수, 고급인력비율, 노동생산성,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국제화	500대기업본사수, 금융기관지점수, WebSite 수, 공항이용률, 국제회의건수, 취항항공사수
도시기반	공항이용규모, 교통혼잡도, 도로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전화보급률, 인당전기사용량, 인당상수도소비량
생활환경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연평균기온, 인구밀도, SO ₂ , 주택보급률
교육	교사당 학생수, 대학생비율, 도서관당 학생수, 학생당 장서수, 취학자 비율, 학생당 교육비, 교육비 비중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지속가능한 시애틀(Sustainable Seattle)’ 지표

이 지표는 비영리 단체이자 지역 내 시민 네트워크인 「지속가능한 시애틀」이 각종 이해집단과 시민들을 참여시켜 만든 것으로, 현재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폭 넓게 인용되고 있다.

〈표 3-7〉 지속가능한 시애틀 지표 (1차)

부 문	지 표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 연어의 산란을 위한 지역하천으로의 회귀수 • 연간 좋은 대기질을 기록한 날수 • 보행자 편의 기준에 맞는 시애틀 도로의 비율
인구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킹 카운티의 총 인구수 • 킹 카운티 내에서의 1인당 소비된 물의 양 • 킹 카운티에서 1인당 발생되고 재활용된 고형폐기물의 양 • 1인당 가솔린 소비량과 차량운행 거리 • 1인당 소비된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순위 내의 고용업체에 집중된 고용의 비율 • 기본적 필요성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평균임금을 위한 노동시간 • 가난에 직면한 어린이 비율 • 중간 또는 저소득 세대주의 주택 보유가능성 • 1인당 건강 지출액
문화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체중으로 태어나는 태아의 비율 • 청소년 범죄율 • 공동체 봉사의 어떠한 형태에라도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 • 지역의 일반선거에 투표한 인구의 비율 • 성인 문맹률 •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이용률 • 예술에의 참여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ustainable Seattle(1993)에서 재구성

제2절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

1.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1) EU의 사회의 질 지표

삶의 질 접근은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측정치로서의 지표개발 중심의 접근으로, 이론적 논의들이 부족하거나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질 연구가들은 이론적 모델과 경험적 지표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사회의 질’의 연구는 정교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의 수집과 국가 비교를 통해 사회의 질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사회의 질 지표에 관한 논의로 2003년 중반 사회의 질의 네 가지 구성 영역들의 세부적 항목들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지표항목들은 대부분 유럽의 기존 지표들을 토대로 통계적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이었다. 일차적으로 설정된 지표항목들은 그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럽의 14개 국가들에 적용해 보았다.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는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과 하위의 세부항목, 그리고 그 아래 95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여 총체적인 사회의 질을 지수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지표항목¹¹⁾들은 다음과 같다.

〈표 3-8〉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Keizer et al., 2003)

구분	세부항목	지 표
재정 자원	소득 만족도	1. 가구소득에서 건강·의류·음식·주택 소비량 (중·하층 수준 가구에서)
	소득 안전성	2. 가구수준에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특정 사건들 3. EU 빈곤수준 이상으로 살도록 허용하는 수혜권을 받은 가정에 살고 있는 전체인구의 비율
주거와 환경	주거안전	4. 주택소유자 비율 5. 'hidden family' 비율(한집에 여러 가족이 사는 경우)
	주거상태	6. 가구원당 평수(1인당 거주면적) 7. 기초시설(물, 위생설비, 전력 등)이 부족한 집에 사는 인구비율
	환경조건 (사회적/자연적)	8. 거주자 만명당 범죄건수 9. 오염(물, 공기, 소음)정도가 심한 지역에 사는 비율
건강과 보건	건강준비의 안전	10. 건강보험 가입비율(의무·자발 포함) (보험체계가 포함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질적 조사 포함)
	건강서비스	11. 거주자 만명당 의사수 12. 병원까지의 평균거리(분단위) 13. 구급차의 평균대응 시간
	보건서비스	14. 유·무료에 따른 보건서비스 평균시간

11) Laurent J.G. van der Maesen and Alan C. Walker,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2005

〈표 계속〉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Keizer et al., 2003)

구분	세부항목	지 표
노동	고용안정성	15. 계약의 기간이나 조건이 바뀌기 전의 통보 기간 16. 계약종료전 통보 기간 17. 임시직 비율 18. 불법노동자 비율
	근무조건	19. 부모상, 병간호,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된 고용자 수 20. 고용인 십만명당 직장에서의 사고발생 건수 21. 정규직의 주당 근무시간(실제근무주)
교육	교육안정성	22.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의 비율 23. 국가평균임금과 같은 수업료
	교육의 질	24. 졸업장 유·무를 떠나 학교를 떠난지 1년 내에 일자리를 찾은 학생의 비율

〈표 3-9〉 사회적 응집성 지표(Berman et al., 2004)

구분	세부항목	지 표
신뢰	일반화된 신뢰	25.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범위
	특수화된 신뢰	26. 정부, 선출된 대표, 정당, 군대, 법체계, 언론, 노동조합, 경찰, 종교단체, 시민서비스, 경제적 거래에 대한 신뢰도 27. 유럽법정에 회부되는 소송 사례 수 28. 가족, 친구, 여가, 정치, 부모에 대한 존경,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규범과 가치	이타심	29. 자원봉사: 주당 시간 30. 헌혈
	관용성	31. 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32. 타인의 정체성, 신념, 행동,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
	사회계약	33. 빈곤의 원인에 대한 믿음(개인적/구조적) 34. 빈곤층의 상태 개선을 위한 추가 세금 지불의지 35. 노년층의 상태 개선을 위한 추가 세금 지불의지 36. 지역공동체 및 이웃을 위한 실제 실행의지: 쓰레기 줍기, 이웃의 노인/재난민/병자들을 위한 구매, 이웃과 공동체 사람들을 후원하는 행위, 거리나 현관 청소 등 37. 남녀 간의 가사분담: 가구수입 벌어들이기, 양육, 가사노동의 분배에 대해 남편과의 이해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38. 정치적/자원봉사/자선단체나 스포츠클럽의 회원(활동적이든 비활동적이든) 39.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 40. 친구와 동료와의 접촉 빈도
정체성	국가/유럽 정체성	41. 국가에 대한 자부심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	42. 국가의 상징과 유럽의 상징의 동일시 43.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의 감정
	대인관계의 정체성	44. 가족과 친척관계의 네트워크에 소속감

〈표 3-10〉 사회적 포섭의 지표(Walker et al., 2003)

구분	세부항목	지 표
시민권	구조적/정치적 권리	45. 시민권이 있는 거주자 비율 46. 지역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투표행사를
	사회적 권리	47.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비율 48.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비율
	시민권리	49.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 비율(무료법률구조) 50.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률
	경제적/정치적 네트워크	51. 의회, 사기업과 재단의 중역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소수인종의 비율 52. 의회, 사기업과 재단의 중역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여성 비율
노동 시장	급여고용에 대한 접근	53.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54. 비자발적 임시직 또는 일시적 고용
서비스	건강 서비스	55. 공공의료서비스 자격이 있는 비율과 이용자 비율
	주거	56. 노숙자 비율 57. 사회주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평균
	교육	58. 학교참여율과 고등교육 참여율
	사회적 보건	59. 보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60. 보건서비스를 기다리는 평균시간(보육 포함)
	재정 서비스	61. 자격미달에 따른 신용서비스 거부 비율 62. 필요한 경우 재정적 보조/자문예의 접근
	교통	63. 대중교통시스템 이용자 비율 64. 대중교통시스템과 도로의 혼잡도
	시민/문화적 서비스	65. 만명 거주당 공공스포츠시설 수 66. 만명 거주당 공공·민간 시민·문화적 시설 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 참여	67. 이웃과의 정기적 접촉
	우정	68. 친구와의 정기적 접촉
	가족생활	69. 사랑/고독감을 느끼는 비율 70. 친척과의 접촉의 지속 기간(동거·비동거) 71. 다른 형태의 가족에 의해 받는 비형식적 원조(비일시적)

〈표 3-11〉 사회적 역능성 지표(Herrmann, 2003)

구분	세부항목	지 표
지식 기반	지식의 유용성	72. 지식기반의 사회이동 정도(범위)
	정보의 유용성	73. 구독·수리적 능력 있는 인구 비율 74. 언론의 자유 75. 인터넷 접근성
	이용자의 정보친밀도	76. 사회서비스에서의 다중언어 정보 제공 77. 무료 번호·진찰·안내 센터의 이용도(무료 지원 및 자문센터 가용성)
노동 시장	고용계약 통제	78.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 79. 단체교섭권에 의한 노동력 비율(공공과 민간 고용인과는 차별화되는)
	직장이동의 기대(전망)	80. 직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력 비율 81. 공공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노동력 비율 82. 직장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비율
	직장과 가족생활의 조화	83. 직장과 일상생활의 균형정책을 운영하는 조직의 비율 84. 실제로 균형있는 직장/일상생활 수치를 이용하는 고용 노동자 비율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개방성과 정치적 시스템의 지속성	85. 협의회 과정과 직접민주주의 존재
	경제적 시스템 개방성	86. 주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공공참여(관여)의 사례 수 (회사재배치, 내부투자, 공장폐쇄에 대한 공청회 시스템 등)
	조직의 개방성	87. 노동협회의와 조직 비율
공공 영역	집단행동에 대한 지원	88. 자발적·비자발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역 공공예산비율 89. 지난 1년간 집회나 시위 중 금지된 비율
	문화적 풍요	90. 문화활동에 할당된 지역적·국가적 예산 비중 91.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적 집단과 이벤트 수 92. 규칙적 기반위에 개인적 풍요로움의 다른 형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새로운 형태의 문화경험률)
사회적 관계	물질적/사회적 독립 지원 서비스 제공	93.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역 예산(물질적/정신적)
	사회적 지원 서비스	94. 방과 전/방과 후 어린이 보호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	95. 주거와 환경 디자인의 포용 범위

2) 사회의 질 지표 개발 과정¹²⁾

여기서는 사회의 질 지표개발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유럽 학자들의 논의를 정

12) Laurent J.G. van der Maesen, "Reflections on the first set of Social Quality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Network Social Quality Indicators'",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Working Papers Nr.3, March 2009

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질 지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질 접근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환경을 비교하는 지표개발 중심의 접근과는 다르다. 사회적 질 접근은 사회적 질 지표에 관한 4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지표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1) 타당성, (2) 일관성, (3) 적합성, (4) 유용성이다. 이러한 4가지 질문은 또한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형식이나 추론과 관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들은 사회적 질 접근의 정교화를 위한 방법과 그 방법론의 본질을 가리킨다.

사회적 질 지표의 첫 번째 적용 결과인 유럽의 국가 보고서는 지표의 발견적 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 뿐, 14개 유럽국가들의 일상 환경의 현실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지표들은 4가지 조건 요소의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그만큼 지표들이 서로 겹쳐지기도 한다. 게다가 때때로 지표들이 국가나 지역의 차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데이터 유용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질 지표는 기존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표의 의미가 우선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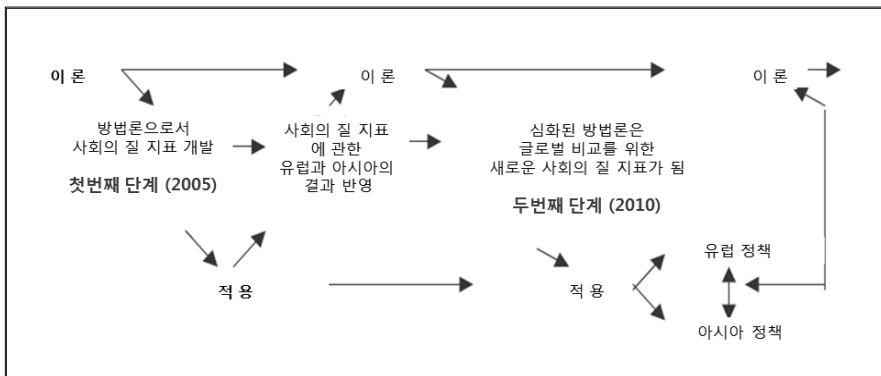
사회적 질 지표 개발 초기단계에는 국가들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 지표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가능한 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의 데이터가 국가들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가 또는 지역의 새로운 데이터를 유럽데이터에 추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몇몇 변수는 명백히 지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표 정교화 과정의 귀납적 방식에 해당된다.

연역적 방식은 추론 과정 동안 ‘사회적’의 제안에 기반한 4가지 구성요소를 서로 다른 영역들과 구분하며, 이에 대한 하위영역들을 구분한다. 최근 추론의 연역적 방식은 고용, 공공보건, 사회주택, 교육 등과 같은 정책영역과 이주자, 노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도시 범주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지표항목은 귀납적으로 이러한 하위영역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연역적 접근은 필수 개념들을 정교화하고, 영역과 하위영역을 연결한다. 귀납적 접근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표의 경험적 전개와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표의 4가지 영역의 타당성이나 일관성, 적합성, 유용성은 정교화 과정에서 연역과 귀납 관점이 교차 연결한 결과이다. 즉 하위영역들이 타당하고, 사회적 과정과 결과의 이해에 적합하고, 하나의 체계로서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적 자료로서 유용성을 지녀야 한다. 귀납적·연역적 탐구방식의 교차전개에 의한 지표의 정교화 과정을 거쳐 지표 선정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보고서의 지표와 그 결과의 정교화에 대한 집단적 연구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즉 지표들의 타당성, 일관성, 적합성, 유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이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 대학교들이 유럽 국가 보고서의 결과를 놓고 분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표의 유용성은 재평가되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사회의 질 지표 개발과정(Laurent J.G. van der Maesen, 2009)

제3절 서울의 사회의 질 지표 설정

서울 도시 사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EU의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 가지 영역 분류에 따른 지표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의 사회의 질 지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요 지수들의 지표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유럽적 맥락에서의 사회의 질을 토대로 한국의 맥락, 더 나아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맥락에서 사회적 질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EU의 사회의 질 지표항목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몇몇 항목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가져오거나 기존의 서울시 지표들로 대체하였다. 대부분의 지표 값들은 [서울통계연보]와 [서울서베이] 자료이다. 사회의 질을 나타내는 각 영역의 지표 결과가 합하여 서울시의 사회의 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의 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로 진행해 왔으나, 이 연구는 서울시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표 3-12〉 서울시의 사회의 질 지표 구성

영역	구분	지표 항목
사회경제적 안전성	재정 자원	- 도시가계연보 지출항목 - 빈곤율 - 부채율
	주거와 환경	- 자가/전세 비율 - 1인당 거주면적 - 거주자 만명당 범죄건수 - 도시안전도(자연재해/밤길/범죄피해/붕괴)
	건강과 보건	- 거주자 만명당 의사 수/의료시설 수 - 음용식수 - 노후준비율
	노동	- 임시직 비율
사회적 응집성	신뢰	- 가족가치관(가족통합성)
	규범과 가치	- 자원봉사율 - 가사노동분담 의견 -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 단체활동 참여율 - 친구/친지와의 관계
	정체성	- 서울시민 자부심 -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사회적 포섭	시민권	- 투표율 -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비율 - 의회, 사기업, 재단 등의 임원으로 선출/지명된 여성 비율
	서비스	- 보육현황 - 보육만족도 - 고등교육 참여율 - 대중교통시스템 이용자 비율 - 대중교통시스템의 혼잡도 - 만명 거주당 공공스포츠타일 시설 수 - 만명 거주당 공공문화시설 수
사회적 역능화	지식기반	- PC/인터넷 보급률 - 인터넷 활용정도
	공공영역	- 문화활동에 할당된 예산 배분
	사적 관계	- 계층귀속의식

제4장 서울 도시 사회의 질에 대한 현황과 평가

제1절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제2절 사회적 응집성 영역

제3절 사회적 포섭 영역

제4절 사회적 역능화 영역

제5절 영역별 총괄 평가

제 4 장

서울 도시 사회의 질에 대한 현황과 평가

서울 도시사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U의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 분류에 따른 지표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의 사회의 질 지표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EU의 사회의 질 지표항목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몇몇 항목들은 기존의 서울시 지표들로 대체하였다. 주로 서울통계연보와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제1절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1. 재정자원

1)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비교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로서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가계조사연보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의 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은 평균 가구원수 3.29명을 기준으로

2,711,700원이다. 해마다 가구원수는 감소하는 반면, 월평균가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구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1년 소비지출 87%에 비해 2007년 85%로 그 비중은 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 등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의류 및 신발이나 교통통신 항목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보건의료나 교육 항목의 비중이 비교적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세부항목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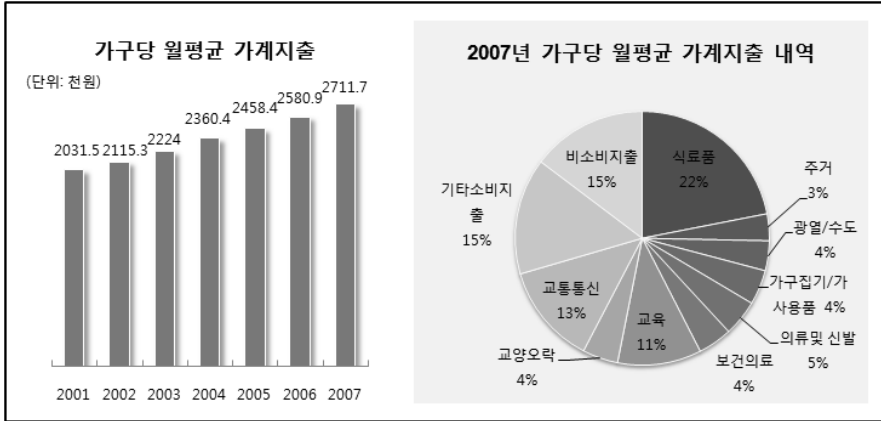
〈표 4-1〉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천원)

연도	가구원수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2001	3.49	2031.5	1762.1	269.4
2002	3.44	2115.3	1834.8	280.5
2003	3.48	2224.0	1922.9	301.1
2004	3.43	2360.4	2018.2	342.2
2005	3.38	2458.4	2091.9	366.6
2006	3.33	2580.9	2173.9	407.0
2007	3.29	2711.7	2292.7	399.0

소비지출 항목

연도	식료품	주거	광열수 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 지출
2001	463.6	68.2	92.5	70.4	98.1	74.3	199.4	86.7	286.6	322.2
2002	481	62.4	93.2	71.4	102	81.1	206	86.7	309.3	341.6
2003	509.6	65.1	94.4	72.5	106.9	89.7	224	93.9	329.5	337.4
2004	544.8	66.6	97.9	79.4	105.1	94.5	235.8	98	347	349.1
2005	551.6	72	103.1	86.7	110.8	103	245.9	103.3	362.3	353
2006	558.3	75.4	106.9	91	115.4	111	257.5	105.1	379.6	373.6
2007	593.8	92.1	102.6	119.5	124.1	117.6	290.0	122.9	347.0	4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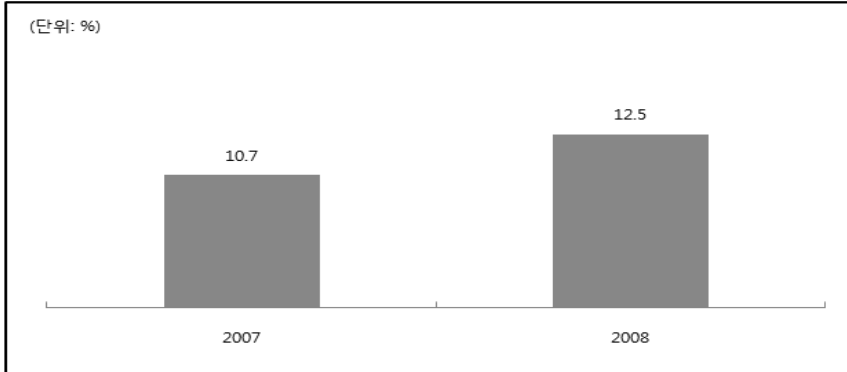
〈그림 4-1〉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내역

2)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¹³⁾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전체의 부는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소득격차가 크다면 그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수는 많을 것이고, 소득분배가 상당히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반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박찬임, 2008).

서울시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에 비해 2008년 12.5%로 상승하였다. OECD 국가의 빈곤율이 평균 10.6%라고 볼 때, 서울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현상이 더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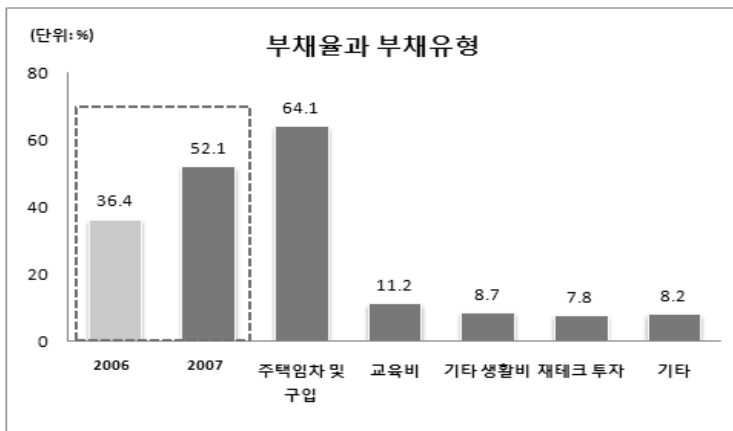
13) 중위소득 :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그림 4-2〉 상대적 빈곤율

3) 부채율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서울 거주 가구의 52.1%는 부채가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7% 증가하였다. 가구주들이 꼽은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임차 및 구입’이 6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부채율과 부채유형

2. 주거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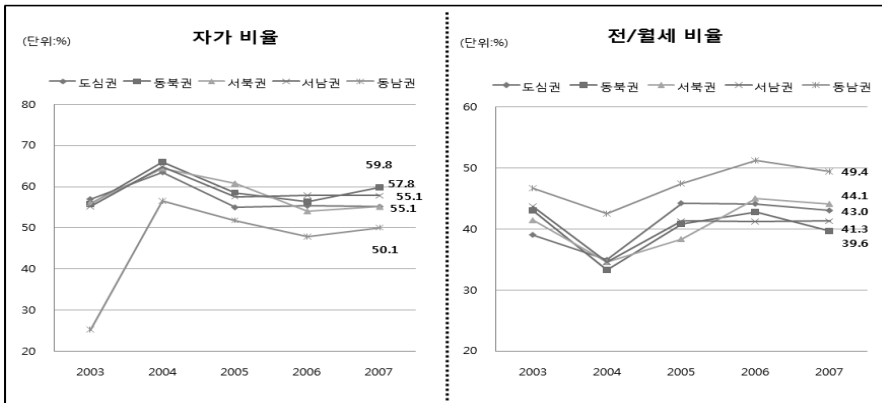
1) 자가/전세 비율

자가소유율은 주거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서울서베이 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은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절반만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세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이 2007년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 서울시 자가와 전/월세 비율

(단위: %)

연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자가	전/월세	자가	전/월세	자가	전/월세	자가	전/월세	자가	전/월세
2003	56.9	39.0	55.7	43.0	56.0	41.4	55.2	43.7	52.2	46.7
2004	63.4	34.9	66.0	33.3	64.5	34.5	64.8	34.6	56.6	42.5
2005	54.9	44.2	58.5	40.8	60.8	38.3	57.6	41.3	51.8	47.4
2006	55.3	44.1	56.3	42.7	54.0	45.0	57.9	41.2	47.9	51.2
2007	55.1	32.1	59.8	30.9	55.1	35.6	57.8	31.2	50.1	36.0



〈그림 4-4〉 자가와 전/월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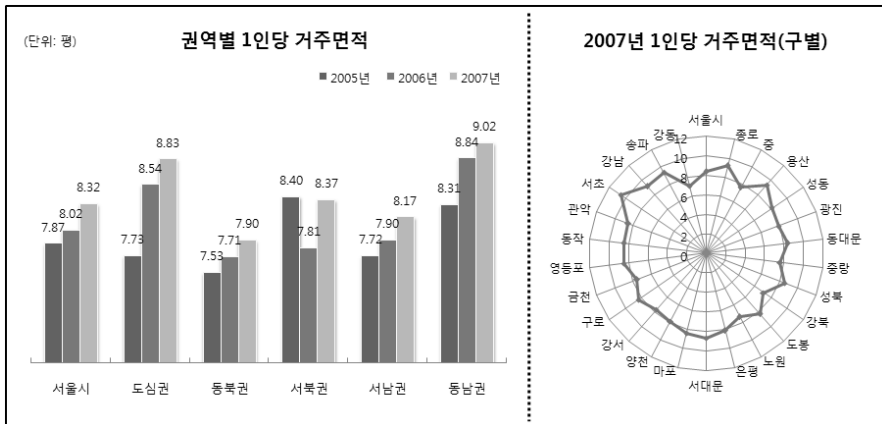
2) 1인당 거주면적

1인당 거주면적은 총 주택면적 문항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서울 서베이(가구조사)에 따르면, 1인당 거주면적은 2005년 7.87평, 2006년 8.02평, 2007년 8.32평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3〉 1인당 거주면적

(단위: 평)

연도	서울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2005	7.87	7.73	7.53	8.4	7.72	8.31
2006	8.02	8.54	7.71	7.81	7.9	8.34
2007	8.32	8.83	7.9	8.37	8.17	9.02



〈그림 4-5〉 1인당 거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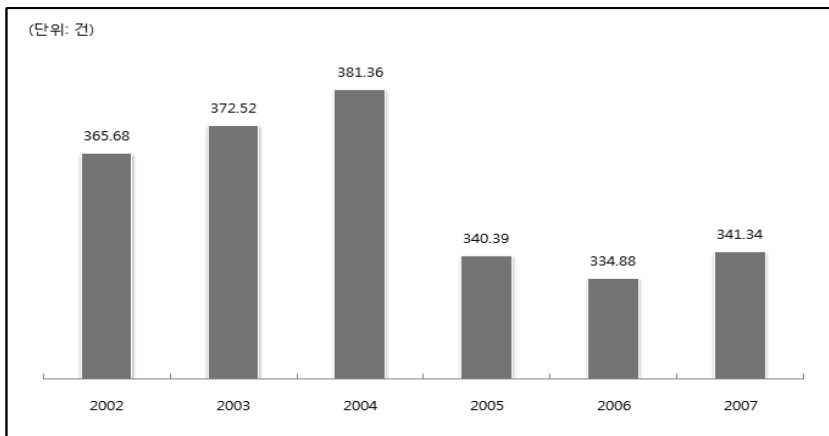
3) 범죄건수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범죄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도시의 치안상태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단 2007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4〉 범죄발생 및 검거 건수

(단위: 건)

연도	발생	검거
2002	375,940	342,817
2003	382,833	340,154
2004	392,342	337,989
2005	350,502	308,481
2006	346,810	303,128
2007	355,735	315,886



〈그림 4-6〉 거주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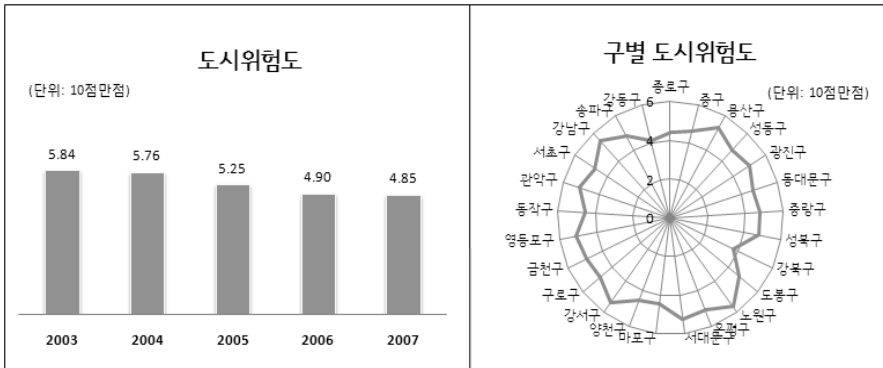
4) 도시위험도

도시위험도는 화재, 자연재해, 건물붕괴, 야간보행 등 도시위험도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0점: 전혀 위험하지 않음 ~ 10점: 아주 위험함).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 위험도는 4.85점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민은 자연재해나 건축붕괴 등 재난재해 위험인지도보다 서울밤길이나 범죄와 같은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생활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5〉 서울시 도시위험도

(단위: 10점만점)					
	도시위험도	자연재해	서울밤길	범죄 두려움	건축붕괴 위험성
2004	5.76	4.53	6.48	6.51	5.52
2005	5.25	3.97	5.83	5.87	5.13
2006	4.90	3.72	5.50	5.63	4.77
2007	4.85	3.52	5.73	5.66	4.50



〈그림 4-7〉 도시위험도

3. 건강과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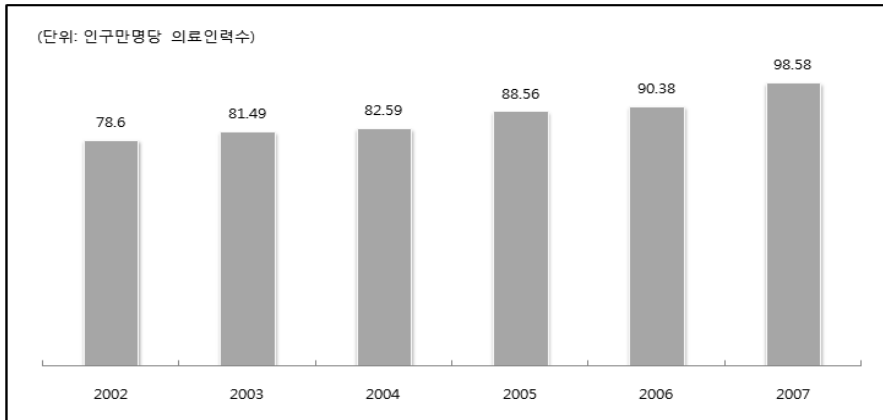
1)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1) 의료인력 수

서울통계연보의 인구 만명당 의료기관 종사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수를 산출해본 결과, 2002년 80,805명에 비해 2007년 102,7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6〉 의료인력 수

연도	총 의료인력	
	의사(상근, 비상근 포함)	
2002	80805	19054
2003	83750	19733
2004	84971	20197
2005	91195	21104
2006	93598	21791
2007	102743	23058



〈그림 4-8〉 의료인력 수

(2) 의료시설 수

서울통계연보의 의료시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부속의원, 특수병원, 조산소¹⁴⁾)의 병상수를 인구 만명당으로 산출해 본 결과, 2002년 319.1개에 비해 2007년 379.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의료시설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의료현황에 있어서 의사수와 병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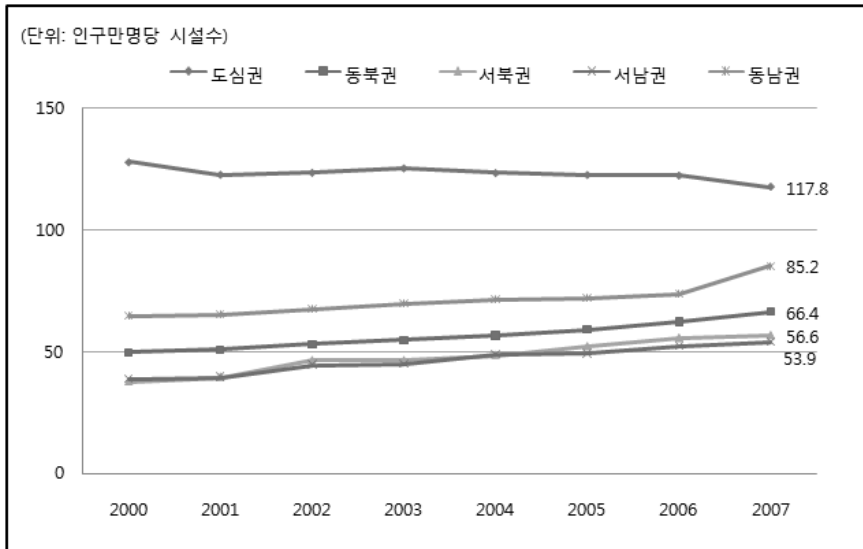
14) 부설의원, 보건소 제외

료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복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4-7〉 의료시설 수

(단위 : 만명당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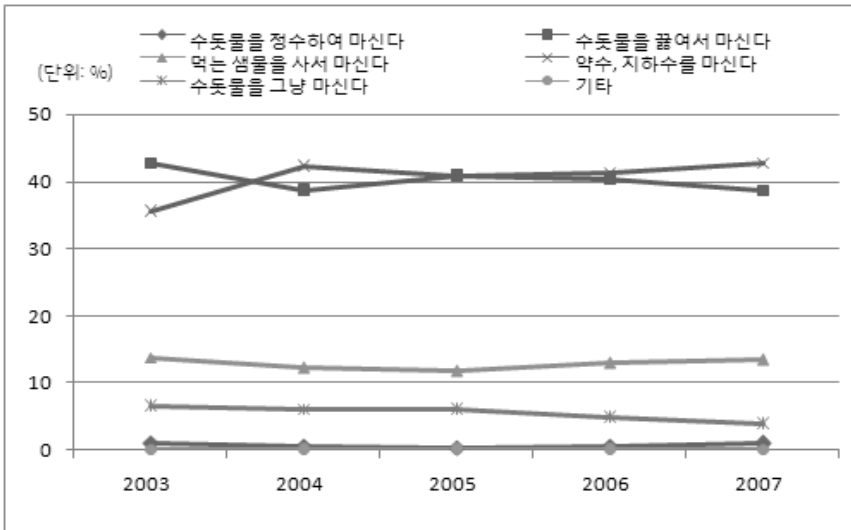
	서울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2000	319.1	128.1	49.7	37.6	38.9	64.7
2001	317.7	122.8	50.7	39.5	39.7	65.0
2002	335.1	123.7	53.0	46.3	44.7	67.5
2003	341.2	125.6	54.6	46.3	45.0	69.7
2004	348.9	123.5	56.6	48.5	48.9	71.4
2005	355.0	122.7	59.0	52.0	49.2	72.0
2006	366.4	122.5	62.3	55.5	52.4	73.7
2007	379.9	117.8	66.4	56.6	53.9	85.2



〈그림 4-9〉 만명당 의료시설 수

2) 음용식수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용식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가 0.9%,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가 38.7%,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가 13.5%,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가 42.0%,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가 3.9%로 나타났다.



〈그림 4-10〉 음용식수

3) 노후 준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2007년 59.5%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방법은 보험이 61.3%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저축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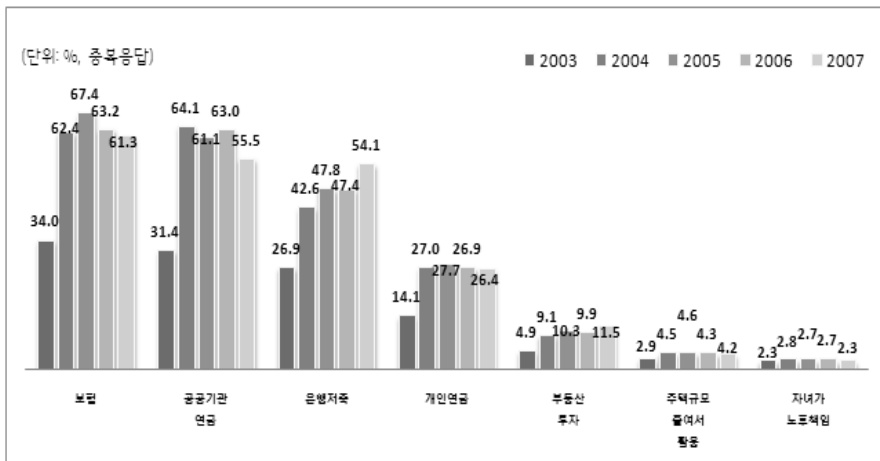
노후준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후준비 방법들의 전반적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후준비를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인빈곤문제와 노후생활보장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표 4-8〉 노후준비 방법

(단위: %)

연도	노후준비 여부	노후 준비 방법						
		국민연금	보험	은행저축	개인연금	부동산투자	주택규모 축소 통한 수익활용	자녀가 노후 책임
2003	62.5	31.4	34.0	26.9	14.1	4.9	2.9	2.3
2004	61.2	64.1	62.4	42.6	27.0	9.1	4.5	2.8
2005	60.2	61.1	67.4	47.8	27.7	10.3	4.6	2.7
2006	59.6	63.0	63.2	47.4	26.9	9.9	4.36	2.7
2007	59.5	55.5	61.3	54.1	26.4	11.5	4.2	2.3



〈그림 4-11〉 노후준비 방법

4.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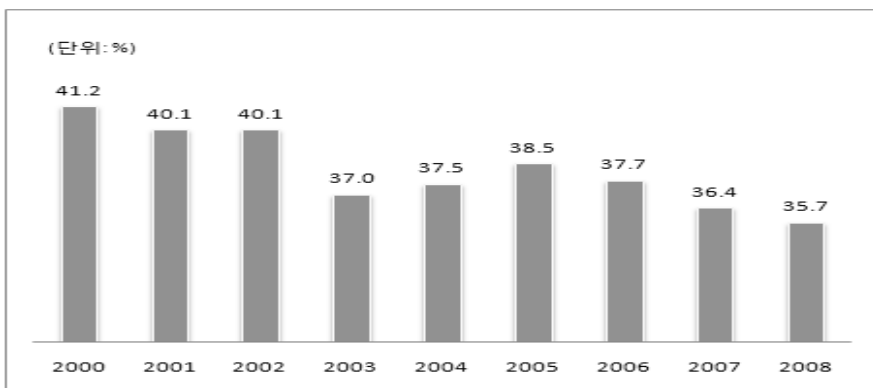
1) 임시직 비율

노동 유연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수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이는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4-9〉 노동유연성 비율

(단위 : 천명, %)

연도	임시 및 일일 종사자	전체 취업자	노동유연성 비율
1999	1,817	4,485	40.5
2000	1,921	4,668	41.2
2001	1,894	4,727	40.1
2002	1,935	4,783	40.1
2003	1,760	4,753	37.0
2004	1,813	4,831	37.5
2005	1,882	4,890	38.5
2006	1,851	4,906	37.7
2007	1,797	4,940	36.4
2008	1,755	4,922	35.7



〈그림 4-12〉 노동유연성 비율

제2절 사회적 응집성 영역

1. 신뢰

1) 가족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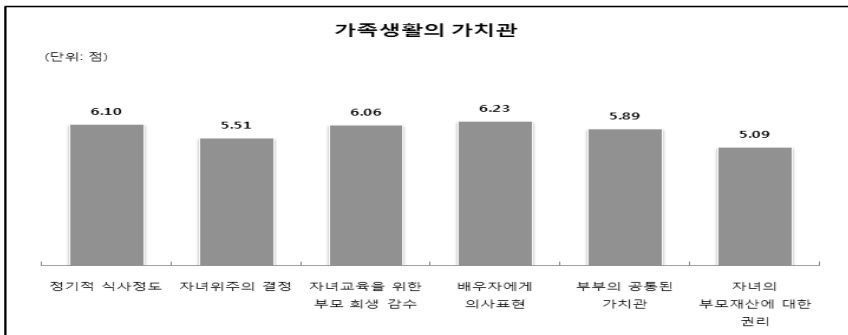
서울서베이에서 가족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설문으로 ‘정기적 식사정도’, ‘자녀중심의 소비와 여가 정보’,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희생정도’, ‘배우자에 대한 솔직한 표현정도’, ‘부부의 공통 가치관’, ‘부모재산에 대한 권리 인정 정도’의 항목이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통합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식사한다’라는 비율은 2007년 50.6%로, 30대(58.5%) 및 40대(55.5%),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4-10〉 가족생활의 가치관

(단위: %, 점)

연도	정기적 식사		자녀중심의 소비와 여가 정도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희생정도		배우자에 대한 솔직한 표현정도		부부의 공통된 가치관		부모재산에 대한 권리 정도	
	긍정 비율	10점 평균	긍정 비율	10점 평균	긍정 비율	10점 평균	긍정 비율	10점 평균	긍정 비율	10점 평균	긍정 비율	10점 평균
2007	50.6	6.10	40.2	5.51	49.1	6.06	49.3	6.23	43.0	5.89	34.9	5.09



〈그림 4-13〉 가족생활 가치관

2. 규범과 가치

1) 자원봉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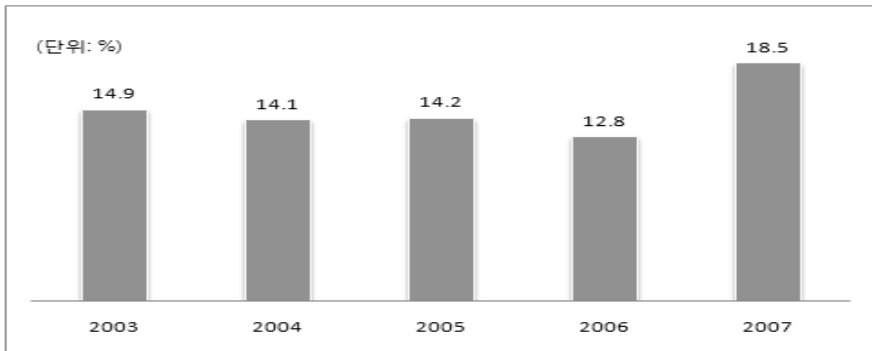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여부 및 분야별 참여횟수로 산출하였다.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2003년 14.9%에서 2007년 18.5%로 점차 증가하였다.

세부 자원봉사활동별 참여비율은 ‘환경보전 관련’(43.7%),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29.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관련’(33.8%), ‘자녀교육 관련’(26.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난해 대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관련’ 자원봉사를 제외한 다른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11〉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위: %, 회)

연도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참여횟수							
	환경보전 관련		자녀교육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기타 일반인 위한 봉사 관련	
	참여비율	횟수	참여비율	횟수	참여비율	횟수	참여비율	횟수
2006	40,5	2,52	22,6	2,19	41,8	4,07	19,3	1,62
2007	43,7	2,11	26,2	1,99	33,8	2,45	29,3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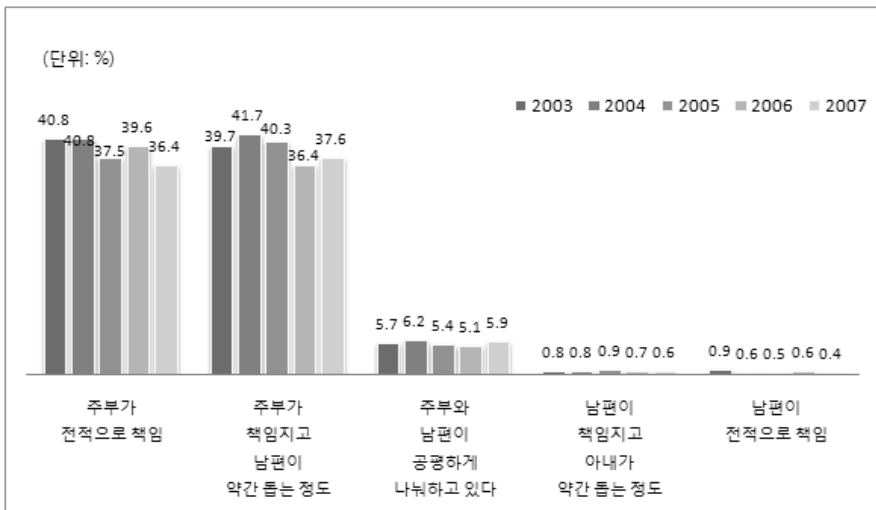


〈그림 4-1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 가사노동분담 의견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돕는 비율이 2003년 39.7%, 2004년 41.7%, 2005년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6년에는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이 39.6%로 그 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돕는 비율이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보다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남녀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성평등 의식이 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양성평등의 사회기반 조성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역할, 성평등에 대한 개인의 실천적 인식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서울서베이).



〈그림 4-15〉 가사노동분담 정도

3)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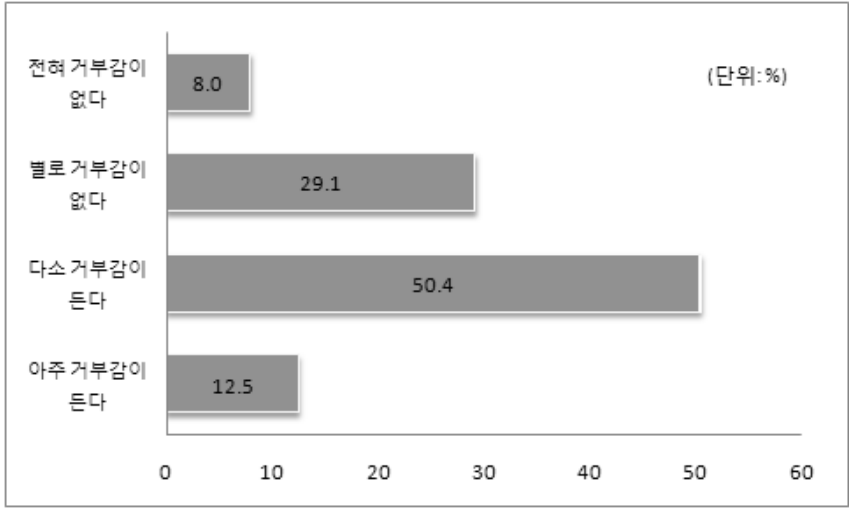
자녀나 자신이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것에 대한 포용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2007년 62.9%인 것으로 조사되어, 열린 사회로서 개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향후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전문대졸 미만 학력자에 비해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37%만이 외국인과의 결혼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듯이, 다문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의 시민 의식은 아직 열려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구분		아주 거부감이 든다	다소 거부감이 든다	별로 거부감이 없다	전혀 거부감이 없다
2007		12.5	50.4	29.1	8.0
연령별	10대	5.3	36.2	42.8	15.6
	20대	5.5	40.3	41.5	12.7
	30대	7.9	50.6	32.8	8.6
	40대	11.6	57.5	24.7	6.2
	50대	16.2	57.4	22.0	4.4
	60대	25.3	50.1	19.6	4.9
학력별	중졸 이하	22.2	48.5	22.8	6.5
	고졸 이하	12.1	53.4	27.3	7.1
	전문대 이하	8.7	50.2	32.9	8.2
	4년제 이하	7.9	47.8	34.4	10.0
	대학원 이상	9.8	50.6	29.1	10.5



〈그림 4-16〉 외국인과의 결혼거부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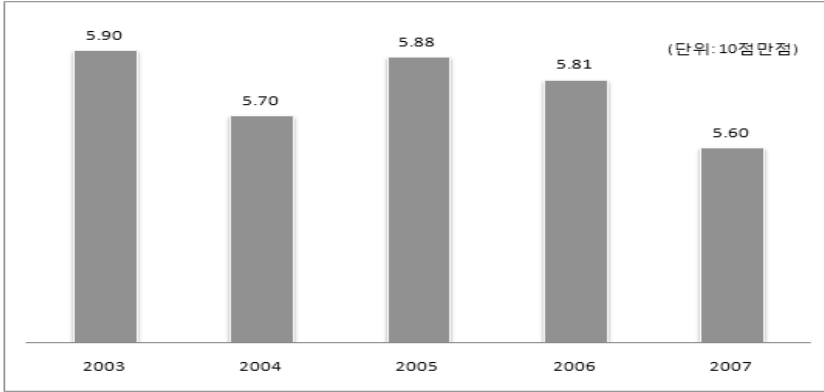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07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에 관한 종합점수는 5.60점으로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단위: 10점 만점)

연도	종합	장애아에 대한 인식	가난에 대한 인식	노인사회복지 인식	여성제도 개선인식
2003	5.90	6.24	5.83	5.65	-
2004	5.70	6.25	5.43	5.43	-
2005	5.88	6.12	5.43	5.09	6.87
2006	5.81	6.12	5.35	4.92	6.84
2007	5.60	5.96	5.00	4.69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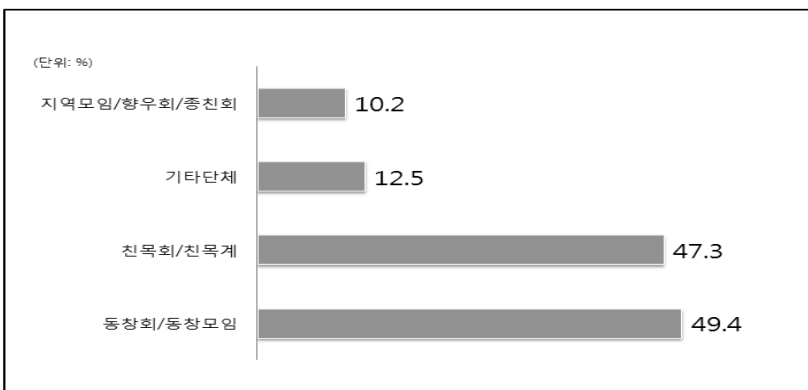


〈그림 4-17〉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3. 사회적 네트워크

1) 단체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민이 참여한 단체활동은 ‘동창회/동창모임’(49.4%), ‘친목회/친목계’(47.3%)가 각각 많은 가운데 ‘기타단체’(12.5%),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단체활동 참여 유형

2)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

주위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03년 6.71점, 2005년 6.78점, 2007년 6.77점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없으나,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서울서베이).

〈표 4-14〉 주위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10점 척도 환산 점수)

연도	주위친지·친구와의 관계
2003	6.71
2004	6.85
2005	6.78
2006	6.76
2007	6.77

4.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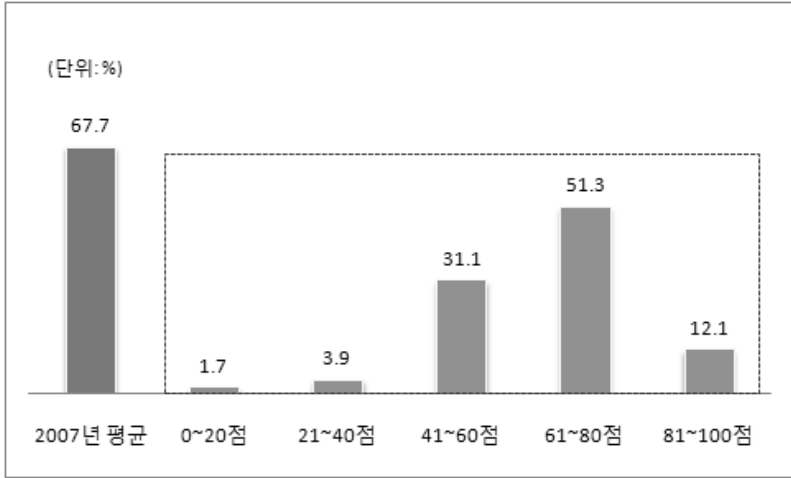
1) 서울시민 자부심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67.7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 점수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의 자부심 점수가 69.3점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의 자부심 점수가 67.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5〉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 점)

		서울시민 자부심 평균(100점)
전 체		67.7
권역별	도심권	67.6
	동북권	67.4
	서북권	67.0
	서남권	67.3
	동남권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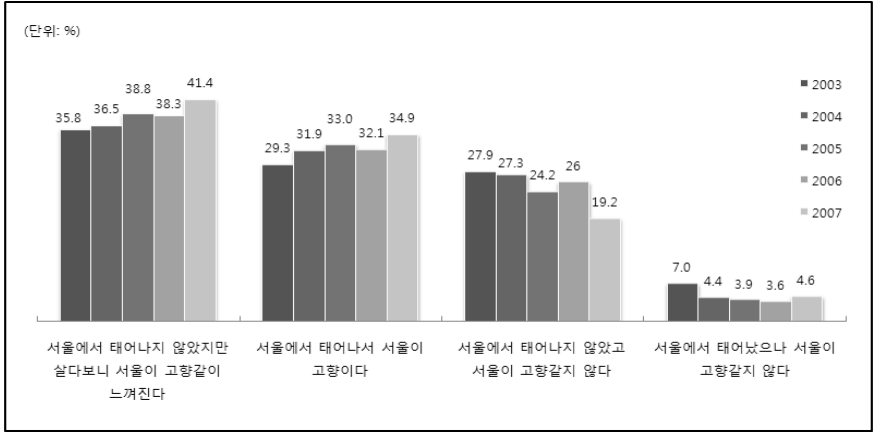
〈그림 4-19〉 서울시민 자부심

2)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라는 응답은 34.9%,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라는 응답은 41.4%로 서울을 고향같이 느끼는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 거주 시민들의 77.7%가 ‘서울을 고향같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표 4-16〉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서울태생 고향이다	서울태생 고향같지 않다	타 지역태생 고향같다	타 지역태생 고향같지 않다
전 체	34.9	4.6	41.4	19.2
도심권	35.2	5.7	40.4	18.6
동북권	37.0	4.6	40.7	17.6
서북권	32.3	5.6	40.8	21.3
서남권	32.4	4.1	44.2	19.3
동남권	36.4	4.4	38.7	20.4



〈그림 4-20〉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

제3절 사회적 포섭 영역

1. 시민권

1) 투표율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80.5%, 2002년 71.4%, 2007년 62.9%로 하향 추세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에 못 미치며,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역시 2004년 62.2%에 비해 2008년 45.8%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든 유형의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감소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동원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기형적으로 높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대두로 인한 투표 외에 다른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김욱, 2008).

〈표 4-17〉 투표 현황

(단위: 명, %)

	선거인 수	총 투표자	투 표 율
1997년 대통령선거	7,358,547	5,926,743	80.5
1998년 지방선거	7,377,751	3,459,481	46.9
2000년 국회의원선거	7,505,246	4,075,201	54.3
2002년 지방선거	7,665,343	3,499,524	45.7
2002년 대통령선거	7,670,682	5,475,715	71.4
2004년 국회의원선거	7,750,350	4,818,901	62.2
2006년 지방선거	7,983,648	3,976,287	49.8
2007년 대통령선거	8,051,696	5,066,022	62.9
2008년 국회의원선거	8,078,355	3,701,619	45.8

2)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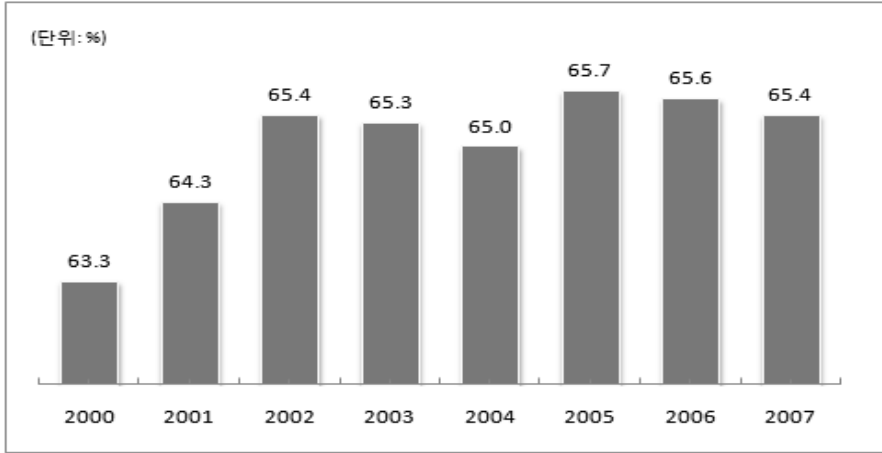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여성임금은 남성 임금대비 65.4%로 나타났다¹⁵⁾. 남녀임금비율은 2000년 63.3%에서 2005년 6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6년 65.6%, 2007년 65.4%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8〉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단위: 원, %)

	여성임금평균	남성임금평균	남녀임금비율
2000	929,158	1,468,101	63.3
2001	1,128,299	1,753,757	64.3
2002	1,303,405	1,992,250	65.4
2003	1,424,288	2,179,567	65.3
2004	1,514,932	2,331,475	65.0
2005	1,605,654	2,444,623	65.7
2006	1,706,978	2,603,299	65.6
2007	1,806,423	2,764,093	65.4

15) 성별 임금격차 산출방법: (여성의 월평균임금/남성의 월평균임금) × 12 × 100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그림 4-21) 연도별 성별임금격차

3) 의회, 사기업, 재단 등의 임원으로 선출/지명된 여성비율

여성 고위관리직 비중¹⁶⁾은 2000년 5.1%, 2002년 6.5%, 2004년 7.9%, 2006년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1.6%로 비교적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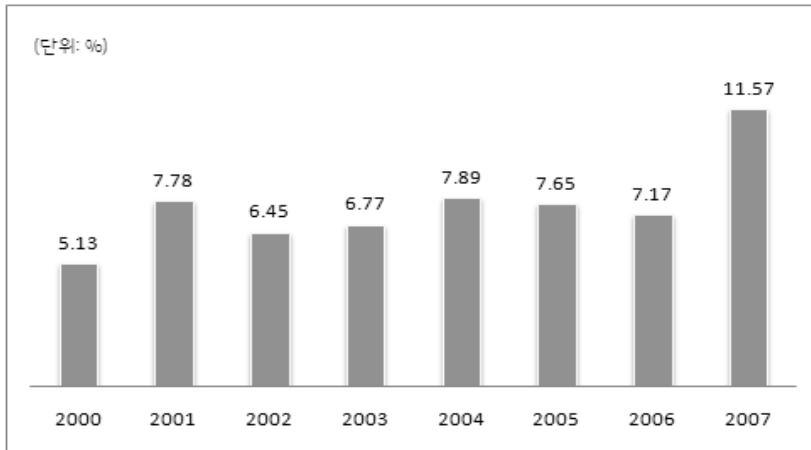
여성의 정치, 행정, 경제활동 참여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 여성고위관리직 비중은 향상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고급, 전문직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젊은 여성층의 집중과 적극성이 두드러진 서울의 여성 인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의 여성의 인재활용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16) 산출방법: (서울시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수/총 여성 취업자수)×100

〈표 4-19〉 서울시 여성 고위관리직 비중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여성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여성 고위관리직 비중
2000	156	8	5.1
2001	180	14	7.8
2002	186	12	6.5
2003	192	13	6.8
2004	179	14	7.9
2005	156	12	7.7
2006	141	10	7.2
2007	139	16	11.6



〈그림 4-22〉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2. 서비스

1) 보육현황

국공립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수를 합해서 산출한 공공보육시설 수는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까지 점차 감소하다 2005년을 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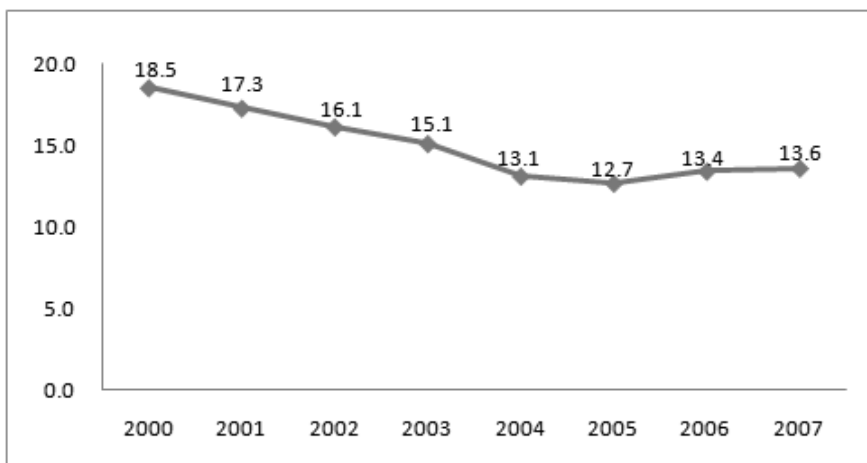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를 목표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공공보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현장의 대다수는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약 10%에 불과하다.

〈표 4-20〉 공공보육시설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합계	공공보육시설현황			공공 보육 비율
			국공립	직장	법인	
2000	4,041	749	528	69	152	18.5
2001	4,116	711	534	62	115	17.3
2002	4,348	701	558	63	80	16.1
2003	4,572	690	548	62	80	15.1
2004	5,035	659	545	63	51	13.1
2005	5,328	674	549	68	57	12.7
2006	5,402	738	632	78	28	13.4
2007	5,532	751	637	83	31	13.6



〈그림 4-23〉 공공보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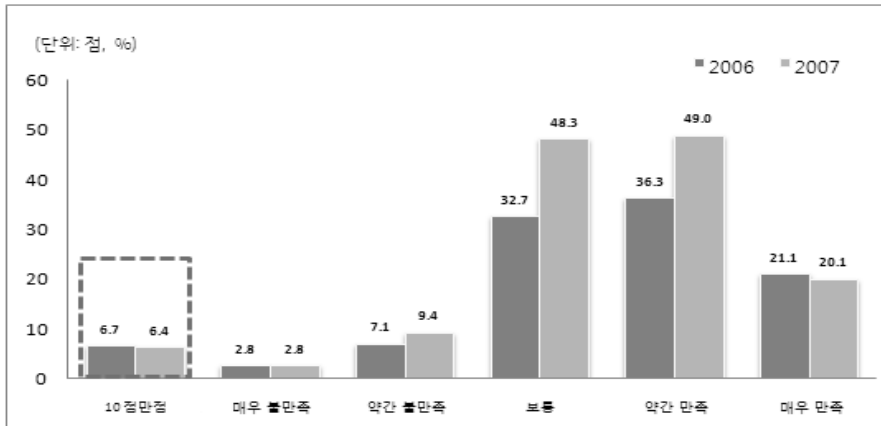
2) 보육만족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68점(10점만점)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보육대상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보육서비스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단위: 10점만점, %)

	10점만점	보육시설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07	6.44	2.8	7.1	32.7	36.3	21.1
2008	6.68	2.8	9.4	48.3	49.0	20.1



〈그림 4-24〉 보육시설 만족도

3) 고등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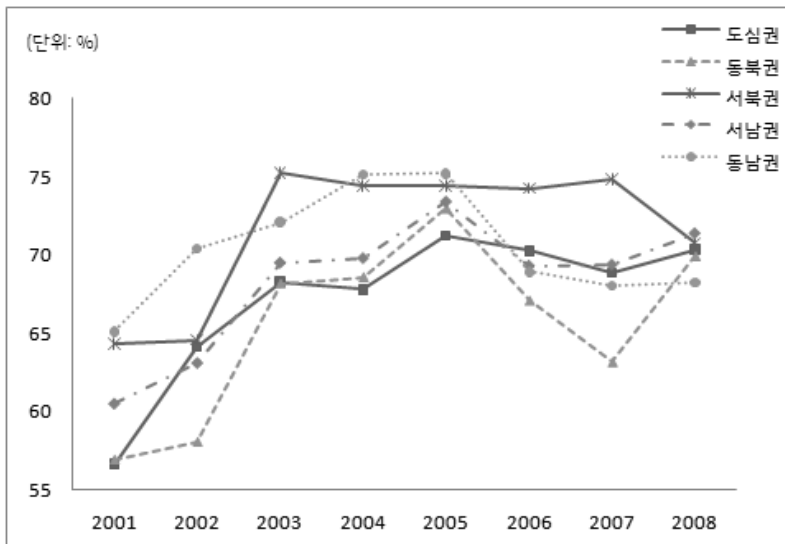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에서 일반계, 실업계 고교졸업자 중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각종학교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2001년 59.96%에서 2003년 69.97%, 2005년 73.15%, 2007년 67.76%, 2008년 70.2%로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고등교육 기회 증가로 평균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교육기회격차 감소를 의미한다.

〈표 4-22〉 고졸생 대학 진학률—권역별 평균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시	59.96	63.76	69.67	71.01	73.15	69.35	67.76	70.2
도심권	56.65	64.11	68.29	67.79	71.22	70.27	68.87	70.35
동북권	56.97	58.09	68.18	68.59	72.94	67.08	63.16	69.91
서북권	64.32	64.58	75.24	74.40	74.46	74.27	74.83	70.78
서남권	60.51	63.10	69.49	69.78	73.37	69.30	69.36	71.36
동남권	65.11	70.41	72.10	75.11	75.20	68.92	68.03	6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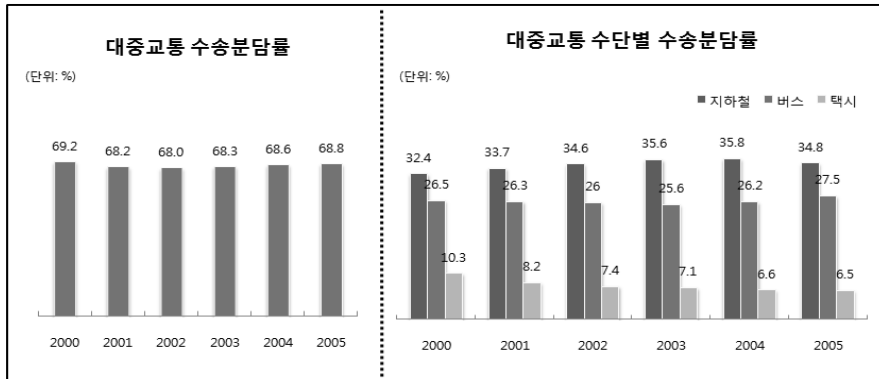


〈그림 4-25〉 고졸생의 대학진학률

4) 대중교통시스템 이용자 비율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수송분담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2005년 약 69%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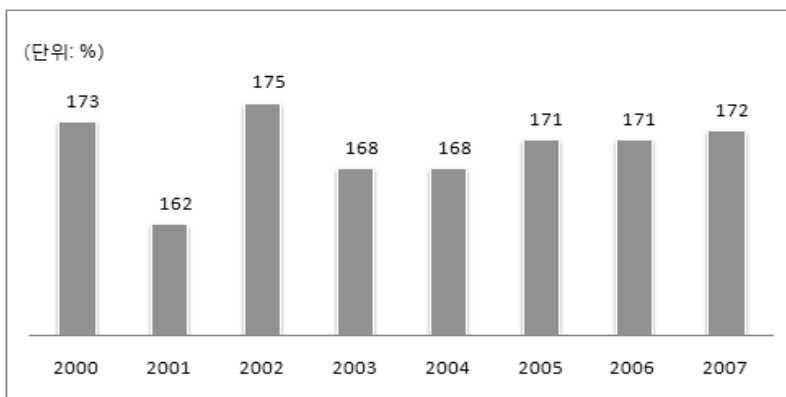
철이나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비교적 증가하는 반면, 택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서울서베이).



〈그림 4-26〉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 대중교통시스템의 혼잡도

지하철의 혼잡도는 지하철 1량당 최고혼잡구간 정원대비 이용승객의 재차 인원수 비율로 산출한다(서울시 지하철 공사, 도시철도 공사).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최고 혼잡도는 172로 나타났다.



〈그림 4-27〉 지하철 최고혼잡도

6) 공공스포츠 시설수

공공체육시설 수나 면적에 있어 뚜렷한 증가추세가 나타났다(서울통계연보). 이는 구별 문화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건립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뉴타운 등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4-23〉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수, m²)

연도	시설수	면적
2000	899	3,636,544
2001	1,041	3,927,496
2002	1,249	5,526,135
2003	1,281	8,238,072
2004	1,400	7,879,618
2005	1,523	8,438,538
2006	1,867	9,797,490
2007	2,004	11,511,133

7) 공공민간 시민문화적 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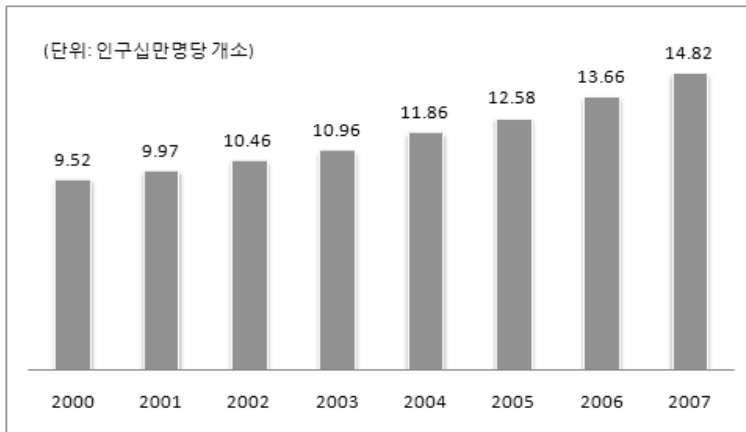
서울서베이에서 문화시설(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수를 인구 십만명당으로 산출한 결과, 2000년 9.52개에 비해 2007년 14.82개로 증가하였다. 문화시설의 권역별 증가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설수는 도심권이 타 권역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역 간 격차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문화시설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이 시설의 확충은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기반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여건 확충 차원에서 공공기반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한 결과, 문화시설의 개소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4-24〉 문화시설 현황

(단위: 인구십만명당 시설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시	9.52	9.97	10.46	10.96	11.86	12.58	13.66	14.82
도심권	51.22	54.63	58.31	58.47	67.84	71.85	76.62	88.27
동북권	5.06	5.57	5.52	6.20	6.45	6.94	7.60	14.71
서북권	6.32	6.38	6.97	8.59	8.64	9.32	10.64	17.36
서남권	6.45	6.16	6.78	7.30	7.74	7.97	8.87	16.09
동남권	11.51	12.28	12.77	12.70	13.81	14.97	15.85	18.89



〈그림 4-28〉 문화시설 현황

제4절 사회적 역능화 영역

1. 지식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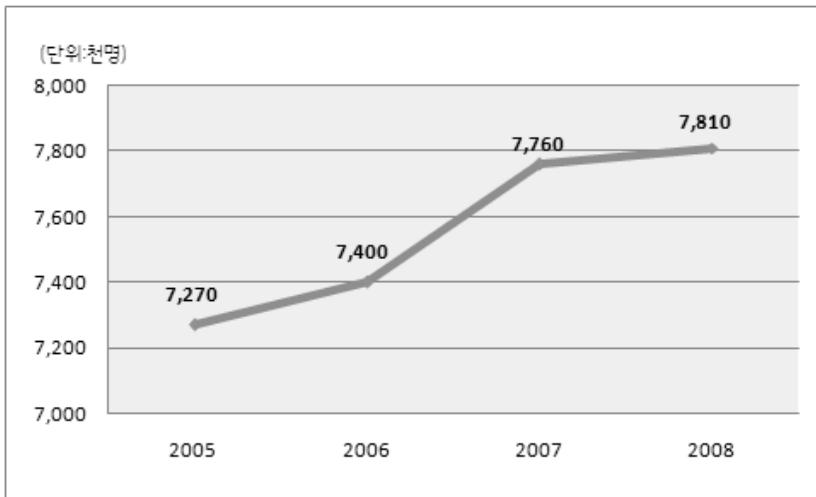
1) PC/인터넷 보급률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84.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보유대수는 1.04대이다(서울서베이). 인터

넷 이용자수 역시 2005년 7,270천명, 2006년 7,400천명, 2007년 7,760천명, 2008년 7,81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표 4-25〉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연도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평균 보유대수	
	컴퓨터	휴대폰	초고속 통신망	컴퓨터	휴대폰
2007	84.8	96.1	97.4	1.04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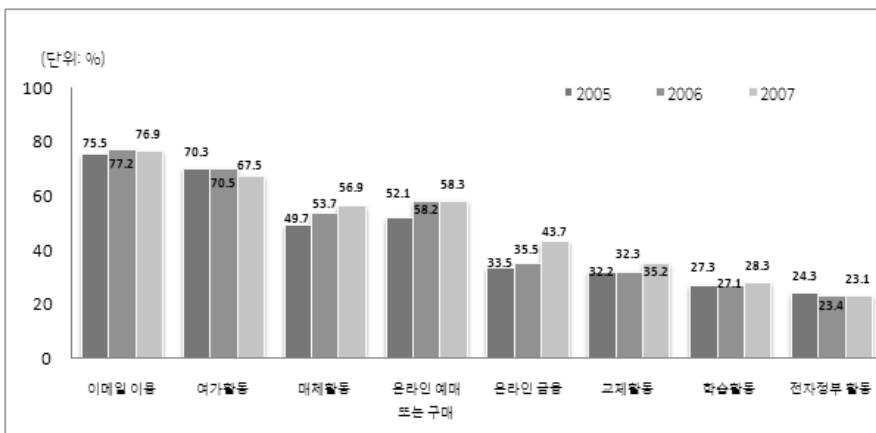


〈그림 4-29〉 인터넷 이용자 수

2) 인터넷 활용정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은 ‘이메일’(76.9%)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어 ‘여가활동’ (67.5%), ‘매체활동’(56.9%), ‘온라인 예매/구매’(58.3%), ‘온라인 금융’(43.7%), ‘교제활동’(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체활동은 56.9%로 2006년 대비 상승폭(↑3.2%p)이 가장 두드러진다.

서울의 인구집중성은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의 보급과 고도화의 최적요인이 되고 있다. 컴퓨터나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은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민간 산업의 경쟁을 통해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정보문화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급으로 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활동이 내용적으로 심화되면서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그림 4-30〉 일상생활의 인터넷활동 정도

2. 공공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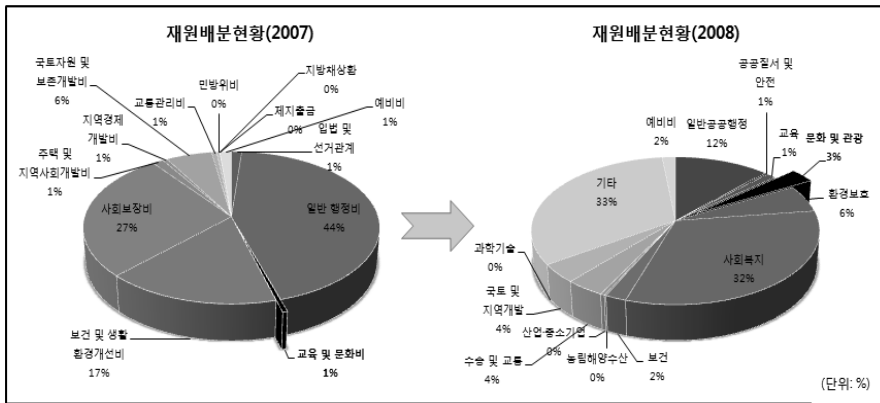
1) 문화활동에 할당된 지역·국가 예산 비중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자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서울시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203,10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이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비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예산). 이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6〉 서울시 자원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2008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780,475	29,742	73,593	203,101	385,252	2,067,774	134,788
합계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예비비	농림 해양수산
6,448,421	25,986	247,960	263,422	188	2,115,236	108,934	11,970



〈그림 4-31〉 서울시 문화예산배분 현황

〈표 4-27〉 연도별 자원배분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2002	3,245,714	61,301	1,580,241	4,827	570,306	663,343	32,290
2003	3,631,493	47,809	1,761,713	6,581	615,315	767,127	41,844
2004	4,327,126	53,562	2,046,707	8,474	722,873	905,366	60,773
2005	4,777,221	60,673	2,141,154	5,876	825,384	1,099,521	94,807
2006	4,770,472	108,993	2,138,884	8,359	805,262	1,201,476	73,327
2007	5,324,146	68,875	2,352,167	24,454	887,947	1,465,869	73,128
2002	19,904	312,222	17,652	14,865	7,354	0	61,408

〈표 계속〉 연도별 자원배분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비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2003	22,858	260,605	47,255	15,628	7,042	499	67,217
2004	32,765	346,351	33,262	16,806	107	2200	97,880
2005	27,416	365,835	40,923	14,774	1,833	0	89,025
2006	26,494	258,679	37,072	18,654	135	0	93,137
2007	30,482	306,785	34,263	18,924	350	1,949	76,953

3. 사적관계

1) 계층귀속의식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결과, 2007년 서울시민의 76%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8년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중하’에 속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하상’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비율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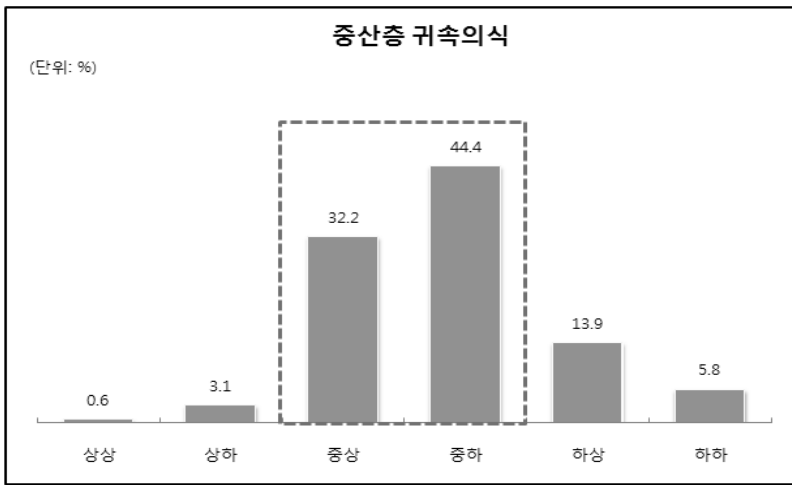
〈표 4-28〉 계층귀속의식

(단위: %)

계층수준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2007	0.6	31.	32.2	44.4	13.9	5.8	
학력별	중졸 이하	0.4	1.8	19.8	40.7	22.7	14.6
	고졸 이하	0.5	2.7	27.4	48.2	15.6	5.5
	전문대 이하	0.6	3.8	36.6	46.5	9.9	2.6
	4년제 이하	0.7	3.5	43.6	42.4	7.8	2.0
	대학원 이상	2.8	9.3	57.1	24.8	4.9	1.0

〈표 계속〉 계층귀속의식

계층수준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2007	0.6	31.	32.2	44.4	13.9	5.8	
권역별	도심권	1.0	4.2	34.2	43.9	10.9	5.8
	동북권	0.4	2.6	30.9	45.2	15.1	5.8
	서북권	0.7	3.4	30.0	46.4	13.6	5.9
	서남권	0.7	2.2	29.4	44.8	16.6	6.3
	동남권	0.9	4.8	39.5	41.2	8.6	5.0



〈그림 4-32〉 중산층 귀속의식

제5절 영역별 총괄 평가

대도시 공간인 서울의 사회의 질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서울의 사회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울 통계연보 및 서울서베이에서 산출된 데이터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별 시계열적 현황 및 현재 모습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의 사회의 질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서울의 사회의 질에 대한 각각의 지표별 데이터를 종합하여 영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울의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란 물질 풍부함,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등으로 시민들이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인 안전, 사회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 수준이던 것이 1년 사이 12.5%로 더 높아졌으며, 가구부채율 역시 2007년 기준 50%를 상회하는(가구 부채율 52.1%) 등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안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거주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주택소유,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상대적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권역간 차이는 큰 편이다. 동남권과 도심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면적 등이 넓다.

한편 사회적 안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건수, 도시위험도 등의 지표들은 서울의 사회적 안전화 경향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건수는 2007년 기준 전년 대비 10여건 미만의 증가를 보이며 연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시안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건축붕괴,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요소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서울 밤길에 대한 두려움은 매년 감소하다가 2007년 기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전 인지도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안전은 위험한 순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하는 측면과 도시 공간에 사는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별적 안전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의료시설 수나 의료인력 등 건강복지 관련 물리적 시설의 안전성은 매년 증가하여 안정적인 추세다.

반면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전성 확보 측면의 노후 준비율과 노후활동참가율은 60% 내외로 나타나 절반을 약간 넘는 시민들이나 노인들만이 노후 삶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서울에 사는 노인인구 10명 중 2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시민의 개인적 삶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노동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유연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고용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사회응집성 영역

한 사회의 응집과 분열의 정도는 혈연단위, 개별 조직단위, 사회 전체단위로 나눠 분석이 가능하다. 사회의 여러 층위(layer)에서의 응집성의 결핍, 혹은 분열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되 돌아온다.

서울의 사회응집성을 혈연단위에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을 나타내는 가족 가치관은 보통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은 정기적인 식사나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등을 수용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의 응집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사노동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주부를 여전히 가사의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성평등에 대한 실천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직단위의 사회응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원봉사 비율은 점차 높아

지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다만 10대 청소년들의 의무적 자원봉사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반적인 응집성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의 응집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지표들은 사회응집성 영역의 불안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지불의사에 있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비율이 높아 세대 간 응집성이 불안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관용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기존의 것에 대한 응집성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와 다른 집단’과의 응집성(사회적 약자, 서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는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서울의 변화하는 다원성,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응집성 영역에서의 불안전성은 향후 사회적 이슈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사회적 포섭 영역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포섭 영역은 궁극적으로 이 영역의 질적 제고로 사회의 소통비용과 갈등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성별 갈등, 세대별 갈등, 계층별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기회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전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로서의 자

발적 참여 혹은 자원성(自願性)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적 포섭 영역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포섭 영역의 개별 지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서울은 남녀 차이에 따른 임금, 직업지위 차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시민권 영역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포섭을 위한 사회의 서비스 질 개선 영역의 경우 공공보육의 개선, 고등교육 참여율의 권역별 차이 정도의 완화, 69% 이상의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대중 스포츠시설·문화시설의 지속적 증대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지표 현황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포섭을 지향하는 정책성과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등한 기회구조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서울시의 사회적 포섭 정책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포섭 영역의 질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긍정적 정책 지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사회적 응집성 영역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발전축인 구조적인 축과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축인 행위자 축의 연결성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발전과 도시사회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의 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잠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포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 CSR)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전 지구적 가치, 시민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CSR은 단순한 기업 홍보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작동원리로 변화한 것이다.

보스톤 칼리지 기업시민센터 교수인 필립 머비스는 최고 기업이 되려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CSR의 실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한 데

에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엔론사태 등을 계기로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업 감시의 눈과 법률이 만들어지고, 금융위기의 쓰나미에서 비롯된 변화로 기업과 사회가 결코 따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즉, 민간기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또한 NGO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단기 성과주의가 퇴조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이 화두가 되면서 CSR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사회적 포섭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서비스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를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역능화 영역

OECD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대도시 혹은 대도시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OECD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자 도시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시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대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이 경제의 집적성 및 특화, 다양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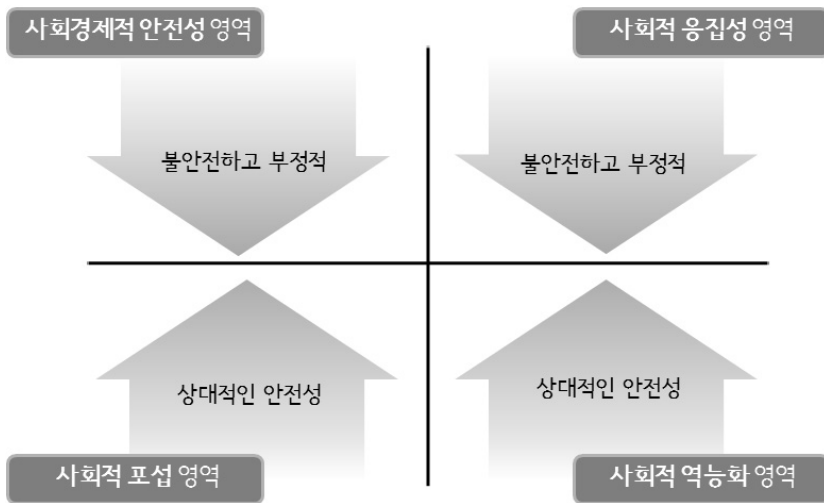
OECD 평가의 초점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이다. 글로벌 도시는 지식산업의 소비 장소임과 동시에 생산 현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 밀도가 높은 도시에 위치해야 하며,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어야 지식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공급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OECD 도시경쟁력 평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역능화 측면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강조와 그러한 유능한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의 역할, 그리고 사적관계망

등이 사회의 인적자원 능력과 사회자체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국 ‘활력있는 사회’가 사회역능화 영역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능화의 차원에서 서울시 현황을 보면 개인의 능력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기기 보유, 정보기기 활용성 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영역의 역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활동 관련 예산지원 정도를 보면, 2007년 기준 전년대비 거의 300% 정도 증가하였다. 2007년 문화예산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민선4기 서울시정이 문화시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사회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영역의 질적 개선과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정책지향은 일정 정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적관계의 역능화를 위한 서울시 현황을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 수와 영유아 시설이나 방과후 학교 현황, 주거와 환경의 디자인적 요소의 포용 등에서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 현황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역능화 차원에서 질적 제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3) 서울 사회의 질 총괄 평가

제5장 서울의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방향

제1절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구상

제2절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

제 5 장

서울의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방향

제1절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구상

이 장에서는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 보여준 지표적 접근은 경험적 데이터가 보여준 추세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체계적 접근은 정책 이론적 틀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질 접근에 근거한 정책 어젠다는 서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도시 사회 정책의 통합적인 틀에서 사회의 질 어젠다가 제시하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설정하고자 한다. 서울의 미래 경제사회정책의 준거틀로 정책어젠다를 설정하고자 한다.

1. 도시 발전과 사회의 질

서울시의 사회의 질 현황에 대한 총괄 평가를 통해 우리는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포섭 영역과 사회적 역능화 영역에서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이며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과 긍정적 현황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이나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경우 긍정적 요소보다는 불안정하

고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은 보다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서울이 사회의 질을 제고하면서 도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 어젠다가 핵심적인 것일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세계대도시들의 도시발전 전략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단기적, 중장기적 도시발전계획아래 지속가능성과 도시 공간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세계대도시 모델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런던 역시 지속가능한 세계 도시의 전형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세계 역사문화도시 브랜드인 파리 역시 지속가능한 세계 중심 도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들의 발전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도시 사회의 질적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 5-1〉 주요 대도시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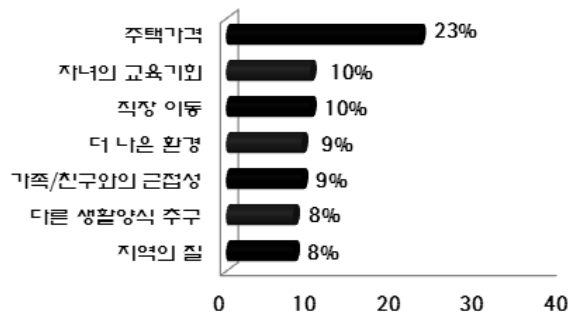
도시	미래상	핵심추진과제
뉴욕 (PlaNYC 2030)	21세기 지속가능한 세계 대도시 모델 A Greener, Greater New York	- 지속적으로 견전한 도시성장을 수용하고 견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정비, 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런던 (London Plan)	지속가능한 세계 도시의 전형 Exemplary, Sustainable World City	- 충분한 주택공급, 효율적인 토지이용,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호, 양극화 해소, 도시기반시설정비, 지역균형발전, 인접 지역과의 연계 발전
파리 (SDRIF 2030)	지속가능한 세계 중심 도시 파리	- 충분한 주택공급, 효율적인 토지이용,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호, 양극화 해소, 도시기반시설정비, 지역균형발전

특히 오늘날 세계도시들이 중산층의 강화나 공동체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도시의 통합성, 포섭성 등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런던 등 영국에서의 중산층 강화를 위한 사회이동 미래 전략의 경우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해 사회이

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획득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도시발전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가 서울의 사회의 질을 평가하고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 역시 이러한 도시발전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와 국가발전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조, 사회성(the social)에 대한 제고 등을 통해 대도시 서울의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뉴욕이 최근 발표한 뉴욕시민의 일상생활 서베이를 분석해 보면 시민들이 점점 더 도시공간의 질적인 측면, 사회와 공동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이주를 결정짓는 요소들 가운데 가격이라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다른 요소들은 거의 등가의 가치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교육기회, 더 나은 환경, 다른 생활양식의 추구, 지역의 질(quality)이라는, 물리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소프트한 사회 전체의 질을 고려한 요소들이 도시민의 공간 선택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Survey of outmigrants from New York City, 2006

〈그림 5-1〉 뉴욕시민들의 거주지 이동원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서울의 사회의 질을 위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정책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사회의 질과 도시 사회의 지향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 대한 모색에서 사회의 질 연구는 사회 발전의 네 차원으로 연구와 정책 방향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는 안심하게 자원을 제공하는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정체성과 가치규범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응집성(social cohesion), 배제되는 집단이 없는 포용성(social inclusion), 개인의 역량을 함양하는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차원이다. 경제, 사회, 문화, 개인적 삶을 포괄하는 이러한 접근은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질 접근은 도시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에서 도시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상이 구체화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에서는 ‘안전사회’가 제시된다. 시민 개개인은 자연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위협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된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응집성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신뢰가 강조되는 ‘신뢰사회’가 제시된다.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사회적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표현이자 동시에 사회를 응집하는 문화적 차원을 나타낸다.

개개인의 삶이 사회 정치 제도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포섭이지만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는 ‘참여사회’의 지향을 나타낸다. 개개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는 제도와 공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한다.

역능성의 영역에서 보는 관점은 개인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사회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력사회’는 개개인의 능력 함양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는 집합적 지향이 정책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사회의 질의 접근은 시민 개개인과 사회의 제도가 통합적으로 엮어지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시민 개개인은 사회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공평한 기회를 이용해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며, 사회의 활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개개인이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는 이 토대 위에서 사회적 통합의 문화적 표현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낸다. 사회적 관계의 신뢰의 토대 위에서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다.

제2절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

1. 역동적 균형과 성숙한 사회

사회의 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연구하였던 이재열(2008)은 ‘사회의 질’을 위한 비전으로 ‘역동적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회의 질의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며,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세련된 시민의식, 그리고 신뢰와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시스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등이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질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소는 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적 지향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요소와 영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활력을 잃지 않는 ‘역동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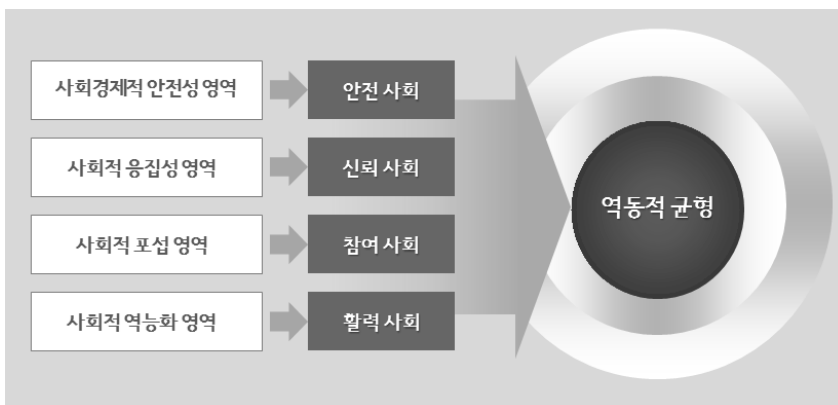
이러한 지향은 사회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즉 각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각각 지향하는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이고 전체 사회의 과정으로서 사회의 발전 방향이 정립된다. 안전사회, 참여사회, 신뢰사회, 활력사회는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바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의 하위 영역의 부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들 각 영역이 지향하는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이들 간의 균형은 포괄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의미한다.

사회 시스템의 균형의 관점에서 사회는 낮은 수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사회경제적 안전이 결여되어 사회계층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배제되어 양극화와 빈곤화가 초래되며, 개개인의 능력 함양이 제한되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조악한 사회가 형성된다. 이렇듯 낮은 수준에서의 균형은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제시한다.

사회의 각 영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바람직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낮은 신뢰 문화 형성과 개개인의 능력 함양을 위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집단의 문제로 야기되는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된다.

성숙한 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그리고 각 영역 간의 역동적 균형을 통한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이 사회의 질 접근에서 제시하는 사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 사회의 질의 통합적 접근 지향

2. 성숙한 사회를 위한 정책 지향¹⁷⁾

○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위한 물질적 수준에서의 혁신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즉 정책 집행의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실업과 질병, 범죄와 재난, 노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이 없도록 제도를 챙기고 배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 및 보호의지의 천명과 함께 무의탁 노인, 저소득층 아동, 노숙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의 사회적 보장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 수준의 연대와 통합

여기에서 핵심사항은 사회적 갈등과 가족 및 사회의 해체를 막는 일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생과 통합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 간 상생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및 성매매 방지 등의 정책을 일관성이 있게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마련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간 갈등과 폭력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사회적 조화와 협력의

17)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적 지향은 대부분 이재열(2008)의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논의된 우리나라의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하였음.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 참여사회에서 갈등의 제도화

절차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이념적 지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은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역동성은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 분업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

각 지역의 경제적 조건, 자연생태의 특성, 그리고 도시 인프라 등이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택하여 전체적인 상승효과를 거두는 것이 보다 도시 서울의 사회통합의 원리에 부합한다.

○ 개인의 역능화와 기회의 확대

이재열은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개인의 역능성으로, 개개인이 최대한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평생의 교육과 학습기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문화적으로 특권과 위계성을 줄이는 것은 기회의 평등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3. 성숙한 도시 사회를 위한 기본 정책 과제

서울의 도시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은 현재의 연구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 사회정책 연구의 틀에서 성숙한 도시 사회를 지향하는 기본 정책의 방향을 보고자 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정책 연구¹⁸⁾에서는 한국의 현 상황의 문제점과 미래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로 사회의 질의 관점이 수용되는 기본 정책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 유연안전성을 위한 고용정책

노동의 숙련도 향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숙련 향상을 위한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역동성과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철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투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양극화와 빈곤화 경향에 대한 탈한계화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도시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욕구별 지원 확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지원제도 개편 및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비, 사회보험 배제층에 대한 확대, 취약계층 대상 준 보편 수당제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18) 전병유, “미래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7과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참조

○건강한 도시 사회를 위한 공공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비 비중 확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역별 형평공급, 재가서비스시설 확대, 식품안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계층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보장정책

시민 개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해 모든 계층에게 고른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득계층별 교육결과·학습성취의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강화, 학력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안정된 도시 생활을 위한 주거보장정책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월세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 저소득층 주거마련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 확대, 지역개발과정에서 주거상실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노숙자 등 주거상실계층 보호 강화 등이 정책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7,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종합계획 수립연구”.
- 김재수, 1999, “수도권 주요도시의 삶의 질 실태 연구”, 논문집 28.
- 김재수, 200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7집.
- 김진욱, 2000,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권 제1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진원·한민경, 2007,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 차이”,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제3권, 대한통계협회.
- 김현식, 2001,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김의철·박영신, 2006,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 김효화, 2005, “서울시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49집.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시문, 2003,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윤수연, 2009, “‘삶의질’의 지표: 미시자료 이용지표”,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통계개발원.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제45권 제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외환위기 10년; 살 맛나는 나라 만들기”.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한국의 사회적 질과 위험 심포지움 자료집』.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Development of Survey Questionnaire on Social Quality (SQSQ) in Asian Societies」 국제워크숍 자료집.
- 서울복지재단, 2006,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007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8』
-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vol.23,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 소진광, 1997,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vol.4,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아시아 경제연구소, 2006,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 이강웅, 1999, “주민의 삶의 질 수준제고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범위”, 『동의정치』, 동의대학교 법정연연구소.
- 이광국, 정하영, 2004, “삶의 질 지수와 적정인구규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자치구단위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vol.22.
- 이인영, 1998,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2009, “‘사회의질’과 ‘삶의질’”,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통계개발원.
- 이재열, 2008,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전”, 『2008년 한국사회학회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논문집(1)』, 한국사회학회.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제31권 2호.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제5권1호, 한국행정연구원.
- 장덕진, 2009, “사회통합과 ‘삶의질’”,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통계개발원.
- 장봉규 · 이진, 1996, “공간환경변화와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

학 연구소

장영식 · 고경환 · 손창균 · 이수현,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크 아탈리, 2007, 『미래의 물결』, 양영란 역, 위즈덤하우스.

전병유, 2007, “미래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창무 · 김갑성 · 이승일 · 안재성, 2008,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분석 및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통계개발원, 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하재구, 1986,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2호.

한국사회학회 · 통계개발원, 2009,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2007, “Annual Report 2006: Strategies to Develop a Social Quality Approach in Europe and South-East Asia”, Amsterdam, December.

European Journal on Social Quality, 2005, Volume 5, Issues 1&2.

Laurent J.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2002, “Social Quality: The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EFSQ, Amsterdam, June.

Laurent J. G. van der Maesen, Margo Keizer, 2002, “Working Paper: From Theory to Practice”, ENIQ Document nr. 4, EFSQ, Amsterdam, February.

Laurent J. 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Laurent J. 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Margo Keizer, 2005, “The Final Report: Social Quality”,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Laurent J.G. van der Maesen, 2008, “The experimental urban space of Laak Noord, of the City of The Hague as part of the Dutch Delta Metropolis: an adequate international frame of referenc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The Hague, 30 December.

Laurent J.G. van der Maesen, 2009, “Reflections on the First Set of Social Quality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Network Social Quality Indicators’”,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Working Papers Nr.3, March.

Margo Keizer, 2004, “Social Quality and the Component of Socio-economic Security” EFSQ, Amsterdam, February.

Alan Walker, Andrea Wigfield, 2004, “The Social Inclusion Component of Social Quality” ENIQ EFSQ, UK, January.

Yitzhak Berman, David Phillips, 2004, “Indicators for Social Cohesion” ENIQ EFSQ, June.

Peter Herrmann, 2004, “Empowerment”(Discussion Paper) ENIQ EFSQ, Februari.

Margo Keizer, Joyce Hamilton, 2002, “Working Paper: Guidelines for National Explorations”, ENIQ nr. 6, Amsterdam, July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Urban Affairs Quarterly, 23.

Myers, D. G. and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Peter Herrmann and Laurent J.G. van der Maesen, 2008, “Working Paper nr. 1: Social Quality and Precarity: Approaching New Patterns of Societal (Dis)Integration”, January.

SuzanneHacking, 2005, “Social Quality: British National Report”,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Sustainable Seattle, 1998, “Indicators of Sustainable Community”.

<http://www.socialquality.org/>(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부 록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 성과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 성과

2001년 10월 EFSQ는 14개 국가의 대학 연구소와 두 개의 국제 NGO로 구성된 the European Thematic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NIQ)를 조직하였다. 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사회의 질 이론을 토대로 네 가지 영역에 따라 개발된 지표를 적용해 보고자, 유럽의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서베이 작업을 했다. ENIQ 프로젝트의 결과는 현재 사회의 질 조사를 위한 경험적 틀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 보고서들의 영역과 하위영역별 지표들은 사회의 질 지표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유럽의 14개 국가보고서들의 주요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Suzanne Hacking(UK) 외, 2005).

1. 사회 경제적 안전성

- 영역: 재정자원
- 하위영역: 소득 만족도
- 지표: 3. EU 빈곤 수준 이상으로 살도록 수혜권을 받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전체인구 비율

〈표 1〉 사회적 양도 이전과 이후의 빈곤율: 전체
- 국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60%인 EU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

	1997		1998		1999		2000		2001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EU 15	25	16	24	15	24	15	23	15	24	15
EU 25	:	:	:	:	24	15	:	:	24	15
Belgium	26	14	25	14	24	13	23	13	23	13
Germany	22	12	22	11	21	11	20	10	21	11
Greece	23	21	22	21	22	21	22	20	23	20
Spain	27	20	25	18	23	19	22	18	23	19
France	26	15	25	15	24	15	24	16	24	15
Ireland	32	19	32	19	30	19	31	20	30	21
Italy	22	19	21	18	21	18	21	18	22	19
Hungary	:	:	:	:	:	:	19	9	20	10
Netherlands	23	10	21	10	21	11	21	10	21	11
Portugal	27	22	27	21	27	21	27	21	24	20
Slovenia	17	11	17	12	18	11	17	11	:	:
Finland	23	8	22	9	21	11	19	11	19	11
Sweden	28	9	28	10	28	9	27	11	27	10
UK	30	18	30	19	30	19	29	19	29	17

Source: Eurostat; free data, social cohesion

〈표 2〉 사회적 양도 이전과 이후의 빈곤율: 성별 비교

	1999				2000				2001			
	남		여		남		여		남		여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EU 15	23	15	25	16	22	14	24	16	22	14	25	16
EU 25	23	15	25	16	:	:	:	:	23	14	25	17
Belgium	23	11	26	14	22	12	25	14	21	12	25	15
Germany	20	10	21	12	19	10	22	11	20	10	23	12
Greece	22	20	23	21	22	19	23	20	21	19	24	22
Spain	23	18	23	19	21	17	23	19	22	17	25	20
France	24	15	25	16	24	15	25	16	23	15	24	16
Ireland	28	17	32	20	29	19	33	21	29	20	32	23
Italy	20	18	21	18	20	18	21	19	21	19	23	20
Hungary	:	:	:	:	18	9	19	10	20	10	21	10
Netherlands	21	10	22	11	21	11	21	10	21	12	21	11
Portugal	27	19	28	22	26	19	28	22	25	20	24	20
Slovenia	17	11	19	12	17	10	18	12	:	:	:	:
Finland	19	9	22	12	18	9	21	13	17	9	20	14
Sweden	26	9	29	10	26	10	28	11	25	10	29	11
UK	27	18	32	21	26	16	32	21	26	15	32	19

Source: Eurostat; free data, social cohesion

- 영역: 주거와 환경
- 하위영역: 주거상태
- 지표: 7. 기초시설(물, 위생설비, 전력)이 부족한 집에 사는 인구 비율

〈표 3〉 소득집단에 의한 세 기본적 쾌적함 중 최소한 하나가 부족한 가구비율 (1999)

	EU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전체가구	21	19	10	38	62	11	16	15	12	89	4	-	11
중위 가처분 소득의 60% 이하 소득의 가구	35	33	25	70	84	24	33	40	16	96	9	-	16

Source: Eurostat 2003, Living conditions in Europe

- 영역: 건강과 보건
- 하위영역: 건강서비스
- 지표: 11. 거주자 십만명당 의사 수

〈표 4〉 거주자 100,000명당 개업의 수

	EU 15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1997	-	386	345	410	428	325	216	578	-	306	296	278	168
1998	368	395	350	426	436	426	219	583	295	312	300	278	172
1999	375	405	355	438	444	328	227	589	311	318	306	283	176
2000	-	411	359	-	454	329	250	599	321	325	308	-	180
2001	-	419	362	-	-	-	-	-	-	-	-	-	-

Source: Eurostat, Yearbook 2003

- 지표: 12. 병원까지의 평균거리(시간 측정)

〈표 5〉 소득별 병원까지의 근접도 : 가구등가소득의 4분위수별 병원까지 20분 이하의 접근성을 가진 비율

	계	가장 낮은 4분위	가장 높은 4분위	퍼센트 차이
EU 15	52,8	44,9	60,4	15,5
Belgium	66	53,6	78,9	25,9
Germany	52,7	48	56,8	8,9
Greece	39,9	35,7	44,3	8,5

〈표 계속〉 소득별 병원까지의 근접도 : 가구등가소득의 4분위수별 병원까지 20분 이하의 접근성을 가진 비율

	계	가장 낮은 4분위	가장 높은 4분위	퍼센트 차이
Spain	41.4	38.4	44.2	5.8
France	54.4	43.4	65.3	21.9
Ireland	44.6	40.5	48.7	8.2
Italy	60.9	47	75.2	28.2
Hungary	31.4	16	46.8	30.8
Netherlands	72.5	66.8	77.8	11
Portugal	37.8	27.2	49	21.9
Slovenia	37.9	30.5	46.2	15.7
Finland	50.9	48	53.8	5.8
Sweden	58	56	60	4.0
UK	45.5	34.2	57.8	23.6

Source: Eurobarometer 52,1

- 영역: 노동
- 하위영역: 고용보장(고용 안전성)
- 지표: 17. 임시직 고용률

〈표 6〉 제한된 기간 계약 고용률 (임시직 계약)

	1999			2000			2001			2002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EU 15	13.2	14.2	12.4	13.4	14.5	12.5	13.4	14.5	:	13.1	14.3	12.1
Belgium	10.3	13.7	7.7	9	12.1	6.6	8.8	12.1	:	7.6	10.3	5.5
Germany	13.1	13.4	12.8	12.7	13.1	12.5	12.4	12.7	:	12	12.2	11.8
Greece	13	14.7	12	13.1	15.7	11.5	12.9	15.4	:	11.3	13.4	9.8
Spain	32.7	34.9	31.4	32.1	34.6	12.1	31.6	34.1	:	31.2	34.2	29.2
France	14	14.8	13.3	15	15.7	14.3	14.9	16.3	:	14.1	16	12.5
Ireland	9.4	12.1	7.1	4.6	5.8	3.6	3.7	4.5	:	5.3	6.3	4.5
Italy	9.8	11.8	8.5	10.1	12.2	8.8	9.5	11.5	:	9.9	12.1	8.3
Hungary	:	:	:	:	:	:	7.5	6.8	:	7.4	6.8	8
Netherlands	12	15.4	9.4	14	17.2	11.1	14.3	17.5	:	14.3	17	12.2

〈표 계속〉 제한된 기간 계약 고용률 (임시직 계약)

	1999			2000			2001			2002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Portugal	18,6	20,4	17,1	20,4	22,7	18,4	20,3	22,1	:	21,8	23,4	20,5
Slovenia	:	:	:	:	:	:	13,1	13,3	:	14,7	16,7	12,9
Finland	18,2	21,2	15,2	17,7	20,9	14,5	17,9	22	:	17,3	20,5	13,9
Sweden	13,9	16,6	11,2	14,7	16,9	12,1	14,7	16,9	:	15,7	17,9	13,3
UK	6,8	7,5	6,2	6,7	7,7	5,7	6,7	7,5	:	6,1	6,8	5,5

Source: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 하위영역: 근무조건

○ 지표: 20. 근로자 100.000명당 직장에서의 사고(치명적/비치명적) 수(가능하면 분야별)

〈표 7〉 직장에서의 사고발생률: 빈도=(직장에서 1년동안 발생한 사고수/참고인구 중 고용인수) X100000

	1994		1998	
	비치명적 사고	치명적 사고	비치명적 사고	치명적 사고
EU 15	4539	3,9	4089	3,4
Belgium	4415	6	5112	3,1
Germany	5583	3,7	4958	3
Greece	3702	4,3	2936	3,7
Spain	6166	7	7073	5,5
France	5515	4,3	4920	4
Ireland	1494	3,9	1433	5,9
Italy	4641	5,3	4105	5
Hungary	:	:	:	:
Netherlands	4287	:	3909	:
Portugal	7361	8,4	5505	7,7
Slovenia	:	:	:	:
Finland	3914	3,6	3435	2,4
Sweden	1123	2,1	1329	1,3
UK	1915	1,7	1512	1,6

Source: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표 8〉 직장에서의 사고 진화(1998=100)

	1997		1998		1999		2000		2001	
	중대한 사고	치명적 사고	중대한 사고	치명적 사고	중대한 사고	치명적 사고	중대한 사고	치명적 사고	중대한 사고	치명적 사고
EU15	100	100	100	100	100	85	98	82	94(p)	79(p)
Belgium	96	100	100	100	96	106	82(b)	100	83	124
Germany	101	90	100	100	99	80	96	70	88	65
Greece	113	76	100	100	93	170	88	73	86	78
Spain	95	115	100	100	107	91	108	85	106	81
France	101	103	100	100	101	85	102	85	98	79
Ireland	115	120	100	100	90	119	72	39	105	43
Italy	100	84	100	100	99	68	99	66	92	62
Hungary	103	97	100	100	93	107	94	95	86	71
Netherlands	107	140	100	100	108(b)	107	105	106	92	79
Portugal	100	108	100	100	92	79	88	104	:	:
Slovenia	106	130	100	100	102	88	98	83	94	105
Finland	98	117	100	100	91	75	89	88	87(b)	8(b)
Sweden	81	169	100	100	107	85	111	85	113	105
UK	102	100	100	100	106	88	106	106	110	92

p) provisional value

b) break in series

Source: Eurostat, free data, employment

〈표 9〉 치명적 산업재해(고용인 100,000명당) (2000)

	EU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전체	5	5	4	3	7	6	2	7	2	9	2	2	2
25세 이하	3	7	3	1	5	4	-	7	1	5	1	3	1
45세 이상	7	6	5	5	10	10	-	10	4	16	3	3	3

Source: Eurostat 2003; Living conditions in Europe

○지표: 21. 정규직의 주당 근무시간 (실제근무주)

〈표 10〉 정규직의 주당 근무시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EU 15	42.1	42.1	42.1	41.9	41.7	41.6	41.4	:
Belgium	40.3	40.6	41.2	38.4	38.5	41.2	41.4	41.3
Germany	41.6	41.7	41.7	41.8	41.8	41.6	41.4	41.0
Greece	44.6	44.4	44.5	44.7	44.2	44.2	44.2	44.4
Spain	42.2	42.3	42.3	42.2	42.1	42.0	41.8	41.6
France	41.2	41.1	41.0	40.9	40.2	39.6	38.9	40.7
Ireland	43.9	43.2	42.9	42.1	41.9	41.5	41.2	41.0
Italy	40.6	40.5	40.6	40.5	40.6	40.6	40.5	40.5
Hungary	42.1	42.0	41.8	42.0	41.9	41.5	41.4	41.4
Netherlands	41.5	41.3	41.0	41.0	41.0	40.9	40.7	40.6
Portugal	43.9	43.1	43.1	42.4	42.0	41.9	41.9	41.6
Slovenia	43.6	43.8	43.9	43.6	43.1	43.2	43.1	42.6
Finland	40.5	40.9	40.9	41.0	40.9	40.7	40.6	40.6
Sweden	41.4	41.4	41.3	41.3	41.2	41.0	41.0	40.8
UK	44.8	44.9	44.8	44.4	44.2	44.2	43.9	43.8

Source: Eurostat; free data, long term indicators, people in the labour market

○영역: 교육

○하위영역: 교육의 안정성

○지표: 22. 의무교육을 마치는 일 없이 교육을 떠나는 학생의 비율(초기 학교 중퇴자)

〈표 11〉 초기 학교 중퇴자: 전체 - 더 나은 교육 및 훈련이 아니라, 가장 열등한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18~24살의 인구 비율

	1999	2000	2001	2002	2003
EU 25	:	:	17.2(p)	16.5(p)	15.9(b)
EU 15	20.5(p)	19.4(p)	18.9(p)	18.5(p)	18.0(b)
Belgium	15.2(p)	12.5	13.6	12.4	12.8
Germany	14.9	14.9	12.5	12.6	12.6(p)
Greece	17.8	17.1	16.5	16.1	15.3(b)
Spain	29.5	28.8	28.6	29.0	29.8
France	14.7	13.3	13.5	13.4	13.3(b)
Ireland	:	:	:	14.7	12.1(b)
Italy	27.2	25.3	26.4	24.3	23.5
Hungary	13.0	13.8	12.9	12.2	11.8(b)
Netherlands	16.2	15.5	15.3	15.0	15.0(p)
Portugal	44.8	42.9	44.3	45.5	41.1
Slovenia	:	:	7.5	4.8	4.3
Finland	9.9	8.9(b)	10.3	9.9	10.7(b)
Sweden	6.9	7.7	10.5(b)	10.4	9.0(b)
UK	19.7(p)	18.3(p)	17.6(p)	17.7(p)	16.7(p)

p) provisional value

b) break in series

Source: Eurostat SC053 IV.5.1

〈표 12〉 초기 학교 중퇴자: 성별 비교

	1999		2000		2001		2002		2003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EU 25	:	:	:	:	15.0(p)	19.5(p)	14.2(p)	18.7(p)	13.9(p)	17.9(b)
EU 15	18.4(p)	22.6(p)	17.1(p)	21.6(p)	16.6(p)	21.2(p)	16.1(p)	20.9(p)	15.9(b)	20.2(b)
Belgium	12.7(b)	17.7(b)	10.2	14.8	12.3	15.0	9.9	14.9	10.8	14.7
Germany	15.6	14.2	15.2	14.6	12.8	12.2	12.6	12.6	12.6(p)	12.6(p)
Greece	14.8	21.2	12.9	21.8	13.0	20.4	12.3	20.1	11.0(b)	19.6(b)
Spain	23.6	35.4	23.2	34.3	22.2	34.9	22.3	35.4	23.4	36.1
France	13.4	16.0	11.9	14.8	12.0	15.0	11.9	14.9	11.6(b)	15.0(b)
Ireland	:	:	:	:	:	:	10.8	18.5	9.2(b)	14.9(b)
Italy	24.2	30.3	21.9	28.8	22.6	30.2	20.7	27.9	20.1	26.8
Hungary	12.7	13.3	13.2	14.3	12.6	13.3	11.8	12.5	11.1(b)	12.4(b)

〈표 계속〉 초기 학교 중퇴자: 성별 비교

	1999		2000		2001		2002		2003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Netherlands	14,9	17,5	14,8	16,2	14,1	16,5	14,3	15,7	14,3(p)	15,7(p)
Portugal	38,8	50,7	35,4	50,3	37,0	51,6	38,1	52,9	33,8	48,3
Slovenia	:	:	:	:	5,6	9,3	3,3	6,2	2,3	6,2
Finland	7,9	12,0	6,3(b)	11,3(b)	7,7	13,0	7,3	12,6	8,6(b)	12,9(b)
Sweden	6,1	7,7	6,2	9,2	9,7(b)	11,3(b)	9,3	11,4	8,2(b)	9,8(b)
UK	19,3(p)	20,1(p)	17,8(p)	18,8(p)	16,6(p)	18,6(p)	16,6(p)	18,8(p)	16,4(p)	17,0(p)

p) provisional value

b) break in series

Source: Eurostat SC053 IV.5.1-2

2. 사회적 응집성

- 영역: 신뢰
- 하위영역: 일반화된 신뢰
- 지표: 25.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

〈표 13〉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

	B	D	EL	E	F	IRL	I	HU	NL	SL	FIN	S	UK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받을 수 있다	29,3	34,8	19,1	38,5	22,2	35,2	32,6	21,8	59,7	21,7	58	66,3	29,9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70,7	65,2	80,9	61,5	77,8	64,8	67,4	78,2	40,3	78,3	42	33,7	70,1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A third Wave (question 8))

〈표 14〉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범위(정도, 규모) (2002) - 다음의 표는 신뢰정도를 0~10까지 점수화하였으며, 0은 불신, 10은 신용을 의미함.

	B	D	EL	E	IRL	I	HU	NL	P	SL	FIN	S	UK
신뢰점수	4,81	4,61	3,64	4,86	5,46	4,54	4,08	5,71	4	3,98	6,46	6,09	5,05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2

○ 하위영역: 특수화된 신뢰

○ 지표: 26. 정부, 선출된 대표, 정당, 군대, 법체계, 언론, 노동조합, 경찰, 종교단체, 시민서비스 경제거래에 대한 신뢰

〈표 15〉 유럽 국가에서의 다양한 시설(제도)에 대한 신뢰 (2002/2003)

	국회	법체계	경찰	정치가	유럽의회
Belguim	4,99	4,39	5,64	4,28	4,88
Germany	4,47	5,73	6,73	3,5	4,46
Spain	4,83	4,31	5,43	3,37	4,8
Finland	5,79	6,75	7,95	4,78	4,88
UK	4,68	5,03	6,04	3,79	3,61
Greece	4,83	6,27	6,43	3,46	5,69
Hungary	5	5,11	4,91	3,88	5,67
Ireland	4,43	5,14	6,53	3,75	5,11
Italy	4,83	5,49	6,66	3,54	5,51
Netherlands	5,22	5,38	5,82	4,87	4,67
Portugal	4,44	4,26	5,13	2,82	4,76
Sweden	5,92	6,06	6,76	4,72	4,02
Slovenia	4,04	4,28	4,89	3,07	4,65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2002.

Remarks: 다음의 표는 신뢰정도를 0~10까지 점수화하였으며, 0은 불신, 10은 신용을 의미함.

○ 지표: 28. 가족, 친구, 여가, 정치, 존경하는 부모,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표 16〉 직장, 가족, 친구, 여가시간, 정치는 그들의 삶에서 전적으로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 (두가지 응답 가능)

	직업	가족	친구	여가시간	정치	종교
Belgium	92,8	97,6	89,1	86,2	33,1	47,6
Germany	82,7	96,9	94,5	83,2	39,5	35
Greece	87,2	99,1	85,5	76,9	34,9	79,7
Spain	94,6	98,9	86,6	80,9	19,3	42
France	94,8	98,2	94,4	88,1	35,4	36,9
Ireland	84,7	98,5	97,3	86,9	32,1	70,7

〈표 계속〉 직장, 가족, 친구, 여가시간, 정치는 그들의 삶에서 전적으로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 (두가지 응답 가능)

	직업	가족	친구	여가시간	정치	종교
Italy	95	98,6	89,8	81,2	33,8	72,1
Hungary	88,7	97,8	82,3	79,7	18,2	42,3
Netherlands	86,5	92,7	96,3	94	57,7	39,8
Portugal	95,1	98,7	87,9	83,7	27,1	75,5
Slovenia	95,8	97,2	88,3	79,7	14,5	36,6
Finland	89,2	96,2	95,2	90	19,8	45,1
Sweden	91,1	97,9	97,6	93,9	55	35
UK	78,6	98,8	96,6	92,5	34,3	37,4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A third Wave (question 1)

- 영역: 다른 통합적 규범과 가치
- 하위영역: 이타심(이타주의)
- 지표: 29. 자원봉사, 주당 시간

〈표 17〉 20~74세의 사람들 중 봉사활동과 비공식적 도움 (하루당 시간과 분)

	B	D	F	HU	SI	FIN	S	UK
20~74세 여성 중 봉사활동과 도움(원조) 시간	0:10	0:15	0:14	0:08	0:06	0:16	0:12	0:14
20~74세 남성 중 봉사활동과 도움(원조) 시간	0:11	0:17	0:18	0:13	0:11	0:16	0:12	0:10

Source: How Europeans spend their time everyday life of women and men - Luxembourg

- 지표: 30. 헌혈

〈표 18〉 헌혈(%), 2002

	EU	B	D	E	F	IRL	I	NL	P	FIN	S	UK
Yes	31	23	31	25	38	32	24	26	22	39	25	32

Source: "Le don de sang" Eurostat, 2003, p.2, Eurobarometer 58.2

- 하위영역: 관용성(Tolerance)
- 지표: 31. 이주자(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표 19〉 해외 이주자(이민자)의 포용에 따른 의견, 2000

국가	원하는 누구라도 오게 하라.	가능한 유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오게 하라.	이곳에 올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라.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사람을 금지하라.
Belgium	7,4	33,5	50,5	8,6
Germany	4,5	32,6	56	7
Greece	3,5	40,9	41	14,6
Spain	19,1	56,2	22,4	2,3
Ireland	8,3	46,7	42,1	2,9
Italy	9,7	47,4	38,3	4,6
Hungary	2	12	59,1	26,8
Netherlands	3,9	35,9	55,6	4,7
Portugal	11,5	61,4	23,2	3,9
Slovenia	4,6	48,1	38,9	8,4
Finland	10,4	34,7	51,9	3
Sweden	16,3	54,4	28,7	0,5
UK	4,3	34,1	48,5	13,1

Source: European Values Survey 1999/2000, Q74

〈표 20〉 해외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의 접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비율

	사회의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이주자가 그들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사회의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이주자가 그들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습을 수용하는 것이 더 좋다
Belgium	28,1	71,9
Germany	23,8	76,2
Greece	68,7	31,3
Spain	52	48
Ireland	56,7	43,3
Italy	59,7	40,3
Hungary	33,4	66,6
Netherlands	29,1	70,9
Portugal	48,9	51,1
Slovenia	30,8	69,2
Finland	32	68
Sweden	36	64
UK	44,7	55,3

Source: European Values Survey 1999/2000, Q75

○지표: 32. 타인의 자기정체성, 신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대한 관용성

〈표 21〉 소수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른 사람들 유형

	참을 수 없다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	수동적(소극적)으로 관대함	적극적으로 관대함
EU 15	14	25	39	21
Belgium	25	28	26	22
Germany	18	29	29	24
Greece	27	43	22	7
Spain	4	18	61	16
France	19	26	31	25
Ireland	13	21	50	15
Italy	11	21	54	15
Netherlands	11	25	34	31
Portugal	9	34	44	12
Finland	8	21	39	32
Sweden	9	15	43	33
UK	15	27	36	22

Source: Eurobarometer 2000 survey

〈표 22〉 타인의 자기정체성, 신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대한 관용성

	B	D	EL	E	F	IRL	I	HU
당신이 자격을 갖지 않은 주(state)의 수익을 요구	2,57	1,91	3,64	2,67	3,39	1,9	1,88	1,7
세금 탈취	3,64	2,36	2,88	2,35	3,06	2,35	2,39	2,12
타인의 차를 훔쳐타고 운전하기 (폭주드라이브)	1,2	1,24	1,39	1,64	1,38	1,11	1,46	1,14
마리화나나 마취제같은 약물 복용	1,72	1,91	2,04	2,16	2,15	1,99	2,03	1,26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3,62	3,32	2,58	2,93	3,71	2,32	2,41	2,53
기혼남녀의 연애	2,72	2,85	2,12	2,48	3,52	1,84	2,75	2,1
그들의 직무기간동안 뇌물을 받는 사람	2	1,8	1,66	1,68	2,08	1,42	1,5	2,67
동성애	5,22	5,69	3,39	5,51	5,27	4,4	4,83	1,45
낙태	4,45	4,61	4,18	4,34	5,64	2,9	4,04	3,92
이혼	5,64	5,86	5,42	6,1	6,32	4,8	5,14	4,5
안락사(불치병 인생을 종결짓기)	5,83	4,34	3,49	4,73	6,16	3,31	3,86	3,83
자살	3,27	2,61	2,26	2,77	4,34	2,07	2,28	1,56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1,48	2,22	1,88	1,86	1,62	1,81	1,58	1,72
음주운전	1,64	1,45	1,49	1,52	1,88	1,4	1,43	1,16

〈표 계속〉 타인의 자기정체성, 신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대한 관용성

	B	D	EL	E	F	IRL	I	HU
세금을 피하는 서비스를 위한 현금지불	4.29	2.89	3.46	3.35	4.18	2.89	2.5	2.62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성행위	2.86	3.15	3.6	3.92	3.91	2.71	3.07	2.74
공공건물에서의 흡연	2.92	4.05	4	3.74	3.38	3.33	3.46	3.85
시가지 지역에서 과속하기	2.39	1.99	2.19	1.93	2.84	1.85	2.61	1.98
대중교통의 운임 피하기	2.39	2.13	2.89	:	2.71	:	2.17	: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	2.64	4.57	:	:	1.45	:	:
매춘	:	4.19	2.37	3.25	:	2.54	2.4	:
정치적 암살(명예 훼손)	:	1.49	1.93	:	:	:	:	:
사람의 태아에 대한 과학적 실험	2.07	1.52	1.38	1.74	:	1.92	1.95	:
음식재료의 유전적 조작	2.42	2.21	2.32	2.05	:	:	2.31	:

〈표 23〉 타인의 자기정체성, 신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대한 관용성 (계속)

	NL	P	SL	FIN	S	UK	Total
당신이 자격을 갖지 않은 주(state)의 수익을 요구	1.51	2.03	2.82	2.3	2.08	1.99	2.28
세금 탈취	2.67	2.45	2.34	2.46	2.41	2.42	2.63
타인의 차를 훔쳐타고 운전하기 (폭주드라이브)	1.34	1.62	1.68	1.31	1.29	1.21	1.41
마리화나나 마취제같은 약물 복용	3.06	2.02	2.3	1.65	1.77	3.1	1.83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3.14	2.45	2.54	2.71	2.56	3.01	2.85
기혼남녀의 연애	2.69	2.47	3.47	2.36	2.38	2.31	2.56
그들의 직무기간동안 뇌물을 받는 사람	1.58	1.77	1.78	1.43	1.83	1.77	1.82
동성애	7.8	3.19	4.62	4.94	7.65	4.89	4.3
낙태	5.4	3.81	6.19	5.42	7.38	4.54	4.58
이혼	6.54	5.46	6.58	6.64	7.8	5.57	5.51
안락사(불치병 인생을 종결짓기)	6.65	3.5	5.37	5.4	6.07	4.99	4.82
자살	4.34	2.2	3.54	3.04	4.12	3.16	2.63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1.7	1.83	1.94	2.27	2.72	2.61	1.88
음주운전	1.44	1.83	2.04	1.35	1.35	1.51	1.54
세금을 피하는 서비스를 위한 현금지불	4.2	2.25	3.28	3.48	3.78	3.53	3.25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성행위	3.7	2.76	4.08	3.75	4.8	3.44	3.15
공공건물에서의 흡연	3.81	3.34	3.57	3.1	3.18	4.02	3.51
시가지 지역에서 과속하기	1.8	2.38	2.93	2.82	2.72	2.3	2.33
대중교통의 운임 피하기	2.72	:	:	2.36	2.68	2.82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	:	5.78	3.31	:	1.96	2.53
매춘	:	:	3.31	3.2	:	3.42	2.84
정치적 암살(명예 훼손)	:	:	:	1.44	:	1.99	1.63
사람의 태아에 대한 과학적 실험	2.5	:	1.86	2.47	:	2.35	2.08
음식재료의 유전적 조작	3.07	:	2.83	2.6	:	2.3	2.42

Source: European Values Survey 1999/2000, Q65, 1-10 scale

○ 하위영역: 사회적 계약

○ 지표: 33.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신념(개인적/구조적)

〈표 24〉 궁핍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불행, 게으름, 불공평, 현대화과정으로 간주하는 사람의 비율

	불행	게으름 및 의지력 부족	사회 불공평	현대의 발전상의 일부부임	이중에 없다
Belgium	26,8	16	35,3	20	1,9
Germany	11,7	28,4	36,9	19,6	3,5
Greece	14,3	29,8	18,2	34,4	3,3
Spain	19,8	19,6	48,4	10,4	1,9
France	14,4	11,4	44,3	26,9	2,9
Ireland	23,2	20,6	33	19,3	3,9
Italy	19,5	23	37,7	15,6	4,2
Hungary	13	27,6	37,7	18,8	2,9
Netherlands	32,8	14,3	25,8	17,5	9,7
Portugal	23,3	41,9	21,6	11,6	1,6
Slovenia	10,4	33,2	35,4	17,3	3,7
Finland	14,8	23	23,8	35,3	3,1
Sweden	10,2	7,1	49,5	33,1	0
Great Britain	16,4	24,6	30,5	24,4	4,1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 A third Wave (question 11)

○ 지표: 38. 정치적, 자원봉사, 자선단체 또는 스포츠 클럽의 회원(활동적이든 비활동적이든)

〈표 25〉 비정부적 단체(NGO' s) 회원인 인구 비율 (2002/2003)

	B	D	EL	E	IRL	I	HU	NL	P	SL	FIN	S	UK
Male	65,1	72	24,8	36,7	68,6	37	27,9	84,4	31,1	51,3	64,	82,8	71,4
Female	57,1	61,7	16,4	29,5	59,3	24,9	17,7	77,4	18,6	33,3	57,2	78,8	62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2002/2003

〈표 26〉 각 항목에 속하는 인구 비율

	B	D	EL	E	F	IRL	I
노년층, 장애인,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1.4	3.9	10.2	3.7	5.6	5.9	6.4
종교 또는 교회 단체	12.2	13.5	11.8	5.8	4.3	16.2	10.3
교육, 예술, 음악 또는 문화적 활동	18.9	7.9	11.2	7.3	7.8	10.1	9.9
노동조합	15.7	7.2	6.5	3.5	4	10	6.2
정당 또는 정치적 집단	7	2.8	4.9	2	2	4.4	4.1
빈곤, 고용, 주거, 인종평등과 같은 이슈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	5	0.7	2.8	2.2	2.3	5.6	2.4
제3세계 발전 또는 인권	9.8	0.6	1.8	2.4	1.4	2.4	2.9
보존, 환경, 생태, 동물 권리	10.4	2.7	5.8	2.5	2.2	2.8	3.8
전문가 단체	8.3	4.4	7.7	2.6	3.1	7.7	7.1
청소년 사업	7.5	1.9	2.5	2.6	2	7.1	4.2
스포츠 및 여가	23.8	28	9.6	8.5	16.4	27.6	11.5
여성단체	8.7	3.6	2.2	2.3	0.4	4.4	0.4
평화운동	2.3	0.2	2.9	1.6	0.5	1.7	1.4
건강관련 봉사단체	5	2.5	3.6	2.7	2.5	4.1	4.7
기타 집단	10.6	3.9	6.8	3.7	6.9	5.4	2.6

〈표 27〉 각 항목에 속하는 인구 비율(계속)

	HU	NL	P	SL	FIN	S	UK
노년층, 장애인,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9	21.6	2	5.4	10.4	20.8	6.7
종교 또는 교회 단체	12.1	35.1	5.6	6.7	47	71.5	4.9
교육, 예술, 음악 또는 문화적 활동	3.4	46.2	3.1	9.2	14.3	26.4	9.7
노동조합	7	23.4	1.7	16.9	32.3	64	8.2
정당 또는 정치적 집단	1.6	9.5	0.9	3	6.6	10.6	2.5
빈곤, 고용, 주거, 인종평등과 같은 이슈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	1	7.4	1	9.2	2.6	9.5	3.8
제3세계 발전 또는 인권	0.3	24.6	0.8	0.8	5.9	15	2.6
보존, 환경, 생태, 동물 권리	1.7	44.3	0.5	3.3	4.4	11.3	1.5
전문가 단체	3.7	18.5	1.1	6.7	5.6	14.5	1.6
청소년 사업	0.8	7.3	1.2	4.5	6.7	6.9	5.7
스포츠 및 여가	3.8	50.3	8.6	16.9	23.7	37	3
여성단체	0.3	4		1.9	4	3.5	1.7
평화운동	0.3	3.4	0.6	0.8	1.3	1.5	0.6
건강관련 봉사단체	2	9.6	2.2	2.9	9.2	6.7	3
기타 집단	2.6	9.7	3.2	9.9	11.8	25	5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A third Wave (question 5)

○지표: 40. 친구 및 동료들과 접촉하는 빈도

〈표 28〉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빈도

	B	D	EL	E	F	IRL	I	HU	NL	P	SL	FIN	S	UK
매주	50,2	49,3	62,1	67,5	58,5	72,1	61,9	37,0	66,7	63,6	57,7	60,3	66,5	74,2
1주일에 한번	30,9	36,7	23,6	18,5	28,0	21,1	20,2	29,1	25,5	14,5	25,7	27,7	28,2	18,5
1년에 몇 번	14,1	12,3	11,3	10,1	11,0	5,3	13,3	22,0	6,5	16,3	14,0	11,0	5,0	5,2
전혀 없음	4,9	1,7	3,1	3,9	2,5	1,6	4,6	11,9	1,3	5,6	2,6	1,0	0,3	2,1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Q6A)

〈표 29〉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빈도

	B	D	EL	E	F	IRL	I	HU	NL	P	SL	FIN	S	UK
매주	12,9	11,3	24,1	27,0	12,5	25,0	16,8	13,6	14,7	35,4	24,4	23,3	17,8	18,6
1주일에 한번	22,5	27,0	23,3	18,7	18,7	27,5	21,9	17,3	29,2	17,8	25,6	23,8	35,9	24,2
1년에 몇 번	33,4	39,9	21,6	18,8	24,0	20,4	26,4	20,5	38,3	16,5	28,2	33,8	37,0	26,8
전혀 없음	31,2	21,8	30,9	35,4	44,7	27,0	35,0	48,5	17,7	30,2	21,9	19,1	9,3	30,3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Q6B)

○영역: 정체성

○하위영역: 국가/유럽 자부심

○지표: 41. 국가 자부심

〈표 30〉 자부심: 국가/유럽에 속함을 자랑스러워하는 인구 비율

	EU 15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국가적 자부심	85	83	66	96	92	86	96	93	84	92	96	90	90
유럽적 자부심	61	64	49	64	74	58	75	81	62	66	73	70	47

Source: Standard Eurobarometer 6:: full report (categories very and fairly proud taken together)

〈표 31〉 국가에 대한 자부심

	B	D	EL	E	F	IRL	I	HU	NL	P	SL	FIN	S	UK
매우 자랑스 러움	24,3	16,8	65	44,1	39,7	71,8	39,3	50,9	19,5	79,1	55,7	56,1	41,4	50,5
제법 자랑스 러움	50,9	50,8	25,6	45,2	49,6	26,2	49	38,4	60,5	17,7	34,9	37,5	45,6	39,5
매우 자랑스 럽지 않음	17,5	24,3	8,6	7,8	7	1,7	9,8	8,5	14,8	2,3	7,4	5,6	11,6	7,9
자랑스럽지 않음	7,3	8,1	0,9	3	3,7	0,3	1,9	2,3	5,2	0,9	2	0,9	1,4	2,1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A third Wave (Q71)

- 하위영역: 지역(regional)/공동체(communitu)/지역(local) 정체성
- 지표: 43. 지역/공동체/지역 정체성의 감정

〈표 32〉 당신이 다음 중 첫 번째에 속한다고 말하는 지리학적 집단은 어느 것인가?

	B	D	EL	E	F	IRL	I	HU	NL	P	SL	FIN	S	UK
마을/도시 (locality/town)	32,1	55,2	44,8	45,6	43,7	56,6	53,4	67,3	39,1	36,3	52,8	48,9	58,7	48,9
행정구역 단위 지역(region)	20,3	29,6	12	16,5	12,1	15,8	10,6	6,3	7,7	16	8,7	12,3	9,5	13,7
국가전체	27,9	10,1	33,2	26,8	28,5	24	23,3	20,1	41,2	41,6	32,1	31,2	22,4	28,4
유럽	9,3	2,9	1,2	1,7	4,3	2,2	4,2	2	4,8	1,6	2,4	3,2	4,2	1,9
세계전체	10,4	2,2	8,8	9,4	11,4	1,4	8,5	4,3	7,2	4,5	3,9	4,4	5,3	7,2

Source: European Values Study; A third Wave (Q67)

3. 사회적 포섭

- 영역: 시민권리
- 하위영역: 구조적/정치적 권리
- 지표: 46. 지역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투표행사를

〈표 33〉 국가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연령 인구 비율대비)

	B	D	EL	E	F	IRL	I	HU	NL	P	SL	FIN	S	UK
1995~1999	83.2	:	83.9	80.6	59.9	66.7	87.4	:	:	79.1	:	71.1	:	69.4

Source: IDEA (1997), Voter Turnout from 1947 to 1997 and OECD : Society at a glance 2001

- 하위영역: 사회적 권리
- 지표: 48.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표 34〉 성별 임금차 - 남성 유급고용인의 평균 시간단위 소득의 비율 대비 여성 유급고용인의 평균 시간단위 소득 차이

	1997	1998	1999	2000	2001
EU(15countries)	16	16	15	16	16
Belgium	10	9	11	12	12
Germany	21	22	19	21	21
Greece	13	12	13	15	18
Spain	14	16	14	15	17
France	12	12	12	13	14
Ireland	19	20	22	19	17
Italy	7	7	8	6	6
Hungary	22	18	19	20	19
Netherlands	22	21	21	21	19
Portugal	7	6	5	8	10
Slovenia	14	11	14	12	11
Finland	18	19	19	17	17
Sweden	17	18	17	18	18
United Kingdom	21	24	22	21	21

Source: Eurostat; free data, employment

〈표 35〉 남녀 소득 - 남성 대비 여성의 연간 총소득 비율 (2000)

	EU15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서비스 산업	75	83	-	80	77	82	-	-	73	71	79	86	68
생산업	77	83	78	83	73	84	-	-	77	67	82	89	69
광업/채석업	75	99	91	81	-	92	-	-	-	94	77	90	68
제조업	75	79	76	74	-	79	-	-	75	65	80	89	68
전력,가스,수도 공급	78	68	82	81	-	83	-	-	81	89	77	83	70
건설업	88	99	91	94	102	100	-	-	82	90	82	90	76
무역/정비(repairs)	72	79	74	76	-	77	-	-	68	71	73	83	63
호텔/음식점	79	91	-	77	-	85	-	-	82	74	90	90	72
운송	84	91	-	64	-	90	-	-	74	98	87	92	81
금융중개	62	70	75	73	-	64	-	-	62	80	57	66	46
부동산	70	76	-	91	-	72	-	-	70	71	75	78	66

Note: The share refers to full-time earnings.

Source: "Living conditions in Europe" Eurostat, 2003, p.60

○ 하위영역: 경제적/정치적 네트워크

○ 지표: 52. 의회, 사기업과 재단의 중역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여성 비율

〈표 36〉 국가 정부와 의회(국회)에서의 여성 비율 (2001)

	B	D	EL	ES	F	IRL	I	NL	P	FIN	S	UK	Total
정부	22,2	38,6	12,5	17,6	29,4	21,9	10,3	36	9,8	38,9	50	32,9	24,7
의회	24,6	29,8	8,7	27,1	8,3	14,2	10,2	32,4	20	37	44,3	17	20,5

Source: Europäische datanbank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www.db-decision.de)

○ 영역: 노동시장

○ 하위영역: 급여고용에 대한 접근

○ 지표: 53. 장기실업자 (12개월 이상)

〈표 37〉 전체 장기실업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EU 15	4.9	4.4	4.0	3.5	3.1	3.1	3.3
Belgium	5.4	5.5	4.9	3.7	3.2	3.5	3.7
Germany	4.9	4.7	4.3	3.9	3.8	4.1	4.6
Greece	5.3	5.8	6.4	6.0	5.4	5.1	5.1
Spain	8.9	7.6	5.9	4.7	3.9	3.9	3.9
France	4.8	4.6	4.2	3.6	3.0	3.0	3.4
Ireland	6.0	3.9	2.6	1.6	1.2	1.3	1.5
Italy	7.5	7.0	6.8	6.4	5.8	5.3	4.9
Hungary	4.5	4.2	3.3	3.0	2.5	2.4	2.4
Netherlands	2.3	1.5	1.2	0.8	0.7	0.7	1.0
Portugal	3.3	2.2	1.8	1.7	1.5	1.8	2.2
Slovenia	3.4	3.3	3.2	4.1	3.5	3.4	3.4
Finland	4.9	4.1	3.0	2.8	2.5	2.3	2.3
Sweden	3.1	2.6	1.9	1.4	1.0	1.0	1.0
UK	2.5	1.9	1.7	1.5	1.3	1.1	1.1

Source: Eurostat; free data, social cohesion

〈표 38〉 장기실업자: 성별 비교 (1997~2000)

	1997		1998		1999		2000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EU 15	5.8	4.2	5.4	3.9	4.7	3.3	4.2	2.9
Belgium	7.1	4.2	7.0	4.5	5.9	4.1	4.6	3.0
Germany	5.6	4.3	5.3	4.2	4.7	4.0	4.2	3.7
Greece	9.3	2.8	9.9	3.1	10.5	3.7	9.8	3.5
Spain	14.1	5.7	12.4	4.8	9.4	3.7	7.6	2.8
France	5.7	4.0	5.5	3.9	5.1	3.5	4.4	2.9
Ireland	5.1	6.5	2.8	4.6	1.9	3.2	1.0	2.0
Italy	10.5	5.7	9.5	5.4	9.3	5.2	8.8	4.9
Hungary	4.0	4.9	3.9	4.5	2.9	3.6	2.5	3.4
Netherlands	3.1	1.8	1.8	1.3	1.5	0.9	1.0	0.6
Portugal	3.6	3.0	2.7	1.9	2.1	1.5	2.1	1.4
Slovenia	3.3	3.6	3.3	3.3	3.0	3.4	4.1	4.0
Finland	4.9	4.9	4.0	4.3	2.8	3.2	2.7	2.8
Sweden	2.	4.0	1.8	3.2	1.4	2.2	1.0	1.7
UK	1.5	3.3	1.2	2.5	1.0	2.2	0.9	1.9

〈표 39〉 장기실업자: 성별 비교(계속) (2001~2003)

	2001		2002		2003	
	여	남	여	남	여	남
EU 15	3.7	2.7	3.6	2.7	3.7	2.9
Belgium	3.6	3.0	4.1	3.2	4.0	3.4
Germany	4.1	3.7	4.2	4.0	4.6	4.6
Greece	8.6	3.1	8.3	3.0	8.5	2.8
Spain	6.3	2.3	6.3	2.3	6.0	2.4
France	3.7	2.4	3.5	2.6	3.9	3.1
Ireland	0.8	1.6	0.7	1.7	0.9	1.9
Italy	8.0	4.5	7.2	4.1	6.7	3.9
Hungary	2.1	2.9	2.1	2.7	2.3	2.5
Netherlands	0.8	0.5	0.8	0.6	1.1	1.0
Portugal	1.9	1.2	2.2	1.4	2.6	1.8
Slovenia	3.6	3.4	3.4	3.4	3.6	3.3
Finland	2.3	2.7	2.0	2.5	2.0	2.6
Sweden	0.8	1.2	0.8	1.2	0.8	1.2
UK	0.8	1.7	0.7	1.4	0.7	1.4

Source: Eurostat; free data, social cohesion

- 영역: 사회적 네트워크
- 하위영역: 이웃 참여
- 지표: 67. 이웃과의 정기적 접촉 비율

〈표 40〉 이웃과 대화하는 16세 이상의 인구 비율 (1999)

	EU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최소한 1주일에 한번	81	71	-	96	90	-	89	80	70	86	79	-	78
한달에 한두 번	10	17	-	2	5	-	7	10	14	8	12	-	13
한달에 한번 이하 또는 전혀 안 만남	9	12	-	2	5	-	4	10	16	6	9	-	9

Source: Eurostat 2003, Living conditions in Europe

- 하위영역: 우정
- 지표: 68. 친구와의 정기적 접촉 비율

〈표 41〉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16세 이상의 인구 비율(집 또는 다른 장소에서) (1999)

	EU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최소한 1주일에 한번	81	78	-	90	92	66	97	81	85	74	80	-	87
한달에 한두 번	14	18	-	9	6	26	3	13	13	16	17	-	10
한달에 한번 이하 또는 전혀 안 만남	5	4	-	2	2	8	1	6	2	9	4	-	3

Source: Eurostat 2003, Living conditions in Europe

4. 사회적 역능화

- 영역: 지식기반
- 하위영역: 정보의 유용성
- 지표: 73. 언어/수리적 능력 있는 인구 비율

〈표 42〉 언어능력 부족: 글자를 읽는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적으로 부족한 개인의 비율

	B	D	EL	F	IRL	I	HU	P	FIN	S	UK
15살 학생	19	22.6	24.4	15.2	11	18.9	22.7	26.3	6.9	12.6	12.8
16~65세 인구	15.3	9	-	-	25.3	-	32.9	49.1	12.6	6.2	23.3

Source: PISA2000; Adult Literacy Survey, 1994-98

- 지표: 75. 인터넷 접속

〈표 43〉 다양한 유럽국가에서의 인터넷 사용 (14세 이상의 개인 중 %)

	B	D	EL	IRL	I	HU	NL	P	SL	FIN	S	UK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6.3	86.6	75.1	58.3	69.8	80.4	40.7	69.9	64.1	63.9	33	51.4
매일 사용한다.	18.1	4.2	9.3	13	9.9	5.7	21.7	14.8	10.6	18.8	27.8	17.7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2002/2003

- 영역: 노동시장
- 하위영역: 직장이동의 기대

○지표: 80.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고용된 노동력 비율

〈표 44〉 기업의 지속적 직업 훈련(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CVT) (1999)

	EU	B	D	EL	E	F	IRL	I	NL	P	FIN	S	UK
모든 기업 중 훈련기업 비율	62	70	75	18	36	76	79	24	88	22	82	91	87
모든 기업의 고용인 중 훈련기업에서의 고용인 비율	88	88	92	56	64	93	92	56	96	52	95	98	97
모든 기업의 고용인 중 CVT 과정 참가자 비율	40	41	32	15	25	46	41	26	41	17	50	61	49
고용인당 CVT 과정(코스) 시간 (모든 기업)	12	13	9	6	11	17	17	8	15	7	18	18	13
참가자당 CVT 과정(코스) 시간	31	31	27	39	42	36	40	32	37	38	36	31	26

Source: Eurostat 2003, Living conditions in Europe

〈표 45〉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와 기업의 분류(1999) (%)

부문	B	D	E	HU	NL	P	SL	FIN	S
산업	68	73	38	34	90	19	53	77	90
상업	72	83	41	39	87	24	30	85	94
재정서비스	100	100	74	79	97	67	66	100	100
경제서비스	86	87	41	48	90	43	60	86	90
그 외 공공/개인 서비스	75	89	33	35	88	29	69	93	100
기타	63	65	29	31	86	18	46	79	84

Source: Eurostat 2002, Statistics in Focus

영문 요약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Quality of Seoul Urban Society

Kwonjoong Choh · Miree Byun · Ji-Won Choi

A new approach to society is necessary while economic recession goes on in 2009. Policy agenda have consisted of the quality of life and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ization era. Although these agenda will continue in economic coordination, social issues may arise in the conflicts of economic interests.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for new policy agenda and theory for Seoul society. Social quality is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people's life and society. This conception arise from the reflection of society in Europe. After constituting social quality theory in the 1990s, the social quality approach has develop comparative research framework ranging from concept, to methodology and to policy agenda.

In this study, while examining European research works, Asian comparative studies and Korean application, social quality indicator framework is presented for Seoul. Seoul urban society is evaluated on the framework of the social quality approach which consists of four areas;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With this recognition of social qualit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genda for the creative adminis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policy should be oriented for the dynamic equilibrium among security, participation, trust and activity. SMG(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various policy issues of urban society for social quality; material innovation, safety and security, solidarity and social integration, conflicts and participation, balancing regional identity, and individual empowerment. Above all, social policy of fundamental should focus on 'flexicurity' of employment, polarization and poverty problems, public health system, as well as education for equity and opportunity.

Table of Contents

Chapter 1 Social Quality : Theory and Agenda

1. Introduction
2. Various Approaches to Policy Agenda
- 3 A Social Quality Approach and Agenda

Chapter 2 Research Trends of Social Quality

1. European Studies
2. Asian Comparative Studies
3. Korean Applications and Studies

Chapter 3 Development of the Social Quality Methodology

1. Introduction to the Social Quality Indicators
2. European Social Quality Indicators
3. Social Quality Indicator Framework

Chapter 4 Social Quality Indicator Approach to Seoul Urban Society

1. Socio-economic Security
2. Social Cohesion
3. Social Inclusion
4. Social Empowerment
5. Overall Evaluation

Chapter 5 Social Quality Approach to Policy Agenda

1. Policy Agenda for Social Quality
2. Urban Policies of Social Quality

References

Appendix

시정연 2009-PR-07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발행인 정문건

발행일 2009년 6월 30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74-1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